

ISSN 1226-1432
2005년 13권 1호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청소년상담연구



5
3 n.1

2005년 7월 27일 인쇄

2005년 7월 31일 발행

발행처: 한국청소년상담원

발행인: 이 배 근

주 소: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전 화: (02) 2253-9344

전 송: (02) 2253-3818

E-mail: hycounsel@kyci.or.kr

<편집위원회>

위원장: 금 명 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

위 원: 김계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남상인(순천향대학교 교육과학부 교수)

문성호(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이동렬(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창(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간 사: 주영아, 김태성(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지로서 연 2회 간행되며,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의 정책 및 방향,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청소년 상담연구 방법과 상담사례 연구 등을 게재한다.

Vol. 13, No. 1.

July 2005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publishes research in the areas of (a) counseling activities, (b) counseling theories, (c) policies related to counseling activities, (d) the development of new research methods and measures, (e) professional issues. In addition,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considers survey studies that have potential for stimulating further studies in youth counsel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are appropriate. Replications and extension of previous studies are encouraged.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is published semiannually (July, November) in one volume per year by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to the Editor, Myung-Ja Keum,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92-61 Shindang 6-Dong, Chung-Gu, Seoul (e-mail: mjkeum@kyci.or.kr),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to Authors published elsewhere in this issue.

Editor: Myung-Ja Keum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Associate Editors: Kayhyun Kim (Seoul Nat'l Univ.), Sang-In Nam (Soonchunhyang Univ.),
Sung-Ho Moon(Chungang Univ.), Dong-Yul Lee (Ewha Woman's Univ.),
Bong-Ju Lee (Seoul Nat'l Univ.), Jae-Chang Lee (Hongik Univ.)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92-61 Shindang 6-Dong, Chung-Gu, Seoul, Korea

본 연구지는 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 3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
고기홍
 - 17 자녀양육 협의를 위한 이혼중재 서비스 고찰
전명희
 - 31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안현의
 - 43 남녀 중학생 집단따돌림 발생원천의 성분비교 : 사회관계모형 분석
박나영, 고재홍
 - 55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에 대한 연구
: 서울시 거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명선, 조선화
 - 71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 Bronfenbrenner의 관점을 중심으로 -
김광웅, 문수경
 - 85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경집, 연문희
 - 97 청소년을 위한 다차원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MSPIUA)의 개발 및 타당화
: 2부 - 심리적 원인척도(MSPIUA-C)
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 113 주변사람의 죽음이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이윤주, 조계화, 이현지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

고 기 흥[†]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구성'과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Workshop이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의 2개 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6개의 가족기능 평가 모형의 공통요인을 분석하여 '가족구조,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 생활주기'의 7개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을 구성한 후 상담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 구성된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이 상담자의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은 제주지역 상담자 21명을 대상으로 주1회 3시간씩 총 5회의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Workshop을 실시하였고,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자가평가 검사지(이명우, 2003)를 사용하여 사전과 사후, 그리고 추후검사를 실시한 후, 수집된 자료를 일원 반복측정을 하였다. 그 결과, 검사시시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어 검사시기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HSD 절차를 적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전과 사후검사간 차이, 그리고 사전과 추후검사간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사후와 추후검사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은 상담자들의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가족문제, 가족기능, 사례개념화

가족문제란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생활과제를 의미하며, 흔히 바람직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심각한 갈등이 동반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최근의 가족문제에 대한 지표들, 예를 들면 이혼율, 편부 및 편모가정, 가정폭력, 아동폭력, 노인인구의 증가와 부모부양 갈등 등은 가족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반영하며, 이 때문에 개인 및 가족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위기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최규연, 1997; 김만두, 1997; 최정혜, 1993; 이정숙, 1993; 김갑숙, 최외선, 1992). 이러한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나 위기의식은 자연스럽게 가족상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문제는 가족기능과 밀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송성

자, 1985; 유영주, 2002).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기능은 가정폭력(서덕례, 2000), 정신건강(정순복, 김수진, 2001), 정신질환(김형준 외, 2000; 공수자, 1990), 우울 및 불안(이병환 외, 2002; 원진숙 외, 1994), 물질 및 약물남용(이나연, 김유숙, 1995), 컴퓨터 및 인터넷 중독(방희정, 조아미, 2003; 이선옥, 2002; 김정화, 2002), 신경성 폭식증(Bonne, Lahat, Keir, & Berry, 2003), 스트레스(임지향, 2001; 김미자, 2001), 청소년 비행(홍인숙, 2002; 정수경, 2000), 청소년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김동연, 2003; 김혜영, 김영희, 2002; 민은정 외, 2001), 대인관계 및 부적응(김혜영, 2003), 가출(엄명용, 1997), 자아존중감(박선영, 도현심, 1998), 청소년들의 성 학대와 외상관련 증

[†] 교신저자 : 고 기 흥, (690-012) 제주시 연동 2305-4번지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센터
메일주소 : ggh8073@hanmail.net

상들의 내면화(Bal, Bourdeaudhuij, Crombez, & Oost, 2004), 건강과 관련된 자기관리(Gowers, Jones, Kiana, North, & Price, 1995), 여성 소년범들이 인식하는 모녀 관계의 질(Petrocelli, Calhoun, & Glaser, 2003) 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상기된 연구결과들은 가족기능이 신체 및 생리, 심리·사회적 문제, 즉 인간이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영역과 밀접한 상관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가족문제와 가족기능이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가정은 토대로 가족상담자들은 일찍부터 가족기능 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런 노력들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김수연, 1998). 특히 가족기능 평가 모형은 증상의 발달 및 유지에 기여하는 가족의 역동을 사정하고 어떤 개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사례개념화의 준거로도 모색되고 있다(김유숙 외, 2003). 하지만 가족기능 평가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족상담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평가도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에 대해 김수연(1998)은 ‘척도의 문항수가 많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점수를 부호화하는 방식이나 해석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뢰도와 타당도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누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가족상담 분야에서는 최근 절충 및 통합적 접근모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가족상담을 수행하는 실무 현장의 경향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족상담 실무에서는 특정한 접근모형에 근거하여 조력하려면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여러 접근모형들을 절충 및 통합하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수경(2000)은 가족상담에서 사용하는 ‘치료적 동맹, 생활주기, 응집력, 분화 등과 같은 개념들, 그리고 상호작용 재인, 의식, 가계도와 같은 기법들은 학과를 초월하여 대부분의 가족상담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상담의 절충 및 통합적 접근모형이 증가하는 이유로 ‘사례관리,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방식과 재정에서의 변화 등으로 광범위한 환자체계에 가장 적합한 개입을 제공해야 하는 실용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 및 통합적 접근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의 확산되고 있다는 점, 어떤 단일 관점도 제한점이 있다는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조,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족상담을 실시하게 되면서 다른 접근모형과의 차이점을 강조할 필요성은 감소하고 체제이론적 틀 안에서 다른 접근모형들과의 교류가 촉진되어 왔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가족상담 실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절충 및 통합에 대한 관심은 이론과 현장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향은 결국 가족문제 사례개념화에 대

한 통합적 모형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Bray, 1995).

한편 사례개념화란 ‘내담자의 문제 및 증상, 원인 또는 관련 요인, 상담개입 방향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사례개념화는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전문 상담자라면 마땅히 실증 가능한 경험적 자료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박태수, 고기홍, 2003).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급상담자의 경우 사례개념화의 숙달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문수정, 1999; 방기연, 2002). 또한 문수정(1999)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상담자의 경력수준과 상관없이 사례개념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왕은자(2001)의 조사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경력수준과 관계없이 사례개념화 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았으나 실제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다고 보고되었다(이명우, 2003에서 재인용). 그리고 상담교육자들도 현장에 있는 상담 실무자들의 사례개념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상담의 과도기적 특성, 상담자 양성과정의 문제점, 상담현장의 사례관리 문제점, 그리고 상담자 개인의 빈약한 사례개념화 준거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박태수, 고기홍, 2003).

이윤주(2001)는 ‘상담자 발달수준과 사례개념화 능력, 사례개념화 교육,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과 같은 사례개념화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요나 필요성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이명우(2003)도 사례개념화 연구가 ‘사례개념화 관련변인, 사례개념화 모형개발, 사례개념화 교육’의 세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시 사회적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상담과 마찬가지로 가족상담의 경우에도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2개의 소연구들을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을 구성한다. 둘째, 실험연구를 통해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Workshop이 상담자들의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연구 1 :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구성

본 소연구의 목적은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세부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사례개념화 요인과 가족기능 평가요인

을 도출하여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의 구성요소를 밝힌다. 둘째, 가족문제와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족문제 유형과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을 도출한 후, 앞서 구성될 가족기능 평가요인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셋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을 구성한 후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다.

사례개념화 요인 및 가족기능 평가요인

여기서는 사례개념화 요인 및 가족기능 평가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상담사례 개념화 요인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사례개념화 요인을 도출하되 이는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조적 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어 가족기능 평가도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가족기능 평가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개념화 요인

사례개념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한정되어 있어, 여기서는 최근 국내에서 연구된 이윤주(2001)와 이명우(2003)의 연구를 중심으로 사례개념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윤주(2001)는 국내와 여러 학자들이 내린 개념정의와 사례개념화 및 슈퍼비전에 관한 21종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내담자 현재 문제 및 관련증상,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개인적 요소, 문제관련 내담자의 외적요인,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내담자의 자원 및 취약성,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상담목표 및 계획”의 8개 사례개념화 요인을 도출하였고, 그리고 각 요인별 2개-6개, 총 27개의 사례개념화 세부요인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이들 요인들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행능력과 경력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 있는 사례개념화 요인들로 입증되었다. 이명우(2003)는 국내의 6개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개념화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주호소 문제, 관련정보 탐색, 상담자 관점, 상담전략”의 4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4개의 요인을 토대로 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련초기 및 중기에 있는 상담자들에게 실시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최근에는 박태수와 고기홍(2003)이 그들의 저서에서 사례개념화의 핵심 요인으로 ‘내담자의 문제 및 증상, 원인 또는 관련요인, 상담개입 방향과 방법’의 3가지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 사례개념화 요인과 같다.

표 1. 사례개념화 요인

연구자	항목
이윤주	내담자 현재 문제 및 관련증상,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개인적 요소, 문제관련 내담자의 외적요인,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내담자의 자원 및 취약성,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상담목표 및 계획
이명우	주호소 문제, 관련정보 탐색(촉발요인과 유지요인), 상담자 관점, 상담전략(상담목표와 상담계획)
박태수와 고기홍	내담자의 문제 및 증상, 원인 또는 관련요인, 상담개입 방향과 방법

그런데 상기된 사례개념화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결국 세 가지 요인, 즉 문제나 증상에 대한 기술적 설명, 원인에 대한 추론적 설명, 상담개입에 대한 의사결정적 설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윤주의 ‘내담자 현재 문제 및 관련증상’, 이명우의 ‘주호소 문제’, 박태수와 고기홍의 ‘내담자의 문제 및 증상’은 문제나 증상에 대한 기술적 설명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윤주의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개인적 요소, 문제관련 내담자의 외적요인,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내담자의 자원 및 취약성,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이명우의 ‘관련정보 탐색(촉발요인과 유지요인), 상담자 관점’, 박태수와 고기홍의 ‘원인 또는 관련요인’은 원인에 대한 추론적 설명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이윤주의 ‘상담목표 및 계획’과 이명우의 ‘상담전략(상담목표와 상담계획)’, 박태수와 고기홍의 ‘상담개입 방향과 방법’은 상담개입에 대한 의사결정적 설명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사례개념화 모형의 기본구조는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개입’의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은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개입’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가족기능 평가 요인

가족기능 평가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이 쓰이는 ‘McMaster 모형, Olson 순환 모형, Beavers 체계모형, Moos 가족환경 모형, Smilkstein Family APGAR 모형, ENRICH 모형’의 6개 평가도구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먼저 6개의 모형에서 제시된 세부요인을 탐색하였고, 이러한 세부요인들 중에서 같거나 비슷한 요인들을 구분하여 유형화시킨 후, 각 유형들을 묶을 수 있는 개념을 선정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6개의 가족기능 평가모형에서 제시된 세부요인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하위요인과 같다.

표 2.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하위요인

모형 (척 도)	가족기능 하위요인
McMaster 모형	문제해결, 의사소통, 역할,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관여, 행동 통제, 가족의 일반적 기능
Olson 순환모형	응집성(정서적 유대, 가족의 관여,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내 경계, 외부경계), 적응성(리더쉽, 훈육, 협상, 역할, 규칙), 의사소통
Beavers 체계모형	가족유능성(가족구조, 가족신화, 목표지향적인 협상, 자율성, 가족정서, 전반적인 가족 건강/병리상태), 가족 유형(원심적 상호작용, 구심적 상호작용)
Moos 가족환경모형	상호관계 영역(응집성, 표현성, 갈등), 개인적 성장 영역(독립성, 성취 지향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활동-오락적 지향성, 도덕-종교적 강조), 체계유지 영역(조직, 통제)
Smilkstein Family APGAR	적응성, 협력성, 성장성, 애정성, 해결성
ENRICH 모형	결혼만족도, 성격문제,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관리, 여가활동, 성관계, 자녀·양육, 가족·친구, 역할관계, 종교적 신앙

상기된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하위요인들을 유형화하면 크게 '가족구조 요인, 가족기능 요인, 가족발달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유형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 평가척도의 하위요소인 '가족구조, 조직, 전반적인 가족 건강/병리상태' 등은 구조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족구조'로 함께 묶을 수 있다. 둘째, 가족기능은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기존 평가척도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표현성, 협상, 목표지향적인 협상' 등은 의사소통 측면을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의사소통'으로 함께 묶을 수 있다. 셋째, 기존 평가척도의 하위요인인 '역할, 역할관계, 훈육, 재정관리, 성관계, 자녀·양육, 협력성, 갈등해결' 등은 가족의 역할측면을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역할'로 함께 묶을 수 있다. 넷째, 기존 평가척도의 하위요인인 '리더쉽, 행동 통제, 협상, 목표지향적인 협상, 협력성, 관계갈등, 갈등해결' 등은 가족내 권력현상, 즉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계'로 함께 묶을 수 있다. 다섯째, 기존 평가척도의 하위요인인 '가족내 경계, 외부경계, 자율성, 독립성, 정서적 유대,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관여, 애정성, 가족정서, 응집성, 원심 및 구심적 상호작용, 가족·친구, 여가활동, 성관계' 등은 가족내 영역구분과 영역간 교류 측면을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로 함께 묶을 수 있다. 여섯째, 기존 평가척도의 하위요인인 '통제, 행동 통제, 규칙, 성취지향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활동-오락적 지향성, 도덕-종교적 강조, 종교적 신앙, 가족신화' 등은 가족내 반복적 행동 및 상호작용 양식을 통제하는 규칙이나 이념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규칙'으로 함께 묶을 수 있다. 일곱째, 기존 평가척도의 하위요인인 '적응성, 성장성, 문제해결, 해결성, 갈등해결' 등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발달 및 당면과제를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생활주기'로 함께 묶을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 가족기능 평가요인과 같다.

표 3. 가족기능 평가요인

요인	세부요인
가족구조	가족구조, 조직, 전반적 가족건강/병리상태
의사소통	의사소통, 표현성, 협상, 목표지향적인 협상
역할	역할, 역할관계, 훈육, 재정관리, 성관계, 자녀·양육, 협력성, 갈등해결
위계	리더쉽, 행동 통제, 협상, 목표지향적인 협상, 협력성, 관계갈등, 갈등해결
가족기능	가족내 경계, 외부경계, 자율성, 독립성, 정서적 유대,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관여, 애정성, 가족정서, 응집성, 원심 및 구심적 상호작용, 가족·친구, 여가활동, 성관계
규칙	통제, 행동 통제, 규칙, 성취지향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활동-오락적 지향성, 도덕-종교적 강조, 종교적 신앙, 가족신화
가족발달 (생활주기)	적응성, 성장성, 문제해결, 해결성, 갈등해결

가족문제와 바람직한 가족 조건에 대한 조사

여기서는 조사연구를 통해 가족문제 유형 및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앞에서 도출한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을 사용하여 가족문제 유형 및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도출된 가족기능 평가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밝혀진 유형 및 조건들을 분석하여 가족문제를 진단하는 기능적 세부요인과 역기능적 세부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자는 제주도내 모대학교에서 ‘자기성장과 인간관계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116명과 상담교육 수강생 155명이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조사연구 대상자 특성

구분	성별	나이	결혼상태
빈도 (%)	남 42(15.5%)	20대 116(42.8%)	미혼 123(45.4%)
	여 229(84.5%)	30대 46(17.0%)	결혼 122(45.0%)
		40대 92(34.0%)	이혼 9(3.3%)
		50대 17(6.3%)	별거 2(0.7%)
			사별 15(5.5%)
합계	271 (100.0%)	271(100.0%)	271(100.0%)

도구는 본 연구자가 제작한 ‘가족문제 및 바람직한 가족 조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성별, 나이, 결혼 상태를 묻는 기본사항, 그리고 당면한 가족문제와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을 묻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대학생의 경우 2개 학급에서 실시하였고, 상담교육 수강생의 경우 각기 다른 집단으로부터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286개였고, 이들 중 무응답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271명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단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가족문제 유형과 가족기능 평가요인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가족문제들을 단순 빈도분석한 결과 48개의 가족문제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도출된 가족기능 평가요인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48개의 문제유형을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48개의 가족문제 유형들은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으로 모두 유형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은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설명하는 개념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가족문제 유형과 가족기능 평가요인

요 소	가 족 문 제
구 조	부모결혼 7(2.6%), 편부, 편모 14(5.2%), 재혼문제 6(2.2%), 무자녀 8(3.0%), 외도 2(0.8%), 정신 질환자 14(5.2%), 신체적 병자 47(17.3%), 별거 5(1.9%), 부모부양문제 14(5.2%), 이혼 3(1.1%)
의 사 소 통	대화부족, 표현부족 140(51.2%), 불일치 및 이중적 태도 33(12.2%), 무시, 불신 태도 30(11.1%)
역 할	경제문제, 실업문제, 경제적 무능력 203(75.0%), 주거문제 35(12.9%), 자녀교육, 양육 및 훈육문제 211(77.9%), 가사문제 71(26.2%), 건강문제 71(26.2%), 성문제, 불임문제 14(5.2%), 흡연문제 14(5.2%), 음주문제 57(21.0%), 효도 부족 11(4.1%), 모범 보이지 못함 25(9.2), 역할회피, 무책임함, 능력부족 38(14.0%), 자기관리 부족 116(42.8%)
위 계	부모의 방임적 태도 11(4.1%), 권위적 태도, 가부장적 태도 76(28.0%), 신체 및 언어폭력 39(14.4%), 동맹과 소외 8(3.0%), 말다툼, 비난, 싸움, 경쟁, 갈등 48(17.7%), 관계갈등, 부부갈등, 고부갈등 46(17.0%), 무시, 버릇없음 62(22.9%)
경 계	가족공동행사 부족, 여가활동 부족 60(22.1%), 정서유대 및 지지 부족 106(39.1%), 책임회피 38(14.0%), 과잉보호, 간섭, 40(14.8%), 통제, 억압, 강요 59(21.8%), 개인 미성숙 30(11.1%)
규 칙	원칙부족 25(9.2%), 버릇없음 11(4.1%), 양보부족 23(8.5%), 간섭, 통제, 억압, 강요 73(26.9%), 종교문제(부모종교 강요, 형식적 생활) 13(4.8%)
생 활 주 기	문제해결 및 개선 부족 62(22.9%), 학업 및 진로 79(29.2%), 결혼문제 46(17.0%), 이성문제 52(19.2%), 노후문제 30(11.1%)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과 가족기능 평가요인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들을 단순 빈도분석한 결과 37개의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도출된 가족기능 평가요인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37개의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들을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37개의 조건들은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으로 모두 유형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은 바람직한 가족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과 가족기능 평가요인

요인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
구조	부모가 있음 21(7.8%), 경제적 안정/풍요 154(56.8%), 결혼 25(9.2%), 자녀가 있음/많음 13(4.8%), 신체건강한 구성원 98(36.2%), 정신건강한 구성원 37(13.7%)
의사소통	많은 대화시간 221(81.6%), 긍정적 의사소통 154(56.8%), 스킨십 23(8.5%), 일치성(개방, 솔직) 76(28.0%)
역할	가족과제 성취와 역할수행(경제, 가사, 양육, 유대, 성, 건강) 233(86.0%), 공평한 역할 분담 69(25.5%), 부모가 모범 보이기 29(10.7), 어른 존경과 효도 11(3.3%), 자기관리 124(45.8%)
위계	민주적 의사결정 105(38.8%), 서로 협력함 95(35.1%), 거부장적이지 않음 9(3.3%),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냄 63(23.3%)
경계	가족공동행사(가족식사, 회의, 다과, 야유회, 여행, 취미, 쇼핑, 종교생활, 봉사활동, 함께하는 시간) 210(77.5%), 정서적지지 232(85.6%), 정서적 독립 113(41.7%), 개인적 성숙 51(18.8%), 가족 및 형제애정 74(27.3%), 사생활 존중 82(30.3%), 비슷한 관심과 사고 18(6.6%), 식구들에게 헌신하는 태도 (13.3%)
규칙	생활원칙이 분명함 43(15.9%), 예의를 지킴 38(14.0%), 서로 양보함 22(8.1%), 서로 약속을 잘 지킴 37(13.7%), 가족 우선 가치 27(10.0%), 공동목표를 추구함 41(15.1%), 같은 종교 48(17.7%)
생활주기	합리적 문제해결 103(38.0%), 단점개선 32(11.8%), 성장 66(24.4%)

기능적 세부요인과 역기능적 세부요인

가족문제 유형과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능적 가족 및 역기능적 가족을 평가하는 세부요인은 도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제시된 것처럼 기능적 세부요인 24개, 역기능적 세부요인 25개를 도출하였다.

표 7.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 가족을 평가하는 세부요인

요인	기능적 가족 평가 세부요인
구조	① 구조 온전성, ② 기능적 보완
의사소통	① 원활한 의사소통, ② 일치 및 긍정적 의사소통 태도
역할	① 가족과제 처리, ② 부부/부모의 유능한 역할 수행 능력, ③ 공평한 역할 분담과 수행, ④ 생산적 역할 상호작용, ⑤ 역할 보완

위계	① 원활하고 질서있는 의사결정, ② 부부/순위체계 결정권한 및 책임 형성, ③ 민주적, 효율적 의사결정 방식 형성, ④ 협력적 권력반응
경계	① 자주성/분화/자기관리와 소속영역 형성, ② 사적 영역, 기능적 공동행사 형성, ③ 의사소통/역할/위계 영역 형성, ④ 정서, 정보, 물질적 지지체계 형성
규칙	① 의사소통·역할·위계·경계차원의 기능적 상호작용 양식 형성, ② 기능적인 명시적 규칙: 가족생활 지침, ③ 초규칙 형성: 규칙 알아차림, 규칙논의, 계약, 점검, ④ 기능적인 명시적 가족 이념/덕목/가치/종교 형성
생활주기	① 발달과제 해결과 발달, ② 당면과제 해결과 항상성 유지, ③ 의사소통·역할·위계·경계·규칙 변화와 성장

요인	역기능적 가족 평가 세부요인
구조	① 구조 결손, ② 기능적 미보완
의사소통	① 의사소통 장애, ② 명시적 의사소통 부족, ③ 불일치 및 부정적 의사소통 태도
역할	① 가족과제 처리지연, ② 부부/부모의 무능한 역할수행 능력, ③ 불공평 역할 분담과 수행(편중, 회피), ④ 파괴적 역할상호작용(피해-가해), ⑤ 역할 미보완
위계	① 무질서 의사결정 지연(대립과 갈등), ② 권한 역전현상(권한침범 및 책임회피), ③ 비민주적, 비효율적 의사결정 방식 미형성(독단, 우유부단), ④ 비협력적 권력반응(동맹과 대립, 소외현상)
경계	① 미분화/자기관리 부족과 소속영역 혼란(침범, 일탈), ② 사적 영역, 기능적 공동행사 미형성(사적영역 침범, 역기능적 공동행사), ③ 의사소통/역할/위계 영역 혼란(침범, 일탈), ④ 지지부족(격리), 지나친 밀착, 역지자
규칙	① 의사소통·역할·위계·경계차원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양식, ② 역기능적인 이면적 규칙, ③ 초규칙 미형성(역기능적인 이면적 초규칙), ④ 역기능적인 암시적 가족이념
생활주기	① 발달과제 미해결(발달지연), ② 당면과제 미해결(항상성 파괴), ③ 의사소통·역할·위계·경계·규칙 변화와 성장 정체 또는 퇴행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앞에서 문헌연구를 토대로 3개의 사례개념화 요인과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48개의 가족문제 유형과 37개의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을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기능적 세부요인 24개와 역기능적 세부요인 25개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가족구조

가족구조란 ‘가족의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나 그 체계’를 의미한다.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개입’에 대한 사례개념화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조적 문제 및 증상은 부모결혼, 편부, 편모, 이혼, 별거, 재혼, 부모부양, 무자녀, 입양, 외도, 정신질환자, 신체적 병자, 사망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가족구조적 문제 및 증상의 원인은 ‘구조적 결손, 그리고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과 같은 기능적 미보완’이다. 셋째, 가족상담 개입은 구조적 온전성을 형성하는 것인데, 구조적 처치 이전에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을 기능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온전성을 형성하기 위해 ‘가계도 그리기, 정화 및 일치, 설명틀 형성, 대안 형성, 행동 형성’을 실시할 수 있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언어 및 비언어적인 상징적 수단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에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개입’에 대한 사례개념화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문제 및 증상은 의사소통 장애, 대화부족, 표현부족, 불일치 및 이중적 태도, 무시 및 불신태도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의사소통 문제 및 증상의 원인은 ‘의사소통 명시성 부족, 불일치 및 부정적 의사소통 태도’이다. 셋째, 가족상담 개입은 ‘명시적 의사소통, 일치 및 긍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의사소통 평가, 정화 및 일치, 설명틀 형성, 대안 형성, 그리고 나전달, 주장, 관심기술이기, 공감, 문제해결과 같은 명시적 의사소통 형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가족역할

가족역할이란 ‘가사, 경제, 양육, 정서유대, 건강, 성과 같은 가족과제와 관련되어 가족 구성원으로써 지속적으로 기대 또는 부여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가족역할과 관련하여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개입’에 대한 사례개념화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역할 문제 및 증상은 ‘경제문제, 실업문제, 경제적 무능력, 주거문제, 자녀교육문제, 양육 및 훈육문제, 가사문제, 건강문제, 성문제, 불임문제, 흡연문제, 음주문제, 효도 부족, 모범 보이지 못함, 역할회피, 무책임함, 능력부족, 자기관리 부족’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가족역할 문제 및 증상의 원인은 ‘부부/부모의 무능한 역할수행 능력, 불공평 역할 분담과 수행(편중, 회피), 파괴적 역할상호작용(피해-가해), 역할 미보완’이다. 셋째, 가족상담 개입은 ‘가족이 당면한 과제 처리하고, 부부/부

모의 역할수행 능력을 형성 및 강화하며, 공평한 역할 분담과 수행을 촉진하고, 파괴적 역할상호작용을 제거하며, 역할 보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가족과제 및 역할분석, 정화 및 일치, 설명틀 형성, 대안 형성, 바람직한 역할행동 형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가족위계

가족위계란 ‘가족 구성원 또는 하위체계간의 의사결정 및 지배권한의 위치 서열’을 의미한다. 가족위계와 관련하여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개입’에 대한 사례개념화 모형을 정리하면 같다. 첫째, 가족위계 문제 및 증상은 ‘의사결정 지연과 무질서, 부모의 방임적 태도, 권위적 태도, 가부장적 태도, 신체 및 언어폭력, 동맹과 소외, 말다툼, 비난, 싸움, 경쟁, 갈등, 관계갈등, 부부갈등, 고부갈등, 무시, 버릇없음’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가족위계 문제 및 증상의 원인은 ‘권한 역전(권한침범 및 책임회피), 비민주적, 비효율적 의사결정 방식, 비협력적 권력반응(동맹과 대립, 소외현상)’이다. 셋째, 가족상담 개입은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것, 부부/손위체계의 결정권한 및 책임을 형성 및 강화하는 것, 민주적, 효율적 의사결정 방식을 형성 및 강화하는 것, 협력적 권력반응 형성 및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가족위계분석, 정화 및 일치, 설명틀 형성, 대안 형성, 행동 형성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가족경계

가족경계란 ‘정체성을 가지고 수반된 역할행동을 하는 범주의 한계선’을 의미한다. 가족경계와 관련하여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개입’에 대한 사례개념화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경계 문제 및 증상은 ‘가족공동행사 부족, 여가활동 부족, 정서유대 및 지지 부족, 책임회피, 과잉보호, 간섭, 통제, 억압, 강요, 개인 미성숙’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가족경계 문제 및 증상의 원인은 ‘미분화 또는 자기관리 부족과 소속영역 혼란(침범, 일탈), 사적 영역, 기능적 공동행사 미형성(사적영역 침범, 역기능적 공동행사), 의사소통/역할/위계영역 혼란(침범, 일탈), 지지부족(격리), 지나친 밀착, 역지사지’이다. 셋째, 가족상담 개입은 ‘개인의 자주성, 분화, 자기관리와 소속영역을 형성 및 강화하는 것, 사적 영역과 기능적 공동행사를 형성 및 강화하는 것, 의사소통, 역할, 위계차원의 영역을 형성 및 강화하는 것, 영역간 정서, 정보, 물질적 지지체제를 형성 및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가족경계 분석, 정화 및 일치, 설명틀 형성, 대안 형성, 행동 형성 전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가족규칙

가족규칙이란 ‘가족체계를 유지(항상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 및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명시 또는 암시적 원칙이나 계약’을 의미한다. 가족규칙과 관련하여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개입’에 대한 사례개념화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규칙 문제 및 증상은 ‘원칙부족, 버릇없음, 양보부족, 간섭, 통제, 억압, 강요, 종교문제(부모종교 강요, 형식적 생활)’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가족규칙 문제 및 증상의 원인은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차원의 역기능적 이면적 상호작용 규칙, 초규칙 미형성(역기능적 이면적 초규칙), 역기능적인 가족이념’이다. 셋째, 가족상담 개입은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차원의 기능적 상호작용 양식을 형성하는 것, 기능적 명시적 가족생활 지침을 구성하는 것, 명시적 초규칙을 형성 및 강화하는 것, 기능적 명시적 가족이념, 덕목, 가치, 종교를 형성 및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가족규칙분석, 정화 및 일치, 설명틀 형성, 대안 형성, 행동 형성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활주기란 ‘시간경과에 따라 가족이 경험하는 예측 가능한 사건과 반응 추이’를 의미한다. 가족생활주기와 관련하여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개입’에 대한 사례개념화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주기 문제 및 증상은 ‘발달과제 및 당면과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생활주기 문제 및 증상의 원인은 ‘발달과제 미해결(발달지연), 당면과제 미해결(항상성 파괴),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 변화와 성장 정체 또는 퇴행’이다. 셋째, 가족상담 개입은 ‘발달과제 해결과 발달을 촉진하는 것, 당면과제 해결과 항상성 유지를 촉진하는 것,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차원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가족생활주기 및 발달과제 분석, 정화 및 일치, 설명틀 형성, 대안 형성, 행동 형성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8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과 같다.

표 8.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구분	내용
구조	문제 부모결혼, 편부, 편모, 이혼, 별거, 재혼, 부모부양, 무자녀, 입양, 외도, 정신질환자, 신체적 병자, 사망
	원인 구조적 결혼, 그리고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과 같은 기능적 미보완
	개입 구조적 온전성 형성
의사소통	문제 의사소통 장애, 대화부족, 표현부족, 불일치 및 이중적 태도, 무시 및 불신 태도
	원인 의사소통 명시성 부족, 불일치 및 부정적 의사소통 태도
	개입 명시적 의사소통, 일치 및 긍정적 의사소통 태도 형성
역할	문제 경제문제, 실업문제, 경제적 무능력, 주거문제, 자녀교육문제, 양육 및 훈육문제, 가사문제, 건강문제, 성문제, 불임문제, 흡연문제, 음주문제, 효도 부족, 모범 보이지 못함, 역할회피, 무책임함, 능력부족, 자기관리 부족
	원인 부부/부모의 무능한 역할수행 능력, 불공평 역할 분담과 수행(편중, 회피), 파괴적 역할상호작용(피해-가해), 역할 미보완
	개입 가족의 당면과제 처리, 부부/부모의 역할수행 능력 형성 및 강화, 공평한 역할분담과 수행 촉진, 파괴적 역할상호작용 제거, 역할 보완 강화
기능	문제 의사결정 지연과 무질서, 부모의 방임적 태도, 권위적 태도, 가부장적 태도, 신체·언어폭력, 동맹과 소외, 말다툼, 비난, 싸움, 경쟁, 갈등, 관계갈등, 부부갈등, 고부갈등, 무시, 버릇없음
	원인 권한 역전(권한침범 및 책임회피), 비민주적, 비효율적 의사결정 방식, 비협력적 권력반응(동맹과 대립, 소외현상)
	개입 의사결정 촉진, 부부/손위체계 결정권한 및 책임 형성 및 강화, 민주적·효율적 의사결정 방식 형성 및 강화, 협력적 권력반응 형성 및 강화
경계	문제 가족공동행사 부족, 여가활동 부족, 정서유대 및 지지 부족, 책임회피, 과잉보호, 간섭, 통제, 억압, 강요, 개인 미성숙
	원인 미분화 또는 자기관리 부족과 소속영역 혼란(침범, 일탈), 사적 영역, 기능적 공동행사 미형성(사적영역 침범, 역기능적 공동행사), 의사소통/역할/위계 영역 혼란(침범, 일탈), 지지부족(격리), 지나친 밀착, 역지지가
	개입 개인의 자기관리(자주성, 분화) 형성, 소속영역 형성 및 강화, 사적 영역과 기능적 공동행사 형성 및 강화, 의사소통·역할·위계차원의 영역 형성 및 강화, 영역간 정서·정보·물질적 지지체계 형성 및 강화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

구 분	내 용
기능 규칙	문제 원칙부족, 버릇없음, 양보부족, 간섭, 통제, 억압, 강요, 종교문제(부모종교 강요, 형식적 생활)
	원인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차원의 역기능적 이면적 상호작용 규칙, 초규칙 미형성(역기능적 이면적 초규칙), 역기능적인 가족이념
	개입 의사소통·역할·위계·경계차원의 기능적 상호작용 양식 형성, 기능적 명시적 가족생활 지침 구성, 명시적 초규칙 형성 및 강화, 기능적 명시적 가족이념·덕목·가치·종교 형성 및 강화
발 달 (생활주기)	문제 발달과제 및 당면과제의 형태
	원인 발달과제 미해결(발달지연), 당면과제 미해결(항상성 파괴),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 변화와 성장 정체 또는 퇴행
	개입 발달과제 해결과 발달 촉진, 당면과제 해결과 항상성 유지 촉진, 의사소통·역할·위계·경계·규칙차원의 변화와 성장 촉진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내용타당도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상담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2인에게 연구보고서와 표 8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그리고 내용타당도 평가지를 제출하고, 전체 및 하위요인별로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2-다소 부적절하다, 3-보통이다, 4-다소 적절하다, 5-매우 적절하다)로 평정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가 2인 모두,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전체와 세부항목에 대한 점수 평균이 모두 4.5 이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결과

구 분	전체 평가	세 부 항 목 평 가							평균
		가족 구조	의사 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	생활 주기	
전문가 A	5	5	5	5	5	5	5	5	5
전문가 B	4	5	5	5	4	4	4	5	4.6
평 균	4.5	5	5	5	4.5	4.5	4.5	5	4.7

연구 2 :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Workshop이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본 소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구성된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이 상담자들의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방법

연구는 제주지역 상담자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표 10. 연구 대상자

구 분	성 별	나 이	결 혼 여 부	
빈 도 (%)	남	4(19.0%)	20-29세 1(4.8%)	미혼 6(28.6%)
	여	17(80.0%)	30-35세 6(28.6%)	기혼 15(71.4%)
			36-39세 9(42.9%)	
			40-45세 3(14.3%)	
			46-50세 2(9.5%)	
합 계	21(100.0%)	21(100.0%)	21(100.0%)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Workshop의 내용은 “1회기 오리엔테이션 및 가족구조, 2회기 가족의사소통 및 역할, 3회기 가족위계 및 경계, 4회기 가족규칙 및 생활주기, 5회기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평가 및 마무리”로 구성하였다. Workshop은 하루 주1회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상담사례개념화 능력자가평가 검사지(이명우, 2003)를 사용하여 Workshop을 실시하기 직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Workshop이 끝난 직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가 끝난 2주후에 다시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은 단일집단 실험설계로 실시하였고, 자료처리는 측정시기를 변인으로 하는 일원반복측정을 하였다. 분산분석 결과가 유의하여 Tukey-HSD 사후검증 절차를 적용하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Win 10.0으로 처리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결 과

상담자들에게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Workshop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 그리고 추후의 측정시기별 수집자료에 대해 일원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일원반복식 변량분석표

변 량 원	제 곱합	자 유도	평 균 제 곱	F	유 의 확 률
집단내(시기)	691.270	2	345.635	56.492	.000
집단내	3033.809	60			
피험자간	2789.079	20	139.454		
오차	244.730	40	6.118		
전체	3725.079	62			

표 11에 나타난 것처럼 실험집단에서 검사시기 간에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60) = 56.492, p < .05$). 검사시기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HSD 절차를 적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효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검사시기에 따른 사후 개별비교 결과

검 사 시 기	사 전	사 후	추 후
사전 = 32.71	-	6.9*	7.14*
사후 = 39.61		-	0.24
추후 = 39.85			-

HSD=1.85 * $p < .05$

표 12에 나타난 것처럼 실험집단에서 사전검사($M=32.71$)와 사후검사($M=39.61$)간 차이(6.9)와 사전검사($M=32.71$)와 추후검사($M=39.85$)간 차이(7.14)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사($M=39.61$)와 추후검사($M=39.85$)간 차이(0.24)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은 사전 득점에 비해 사후득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증가된 득점은 2 주 후에 실시한 추후검사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이 상담자들의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및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구

성’과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Workshop이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의 2개 소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구성은 ‘사례개념화 요인과 가족기능 평가 요인 도출, 가족문제 유형 및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에 대한 조사, 가족의 기능적 세부요인과 역기능적 세부요인 도출,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구성과 내용타당도 검증’의 3개 소연구로 다시 세분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및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개념화 요인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한 결과,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개입’의 3개 사례개념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박태수와 고기홍(2003)이 제시한 ‘내담자의 문제 및 증상, 원인 또는 관련요인, 상담개입 방향과 방법’의 3개 요인과 거의 일치하고, 이명우(2003)가 제시한 “주호소 문제, 관련 정보 탐색, 상담자 관점, 상담전략”의 4개 요인이나 이윤주(2001)가 제시한 “내담자 현재 문제 및 관련증상,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개인적 요소, 문제관련 내담자의 외적요인,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내담자의 자원 및 취약성,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상담목표 및 계획”의 8개 요인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6개 가족기능 평가모형의 공통요인을 분석하여 ‘가족 구조,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 생활주기’의 7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7개인 요인은 고기홍과 정성란(2004)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도출된 7개의 요인은 기존 가족기능 평가 모형의 공통요인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가족문제를 평가하여 사례개념화 하는 기본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현장에서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문제를 설명하는 개념틀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주지역 대학생 및 상담교육 수강생 271명을 대상으로 ‘가족문제와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48개의 가족문제 유형과 37개의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에 대한 표집문제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가족들이 겪는 문제 또는 바람직한 가족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출된 가족문제 유형과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들은 앞에서 도출된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는데, 이는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이 가족의 문제 상태나 바람직한 상태를 개념화하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은 가족문제를 설명하는 개념틀로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추가분석을 통해 가족의 기능적 세부요인 24개와 역기능적 세부요인 25개를 도출함으로써 사례개념화 모형을 구성하는 추가

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셋째, '3개의 사례개념화 요인, 7개의 가족기능 평가요인, 48개의 가족문제 유형, 37개의 바람직한 가족의 조건, 24개의 기능적 세부요인, 25개의 역기능적 세부요인'을 종합하여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을 구성하였다. 즉 '가족구조,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 가족 생활주기'의 7개 요인별로 '문제 및 증상, 원인, 상담개입'의 형태로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어 구성된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담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상담전문가 2인에게 내용검토를 의뢰한 결과, 2인 모두에게 전체 및 세부항목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의 점수 평균이 모두 4.5 이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은 내용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타당도는 전문가 검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세밀한 검증이 요청된다.

구성된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Workshop이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은 제주 지역 상담자 21명을 대상으로 주1회 3시간씩 총 5회의 Workshop을 실시하였고,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자가평가 검사지(이명우, 2003)를 사용하여 사전과 사후, 그리고 추후검사를 실시한 후, 자료를 일원반복측정 ANOV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검사시기 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어 검사시기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HSD 절차를 적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전과 사후검사 간 차이, 그리고 사전과 추후검사 간 차이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사후와 추후검사 간 차이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은 사전특점에 비해 사후특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증가된 특점은 2주 후에 실시한 추후검사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이 상담자들의 상담사례개념화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된 실험연구는 Workshop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례개념화 모델의 타당성 또는 실제적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전문가의 평가나 실제 가족 문제에 적용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고기홍, 정성란 (2004).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제주상담학회 창립 3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7-27.

공수자 (1990). 청소년 정신질환자 가족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김갑숙, 최외선 (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0(2), 133-143.

김동연 (2003). 가족기능이 초등학교 학생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만두(1997). 한국가족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적 대응책. 한국 사회복지지, 3, 5-30.

김미자 (2001). 정신지체아·일반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수준.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남, 김애리 (2003). 한국가족의 기능성 평정 모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4, 845-865.

김수연 (1998). 가족사정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순환모델척도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 가족평가 핸드북. 서울: 학지사.

김정화 (2002). 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중독 경향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형준, 정광은, 권혁중, 강희철, 윤방부 (2000).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족기능 평가. 대한가정의학회지, 21, 645-655.

김혜숙 (2003).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학지사.

김혜영, 김영희 (2002).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생활과학연구논총, 6, 125-141. 충북대학교 교육·생활연구소.

김혜영 (2003). 가족기능과 대인관계 및 청소년의 부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수정 (1999).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은정, 홍창희, 이민영 (200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갈등과 가족기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121-132.

박선영, 도현심 (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 229-234.

박연환, 현혜진 (2000). 암환자 가족원의 부담감과 가족기능. 성인간호학회지, 12, 384-395.

박태수, 고기홍 (2003). 개인상담의 실제. 서울: 학지사.

방기연 (2002). 상담 수퍼바이저 교육에 대한 고찰. 연세 교육연구, 15(1), 119-131.

방희정, 조아미 (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6, 1-22.

서덕례 (2000). 가족기능 증진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 프로그램 개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 (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명용 (1997). 청소년 가출 및 가족 기능과 가족 체계 유형과의 상호관계.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 133-177.
- 왕은자 (2001). 소집단 수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2002).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연구. 최재석정년퇴임기념논문집, 64-89.
- 이나연, 김유숙 (1995). 약물남용 청소년의 가족기능성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155-167.
- 이명우 (2004). 상담사례개념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환, 임종국, 윤도경, 최운선, 조경환, 홍명호, 장정애, 박종석 (2002). 두통과 우울성향 및 가족기능과의 관계 - 서울 모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학회지, 23, 496-509.
- 이선옥 (2002). 고등학생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과 가족기능도 지수, 불안도와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1988).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과 정상가족의 가족기능 비교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21,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 학대학.
- 이윤주 (2001).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수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3(1), 79-93.
- 이인숙 (2002). 한국형 가족기능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 만성질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 395-405.
- 이정숙 (1993). 현대가족의 변화와 가족생활주기에서 본 한국 가족문제.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14, 172-187.
- 임지향 (2001). 정신신체아 부모가 지각한 가족기능과 일상 스트레스 대처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진숙, 박영주, 조태민, 강희철, 정의식 (1994). 가족 기능도 지수와 우울, 불안점수, 피로도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15, 411-418.
- 정성란 (2004). 가족기능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제작. 학생생활연구, 25, 83-122.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 정수경 (2000). 문제유지통합모형을 적용한 가족치료 사례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9, 153-175.
- 정순복, 김수진 (2001). 일 도시 중학생의 가족기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 352-367.
- 최규연 (1997). 농촌 가족문제와 대책에 관한 고찰. 지역사회개발, 9, 277-296. 수원대학교.
- 최정혜 (1993). 현대 가족문제의 양상에 관한 사례 연구. 논문집, 37, 281-305. 진주교육대학교.
- 홍인숙 (2002). 가족기능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l, S., Bourdeaudhuij, L., Crombez, G., & Oost, P. V. (2004). Differences in trauma symptoms and family functioning in intra- and extrafamilial sexually abused adolesc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108.
- Bonne, O., Lahat, S., Kfir, R., & Berry, E. (2003). Parent-daughter discrepancies in perception of family function in bulimia nervosa. *Psychiatry, 66*, 244-254.
- Bray, J. H. (1995). Family assessment: Current issues in evaluating families. *Family Relations, 44*, 469-477.
- Gowers, S. G., Jones, J. C., Kiana, S., North, C. D., & Price, D. A. (1995). Family functioning: A correlate of diabetic contro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6*, 993.
- Miller, Jean R., Ellen H. Janosik (1980). *Family-Focused Care*. New York: McGraw-Hillbook comp.
- Petrocelli, J. V., Calhoun, G. B., & Glaser, B. A. (2003). The role of general family functioning in the quality of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of female African American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9*, 378.
- Roberts, C. S., Suzanne L. Feetham (1982).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Across Three areas of relationship. *Nursing Research, 31(4)*, 231-235.
- Shek, D. T. L. (2002).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Economic Disadvantag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3*, 497-502.
- Skinner, H., Steinhauer, P., & Sitarenios, G. (2000). Family Assessment Measure (FAM) and Process Model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190-210.

원 고 접 수 일 : 2005. 4.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6.
 게재 결정 일 : 2005. 7. 14.

The Development of The Case Conceptualization Model for Family Problem

Kee-Hong Ko
Jeju Counseling Center for You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of the case conceptualization model for family problem. To achieve this purpose extracted a sub-factors of case conceptualization and family functioning assesment. The sub-factors of case conceptualization were 'problem and symptoms, cause, counseling intervention'. And the sub-factors of family functioning assesment were 'family structure, communication, role, hierarchy, boundary, rule, family life cycle'.

In addition, conducted a research to family problem and conditions of health family.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271 university students and a trainee of counseling education. In results extracted 48 styles of family problems and 37 conditions of health family. Through these procedure concluded 7 sub-factors of family functioning.

These results with as the central figure developed the case conceptualization model for family problem. The subjects of the case conceptualization workshop were 21 counselors living in Jeju island. Repeated measures ANOVA were conducted total scores of the case conceptualization capability as single-group. And when it revealed interaction effects, inter-temporal(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test) individual comparison was made using Tukey's HSD. The program used for data analysis was SPSS for Window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for hypothesis testing was set at .05.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discussion, we conclude that:

The case conceptualization workshop for family problem increases case conceptualization capability of counselors.

Key word : family problem, family function, case conceptualization

자녀양육 협의를 위한 이혼중재 서비스 고찰

전 명 희*

University of Maryland

이혼 과정 중 양육문제의 협의는 단지 누가 키울 것인지의 문제 뿐 아니라 이혼 후 부모가 어떻게 부모역할을 공동으로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양육계획이 포함되며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기 위한 과정이다. 날로 급증하는 이혼율의 증가와 국내 이혼의 80% 이상이 협의이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혼과정에서 자녀양육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는 매우 미비한 상태에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제도의 개혁 및 변화를 활발히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자녀의 최대복지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이혼과정에서의 자녀양육의 기본관점과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20 여 년 간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여온 미국의 이혼중재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현재 미국의 경우 39개 주에서 이혼중재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어 있으며 이혼중재서비스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이혼중재 서비스를 개괄하고, 중재의 특징 및 효과성을 검토하였고, 대상에 따른 다양한 중재모델에 대해 개괄하였다. 이혼중재서비스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위해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함의로는 자녀양육 협의를 위한 이혼중재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혼제도의 개혁에서 자녀양육 협의를 위한 중재서비스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이혼자들의 갈등 영역 및 성격 규명을 위한 선행연구의 필요성과 이혼 후 양육분담에 관한 한국적 가치정립 및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 적절한 협의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자녀양육 협의과정에서의 전문적 개입은 이혼부모가 부모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이혼 후 자녀복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수행할 중재전문 인력의 양성 및 훈련 또한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혼중재의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중재서비스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함에 의의를 두었다.

주요어 : 이혼과정, 이혼가족의 자녀, 이혼중재, 자녀의 최대복지관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였다. 통계청(2004) 자료에 의하면 2003년 한

해 동안의 이혼건수는 167,094 건으로, 하루 450건 이상 씩 이혼하였다. 실제적으로 이혼은 단지 가정이 해체됨으로서 일어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37-P000417).

* 교신저자 : 전 명 희, 3015 Nicosh Circle #2210, Falls Church, VA 22042, U.S.A.

메일주소 : mjun001@umaryland.edu

나는 도의적 문제 뿐 아니라,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부과되며¹⁾, 이혼 후 빈곤선 아래로 추락되는 한 부모 가정이 양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이후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건수 10건 중 7건 정도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하고 있으며, 2002년 통계에서 협의이혼율은 전체 이혼의 83.9%로 대부분 협의이혼을 하고 있다²⁾.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혼하면서 협의되어야 할 여러 영역 중 자녀양육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돕는 제반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혼 과정 중 단지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라는 문제 뿐 아니라 이혼 후 부모가 어떻게 부모역할을 공동으로 분담할 것인지 구체적인 양육계획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전문적 개입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혼부모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의를 하는 상담내용은 과연 이혼 후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만남 및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이었다(박한샘, 전명희, 2003).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장 피해자가 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대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최근 20여 년 동안 가장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실천방안이 이혼중재 서비스(divorce or family mediation service)이다. 이혼중재는 이혼 시 당사자간 협의되지 않은 영역을 제3자인 중재자의 중재 하에 이혼할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협의하고 결정하는 합리적인 과정으로 미국 39개주에서 중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조정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기는 하나 전문중재자에 의한 중재서비스는 소개된 바가 없으며, 이혼중재에 대한 소개 및 연구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에 이혼중재가 처음 소개된 문헌은 신성자(2000)의 연구로 이혼중재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들을 포함한 문헌연구를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하면서 학제간 팀 중재 모델을 통한 중재개입 사례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중재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도깊은 논의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 이혼중재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기초연구로서, 서구의 이혼과정에서의 자녀양육의 기본 관점과 동향을 살펴보고, 이혼 중재서비스에 관한 문헌연구 및 실제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미국내 중재 서비스를 개괄하고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합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헌 연구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적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한국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들을 제안하기 위한 개발 및 효과성 연구의 노력이 후속연구에 남겨진 몫이라 하겠다.

미국의 이혼제도에 있어서 자녀양육의 동향 및 강조점

자녀의 최대복리 관점 고수

미국에서는 1925년 Benjamin Cardozo 판사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로, 오늘날 이혼 후 양육권 결정에서 이 개념은 가장 핵심적 법적 가치로 사용되어지고 있다(Baris et al., 2001). 20세기 초에만 해도 미국 역시 양육권 결정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와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주마다 사례마다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 심리학 및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강조되어서 모자녀의 유대관계에 초점을 두고 어린 자녀일수록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와서 무책이혼(no-fault divorce)이 법제화되어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양육권 및 양육형태에 변화를 가져왔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양육형태로는 공동양육(Joint custody)을 하는 것이다. 즉, 공동양육은 원칙적으로 비록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할 책임이 공동에 있으며, 자녀 또한 양쪽 부모 모두와 지속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결정임을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용어는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자녀의 적응과 성장을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Kelly(1999)는 “자녀복리의 최우선”의 관점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연속성(continuity)의 개념으로 이혼 전과 이혼 후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면 방해받거나 단절되지 않는 연속성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둘째는 안정성(stability)의 개념으로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

1) 최근 발표된 미국 Blanchflower와 영국의 Oswald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하지 않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보면 원만한 결혼생활 1년의 금전적 가치는 약 10만 달러(1억 1,5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이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매년 10만 달러를 손해 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동아일보, 2004. 7. 12). Emery(2003)의 연구에서도 이혼한 두가구의 경제규모는 이혼하기 전 한가구의 경제규모의 1.5배가 되므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일어나는 일이라 강조하고 있다.
2)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협의이혼율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70%대였으나, 1998년 IMF 이후 이혼부터 83.6%를 기록하여, 1999년에는 83.8%, 2000년 83.5%, 2001년 82.7%, 그리고 2002년에 83.9%로 역대로 가장 높은 협의이혼율을 기록하였다.

감을 갖는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이혼 전에 자녀가 누리던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능하면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혼 후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여 변화된 생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로는 부모의 개입(parental involvement)으로서 실제로 자녀의 생활에 개입을 더 많이 해왔던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개념 간의 가치상충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양쪽 부모와의 연속적 관계와 애착을 중요시 여긴다면 이혼 후 당분간은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지게 됨으로 안정된 생활패턴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즉, 자녀복리의 최우선 관점도 자녀의 이익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 법집행자들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모순이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복리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서구사회에는 뒷받침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가 공동적으로 지지하고 강조하는 합의점 중의 하나가 부모와의 만남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한 이혼 후 자녀가 양쪽 부모와 모두 관계를 맺고,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법원 중심의 이혼부모 지원 서비스의 증가

미국의 이혼 경향은 1970년대 이후에 무책이혼(no-fault divorce)을 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어떤 이유에서라도 쌍방이 합의할 경우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책이혼의 증가와 함께 그 동안 이혼은 법적 체계에서 소송과 재판을 통해 이혼판결을 내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거나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이 점차로 어렵게 되면서 이혼 후 양육권 결정을 위해 어떠한 절차와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최근 10여 년 동안의 뚜렷한 경향은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즉, 아동의 최대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점을 고수하기 위해 양육 평가자(custody evaluator),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그리고 법원의 아동변호사 등이 양육권 결정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문제 조정과 자녀의 이혼 후 적응을 돕는 상담 및 교육이 시작되었다. 각 주의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양육 가이드라인(child support guideline)을 제정하여 이혼 과정에서 자녀양육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재판보다는 중재 서비스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혼 후에도 책임감 있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돕기 위해 이혼부모교육을 대부

분의 주에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혼 후 자녀의 안정된 생활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한 규제제도를 두고 있다. 각 주의 자녀양육 가이드라인에는 양육비 산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양육비 강제징수 체계(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를 도입하여서 각 주마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 임금의 징수, 체납처분, 강제수금, 구금이나 벌금 등의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Arbuthnot(2000)의 165 카운티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법원에서 제공하거나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녀양육관련 서비스들은 양육평가, 부모교육, 자녀교육, 이혼중재 등 표 1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1. 이혼 후 자녀를 위해 법원에서 가입하고 있는 서비스 목록

시행되는 서비스
양육평가(Custody Evaluation)
부모를 위한 이혼부모교육(Divorce Education for parents)
자녀를 위한 이혼교육(Divorce Education for children)
이혼중재(Mediation)
개별 상담(Individual Counseling)
가족상담(Family Counseling)
Guardians ad litem
보호감독 방문(Supervised Visitation)
양육합의를 위한 회의(Settlement Conference)
가족 서비스 전문가(Family Service Specialist)

* 자료 : Arbuthnot, J.(2000).

이혼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 모색

최근 5년간의 새로운 흐름은 가정법원이 개방되어지는 경향을 가짐으로 이혼가족이 지니는 복합적 욕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팀으로 접근하는 통합적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2004년에는 Wingspread Conference에서 학제간 협력(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방안을 구축하는 모델이 논의되었고(Homerich et al., 2004), 이러한 영향으로 이혼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센터가 주 가정법원에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양육조정 전문가 등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전문가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0여 년간 공정한 이혼을 위한 방안과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치를 이혼관련 제도의 기본가치로 내세우며 그 전략들이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와서는 이 과정 속에서도 공동양육과 의무적으로 비양육부모를 만나도록 하는 방문일정(visitation)에 대한 부정적 결과 및 견해가 학계의 연구주제

로 등장했으며, 특히 비양육부모의 방문을 거부하는 아동이나 갈등이 심각하여 이혼 후 갈등이 심한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대안들이 보고되고 있다³⁾. 점차적으로 법원이 개방되고, 전통적 의미에서 벗어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가족들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정서적 욕구들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양육협의를 위한 이혼중재 서비스

이혼중재(Divorce Mediation)

이혼 중재 서비스 개괄

중재(mediation) 혹은 갈등관리(Conflict Resolution)란 보통 갈등이 있는 곳에 보다 효과적으로 갈등을 다루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 무역, 국제관계, 민사사건 및 가정에서의 갈등 모두에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해결방법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중재자(mediator)의 역할이란 “제 3자(third party)의 입장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양편과 함께 문제를 규명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가장 효과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일”이다(Tondo & Drucker, 2001). 그러므로 중재자는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돕기 위한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Folberg와 Taylor(1984)의 정의에 의하면 중재란 각 당사자가, 제 3의 중립적인 사람의 도움으로, 대안을 탐색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과업 중심적이고(task-oriented), 시간 제한적(time-limited)이며, 대안적 갈등해결 과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이라 하였다. 특히 이혼과 양육권 분쟁영역에 중재방법이 적용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며, 1970년대에 와서 무책이혼(no-fault based) 체계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Beck & Sales, 2001). 유책주의(fault based)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의 붕괴에 대한 책임성에 입각하여 위자료, 자녀양육, 재산분할의 문제를 법원에서 결정하기가 쉬웠으나, 이제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서로 아무런 잘못이 없이도 이혼할 수 있게 되자 이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각 당사자간에 공정하게 결정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Brown, 1982).

변호사이자, 미국 조정재판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회장이었던 Coulson은 1969년에 이혼과정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적 갈등해결 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echniques)을 사용하기를 시작하였고, 변호사, 사회사업가, 가족치료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혼 사례를 다룰 때에 갈등관리 전략을 사용하도록 격려했다(Beck & Sales, 2001). 그 후 70년대에 와서 변호사이자 가족상담자였던 Coogler(1978)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혼 중재 센터(Family Mediation Center in Atlanta, Georgia)를 설립하였다. Coogler의 중재모델은 구조적 중재모델(Structured Mediation Model)로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재방법이다. 그 후 법률전문가들이 중재 분야에 기여를 하였고 이혼 중재에 대한 글들을 남겼다. 1974년 가족 상담사이자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수인 Irving은 이혼과정에서 화해조정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치료적 중재모델(Therapeutic media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재(mediation)란 용어는 법원에서의 화해조정이 상담과는 다르다는 점을 착안하여 Folberg가 80년대에 와서 처음 사용하였고, 메사추세츠와 코네티컷 주에서 처음으로 몇몇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 중재서비스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1991년에 201개의 법원 관련 이혼중재 프로그램이 존재하였으나 1997년에는 2,0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혼중재 서비스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Tondo와 Drucker의 연구(2001)에서는 미국 전체 51개 주 중 39개 주에서 중재서비스와 관련된 법안 또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재서비스에 대해 언급이 없는 12주를 제외하고, 이혼 중재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39주의 법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이혼 과정시 중재에의 참여는 법원의 의무시행보다는 자유재량의 권고형이 더 많으며,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 이상의 주에서 중재서비스를 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4주가 있었다.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도 이혼 중재전문가(mediator)의 자격은 자격증(License)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31개 주에서는 자격규정에 대한 법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대체로 법원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이혼중재자(certified mediator)가 되기 위해서는 80~120시간 정도의 훈련과 공동중재(co-mediation)를 이용한 사례연습을 통해 자격인정을 해주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중재서비스에 의뢰를 한 후

3) 최근의 이혼가족 자녀관련 연구논문들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의무적 방문(mandatory visitation), 그리고 자녀의 방문거부 및 상대방 부모에 대해 적대감을 나타내는 부모 소외화 현상(Parent alienation syndrome), 그리고 두 집 생활을 위해 2~3일 주기로 잠자리를 바꾸며 살아야 하는 자녀의 벽찬 생활 스케줄에 대한 회의,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논의들이 다루어지고 있다(Kelly & Johnston, 2001; Stoltz & Ney, 2002; Stolberg 등, 2002). 그러나 이는 기존의 정책과 서비스의 일부 부작용으로 이해될 뿐 전체적인 흐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할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재실패를 알림으로 당사자간 재판준비를 하도록 되는 경우가 24주, 가정법원에서 심의 혹은 조사관이 이혼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가 6주, 언급이 없는 주가 6주가 되었다. 이혼 중재전문가와 중재서비스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로 간에 이혼과 관련하여 합의된 중재내용에 대해서는 작성된 합의서(understanding of memorandum)를 중재자가 법원 혹은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중재서비스가 마무리 된다.

표 2. 미국의 이혼중재서비스에 관한 법규정 정리 N=39개주

항 목	내 용	주(state)
서비스 참여	자유재량	25
	의무적	14
예외규정	가정폭력의 경우	23
	이유가 있는 경우	4
	법원재량	3
서비스이용금액	언급 없음	9
	이용자	24
	정부(빈곤자 저비용 혹은 무료)	4
전문가 자격규정	다양함	2
	있음	31
	언급 없음	8
비밀보장 규정	있음	33
	의무규정 아님	1
	언급 없음	5
중재가 실패할 경우	재판준비/법원에 보고 및 의뢰	24
	가정법원 심의 혹은 조사	6
	언급 없음	6

* Tondo와 Drucker(2001)의 연구를 재정리한 것임

이혼중재의 특징 및 효과성

중재 서비스가 서구에서 광범위하게 확장된 이유는 중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이다. 먼저 이혼중재가 법적 절차인 소송(litigation)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상당히 다른데, 이혼소송의 경우는 소송당사자인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이 지는 이른 바 경쟁체제(Win-Lose)로 설정되어 있으나, 중재는 중재자가 제 3자로서 각자의 욕구에 기초하여 상호적으로 가장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상호이득 체제(Win-Win)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의 특징은 법률체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법원에서는 정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다루기 힘들었던 이혼사태들에 중재개입을 권고함으로써 그 짐을 덜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많은 중재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전문가 혹은 가족치료 및 상담의 경험이 있는 임상가들이다. 그러므로 법정에서는 다루어지기 어려운 정신건강 문제, 가족간 갈등,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등이 중재과정에서는 좀 더 손쉽게 다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자녀양육비 지급,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적응, 그리고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각 부모에게 문제해결 기술을 알려주는 등의 효과들이 중재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Benjamin & Irving, 1995). 또한,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재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교환 끝에 각 부부 당사자가 자기 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Brown, 1982; Cobb, 1993; Kranitz & Spiegel, 2003). 특히 양육문제를 둘러싼 중재의 경우에는 부모들에게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제 3자인 중재자의 개입으로 자녀의 최대복리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우며, 양육 문제로 인해 재판을 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이혼 후 자녀양육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재 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은 미국에서도 9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체적으로 이혼과정에서 중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살펴본 여러 연구결과들이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만족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Jones & Bodker, 1998; Kressel & Pruitt, 1989). 중재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추후 조사에서도 자녀양육문제에 대해 갈등을 덜 일으키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서 Emery교수진의 연구(2001)에서는 중재서비스의 효과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버지니아 주에서 법원 의무시행에 의해 중재서비스 수혜자와 재판이혼을 한 자들 간에 12년간의 장기추적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중재 서비스를 받은 가족들이 이혼 후 부부간 갈등이 훨씬 적었으며, 자녀양육비를 체불하는 경우가 더 적었다고 한다. 또한 재판을 한 경우보다 중재를 한 경우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이때에 중재서비스의 성격은 공동중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적 중재모델로서 3주~7주간의 단기접근이었다.

이혼중재 실천 모델

이혼중재 모델은 지난 30여 년간 하나의 모델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모델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하나는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 전략의 배경으로부터 출발한 문제해결방식(problem-solving), 단기접근, 구조화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재모델이며, 다른 하나의 흐름은 치료적 방법(therapeutic method)을 도입하는 것으로 중재를 받으러오는 양편의 심리적 특성도 포함하여 다루며,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장기적이며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Taylor, 2002). 이를 아울러서 전자의 모델들을 구조화된 접근(structural in orientation), 후자를 치료적 접근(therapeutic in orientation)이

라 지칭하기도 한다(Beck & Sales, 2001). 단기적 접근의 중재 모델이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 의미의 중재서비스이며, 이는 갈등해결 모델과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다. 한편 장기적이고 심도 깊은 접근의 모델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단기 과업 중심적 중재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갈등을 지닌 가족과 양육권 분쟁이 지속될 확률이 높은 가족들을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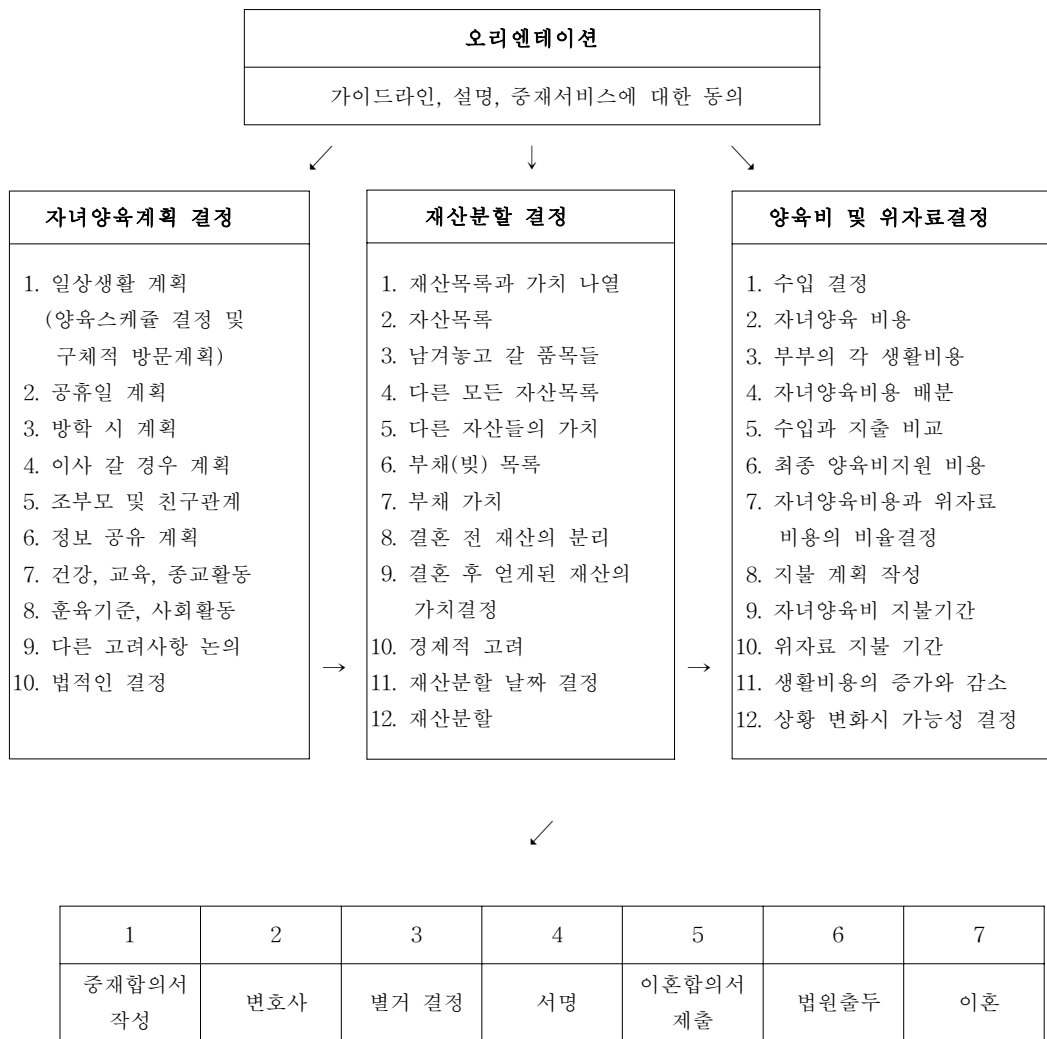
중재모델에 대한 분류를 Taylor(2002)는 최근의 저서에서 단계이론 모델, 문제해결과 협상관점, 진행적 모델, 치료적 모델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단계 이론(Stage Theory) 모델들은 중재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적인 단계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중재의 시작과 중간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의 과업이 정해져있으며, 시간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단계들의 특징과 초점은 각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중재과정은 오리엔테이션, 갈등 규명 및 분석, 대안과 해결책 탐색, 상호간 의견교환에 의한 협상과 대안 선택, 합의 등의 5~6단계로 특징 지워진다. 이 모델에 속하는 중재모델을 제안한 학자들로는 중재과정을 7단계로 설명한 Folberg와 Taylor(1984), 12단계를 제안한 Moore(1996), 5단계로 설명한 Haynes(1994) 등을 들 수 있다. 문제해결과 협상중심 접근(Problem-Solving and Negotiative Approaches)은 1970~80년대에 인지적 행동적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널리 사용되던 문제해결 접근방법을 중재서비스에서도 채택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진행적(Procedural) 모델은 전체적 조망으로 볼 때에 문제해결 및 협상 모델과 거의 흡사하지만, 거기에 엄격한 절차를 도입하여 모델화한 것이다. 즉, 단계이론 모델과 문제해결 접근 모델처럼 진행적 모델 또한 가족역동이나 가족 맥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갈등 영역 하나 하나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재전문가들 중 적잖은 수가 이전에 법적 체계에서 종사하던 변호사, 법원의 화해조정가 등으로 이들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는 절차를 공정하게 세우는 이른바 “절차상의 정의(procedural justice)”를 확보함으로써 문제해결과정을 공정한 절차에 의해 알아갈 때에 양쪽 당사자들은 불만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영향으로 이 모델은 절차를 중시하는 법원과 매우 잘 맞아떨어지며 현재 미국의 많은 법원들이 진행적 모델의 중재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진행적(procedural)모델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처음으로 이혼중재센터를 개업하고 중재자의 훈련과정을 체계화한 Coogler(1978, 1982) 구조적 중재(Structured Mediation) 모델이다. 구조적 중재는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지켜야할 중재의 규칙들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하고 절차상 정의롭고 공정한 중재가 될 수 있

도록 제3자인 중재자는 중립적 영역에서 양쪽을 돕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혼중재에 있어서 이 모델은 다루어야할 쟁점들을 매우 구체화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순서를 밟아가면서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놓치지 않고 다루어야 할 대부분의 것을 개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Kranitz, 2000; Kranitz & Spiegel, 2003).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이혼중재에 포함되는 내용은 크게 자녀양육계획 수립, 재산분할, 양육비 및 위자료 등의 결정의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있다. 특히 이혼 중재의 가치 또한 “자녀의 최대복리 관점”을 따르므로 가장 먼저 자녀양육계획을 수립하며, 그 결정에 근거하여 재산 및 양육비 등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에 이혼 및 별거 시 자녀양육 가이드라인과 양육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 구조적 중재모델에서 다루고 있는 중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한편, 치료적 모델(Therapeutic Models)은 가족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던 전문가들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들은 중재에서 다루어야할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족역동, 가족체계이론에서 주로 사용하던 개념인 삼각관계, 연합, 경계선과 2차적 이득 등의 개념들에 유념하여 중재서비스에 임해야 한다고 보았다. 초기의 치료적 중재모델은 보웬이나 전략적 가족치료에 종사하던 가족치료 전문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보편적으로 치료적 중재모델은 좀 더 부부간 갈등이 심각하고 양측간의 적대심이 커서 중재 자체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다갈등 부부(high-conflict couple)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Taylor, 2002). 치료적 중재모델 중 가장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발전된 모델은 Irving과 Benjamin(1995)에 의해 개발된 TFM(Therapeutic Family Mediation) 모델이다. 통상적인 중재서비스가 2~3회에서 적어도 8회기 미만에서 끝나는 것에 반해 적어도 16주에서 32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단기 문제해결 접근이 효과가 없는 사례들에 유용하다. 또한 중재접근의 학문적 배경으로 문제해결과 협상 모델이 아니라 가족치료에서 발전된 구조적, 전략적 접근방식과 의사소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재실천가는 치료적 사정과 개입이 가능한 전문가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위의 세 모델이 절차상 공정한 관점(procedural justice perspective)을 중요시 여겼던 반면 개인과 체계의 변화(personal and systems change perspective)에 초점을 두고 있다. IDM(Impasse-Directed Mediation) 또한 전형적 치료적 접근법의 하나로서 Johnston에 의해 고안되었다(Johnston & Roseby, 1997). 이 모델은 이혼을 둘러싸고 부부간 갈등이 심각한 다갈등 가족과 가정폭력이 있어서 일반적 중재로는 접근이 어려운 가족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되었다. 실제적으로

자녀양육 협의를 위한 이혼중재 서비스 고찰



* 중재는 Client의 요구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이슈부터 시작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다음의 순서를 밟아가서 중재가 진행된다.
 * 자료 : Divorce Mediation Certificate Program (2003), University of Maryland.

그림 1. 구조적 중재(Structured Mediation) 모델의 중재 절차

법원에서 자녀양육권 결정이 어려워 중재서비스를 권고한 경우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족들이 바로 개인적, 관계적 수준에서 갈등이 심각하고 의사소통의 곤란으로 양방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족이다. 이러한 가족을 효과적으로 돕는 것은 이후 양육권 소송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모델은 TFM 모델이 제외한 가정폭력 사례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는 이혼곤경 프로젝트(Divorce Impasse Project)를 통해 다갈등 가족에게 IDM모델을 바탕으로 한 집중적-치료적

중재(Intensive Therapeutic Mediation; ITM)를 적용하여 효과를 보았다(Hoffman, 2000). TFM 모델과 ITM 모델의 중재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 중재와 달리 당사자가 함께 만나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이슈들을 해결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준비단계로 개별적 상담과정이 포함되고 있으며, 서로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할 때에 치료에서 중재로 전이되어 갈등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중재서비스가 급속 확장되는 과정에서 협상이론과 문제해결 중심 접근방식의 모델

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90년대에 들어와서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이혼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기를 들고 다른 이론적 맥락을 제시될 필요성을 드러냈다. 그 대표적인 예들로는 Folger와 Bush(1996)는 변형적 접근(Transformativ approach), Winslade와 Monk(2000)가 제안하는 나레이티브 접근(Narrative approach), 그리고 Lang과 Taylor(2000)의 상호작용 접근(Interactive approaches) 등을 들 수 있다.

이혼중재의 서비스 전달양식에 따라서도 모델들을 분류해볼 수 있다. 먼저, 한 명의 중재자가 아닌 형태로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동-중재(co-mediation)라 하는데, 대체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남녀가 한 팀으로 중재를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또한, Folberg(1988)는 변호사와 치료자가 함께 참여하는 학제간 팀 중재(interdisciplinary co-mediation)가 가장 유연하게 사례를 다룰 수 있는 방식이라 제안하였는데, Wiseman과 Fiske(1980), Gold(1988)도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즉, 이혼이 단순한 법률적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 문제라는 점을 반영하여 남녀혼성으로 법률가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서 중재를 이끌 때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에서도 신성자(2000)의 연구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시범적인 사례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공동 중재를 하는 경우, 중재가 균형을 이루고 상호간 감독이 이루어짐으로 중재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자원과 의견을 가지고 중재상황을 다루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남녀 혼성의 중재 팀일 경우에 상대방 부부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두 명의 중재자가 당사자들에게 갈등이나 불일치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모델링(modeling)의 효과를 들 수 있다(Kranitz, 2003), 그러나, 오히려 둘 이상의 공동 중재자의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고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실제적인 상황에서 중재비용이 상승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중재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신입 중재전문가의 훈련을 위해 숙련된 중재자와의 공동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중재 양식으로 중재과정에 자녀를 포함시키는 자녀포함(child-inclusive) 중재 모델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오스트레일리아의 McIntosh(2000)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아동 면접치료자와 중재자가 한 팀이 되어 활동을 하게 된다. 주로 갈등이 아주 심하지 않고 가정폭력 경험이 없는 경우이나, 양육분쟁 중재(custody mediation)에 있어서 자녀의 욕구를 분명히 파악하고 자녀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한 상황에서 아동전문가가 자녀를 면접한 결과를 부모에게 보고하면서 중재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들을 더욱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중재과정에

서 아동의 소리를 더욱 분명히 반영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보편화되지는 못하였다.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위한 함의

이혼중재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장점으로는 불필요한 이혼 소송을 막음으로 이혼 당사자들이 소송에 할애하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시간의 소모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협의이혼 시 초기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의 갈등들이 이혼 후에도 삶을 위협하여 결국 양육권 분쟁을 위한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재를 통하여 적절한 합의에 이르는 일은 이혼당사자의 이혼 후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사회적 체계에 있어서도 소송이 되풀이됨으로 일어나는 막대한 손실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혼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일로서 이혼 후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자녀에게 있어서도 이혼중재과정에서 합의된 바에 의하여 양쪽 부모와 예견된 대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재모델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첫째로, 이혼중재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재서비스에 대한 동기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서 중재 모델들을 검토하여 보았듯이 보편적으로 중재는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또는 대안적 갈등관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한 분야로서 문제해결중심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래 중재 자체가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두 상대방이 있을 때에 제 3자인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이혼 중재를 법원에서 의무화하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중재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자의 도움으로 합의 및 중재에 이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중재와 협상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는 중재서비스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혼 시 중재가 효과가 있으며 협의에 이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인식의 확신이 필요하며, 이혼중재 서비스의 시범적 운영 등을 통해 법적 체계의 공식적 절차로서 중재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필요하겠다. 또한 대인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간의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갈등관리(conflict resolution) 기법들이 보편화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혼제도의 개혁에서 자녀양육 협의를 위한 중재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004년 7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출범 이후 2005년 3월 2일부터 일주일 간의 이혼숙려기간 및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전 상담제도의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이혼의 80% 이상이 넘는 협의 이혼과정의 지나치게 간소한 절차로 인해 양산되는 이혼율의 증가 및 자녀양육 문제의 양산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의 시작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혼 전 상담제도의 취지가 성급하게 이혼을 선택한 부부의 이혼결정의 숙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혼중재서비스의 목적은 이혼 후 자녀를 가장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한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를 돕는 것이다.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혼할 부부가 더 이상 부모로서가 아닌 자녀양육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협력자로서의 관계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혼중재와 이혼과정의 부모교육은 자녀를 위해 이혼과정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혼 후에도 부모역할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줌으로서 자녀의 이혼 후 후유증을 줄이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혼중재 서비스가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혼 전 상담제도와 결합가능성이 있을지는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나, 자녀양육 협의를 위한 서비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포함되고 논의되어야 하겠다. 이혼 전 상담과 이혼협의 중재 서비스의 의무화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미국에서도 12개 주에서만 전체 주가 혹은 몇몇 카운티가 중재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며, 나머지 주에서는 법원의 권고에 의한 자율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갈등 중재 자체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의 두 가지 방향의 논의가 서구 역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에서도 이혼 전 상담과 중재가 모두 협의이혼과정에서 법원의 권고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연구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셋째, 우리나라 이혼자들의 갈등 영역 및 성격이 규명되어지고, 그에 적합한 중재모델이 발전해야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녀문제나 재산분할 문제 등 갈등이 심각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의 수준이 높은 경우, 한쪽에서는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정서적 분리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등에서는 단기적 접근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단기모델에서는 정서적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문제해결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이혼 부모들은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적대감 문제, 정서적 분리와 실제적 이혼협의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이혼 후에도 특히 자녀와 관련된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로 전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예가 많은 실정이다(전명희, 2001; 박한샘, 전명희, 2003; 성경현 외, 2001; 최정숙, 2004⁴⁾). 이러한 갈등이 높은 경우 과연 인지적-단기적인 전형적 모델이 효과성이 있을 지는 의문으로 남겨진다. 그러므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이혼자들의 이혼과정에서의 갈등 영역 및 갈등의 패턴 등이 좀 더 심도 깊게 규명된 후에 이를 중재하기 위한 치료적 중재, 팀중재, 또는 한국적 갈등관리 방식에 적합한 중재모델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 이혼 후 양육분담에 관한 한국적 가치정립이 시급하다.

기본적으로 자녀양육 문제를 중재하는 경우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양육(co-parenting)을 하기 위한 논의들이 포함된다. 서구의 경우 이혼한 부모들을 자녀양육을 위한 협력자, 비즈니스 파트너(Business Partner)에 비유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자녀양육을 해낼 책임에 대한 충분한 의논을 하도록 한다. 중재 서비스를 통해 수립되는 양육계획(parenting plan) 합의서는 매우 상세한 행동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녀가 어릴수록 일주일의 반은 엄마와 반은 아빠와 사는 두 집에서 사는 양육계획이 선호되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양쪽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이 가장 자녀의 복리에 필수적이라고 연구 결과 및 서구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두 집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서로가 준비하게 한다. 물론 자녀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청소년기에 오면서 양쪽 부모와 번갈아 보내는 시간이 한쪽 부모에 비교적 고정되고 또래집단과의 시간 할애 등을 고려하게 된다(Emery, 2003). 최근에는 공동 양육결정으로 인해 어린 자녀가 부와 모의 집을 며칠씩 번갈아 보내는 스케줄이 과연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Pruett 등, 2004; Pollack & Mason, 2004), 양육결과 계획은 그렇게 정해졌지만 자녀가 실상 한쪽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현상인 소위 부모소외화 증후군(parenting alienation syndrome)이 생기는 등의 새로운 현상들이 출현 중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Kelly & Johnston, 2001; Stoltz & Ney, 2002; Stolberg 등, 2002). 그러나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주류는 대부분의 주에서 자녀를 공동으로 키우는 것

4) 현재 진행된 국내 연구들이 우리나라 이혼부모들의 특성에 대한 통계적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들은 아직 드무나, 이혼부모에 대한 면접, 재판기록, 상담기록 등에 의한 질적 연구 및 내용분석의 결과들은 우리나라 이혼부모들의 다갈등 현상을 전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을 기본가치로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혼하면서 자녀양육을 위한 계획을 소상히 세우는 가족은 흔치 않다. 또한,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한 가치가 한국에서 연구된 바는 거의 없는데, 보편적으로 TV 드라마나 실제의 삶에 반영된 한국적 정서에서는 자녀가 두 집을 왔다갔다 하면서 사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녀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차피 같이 안살거라면 한 쪽 부모와 일찌감치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양쪽 부모를 모두 잃지 않고 사랑하고자 하는 자녀의 기본 욕구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녀를 잃은 한쪽 부모에게는 적대감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과연 한국적 양육분담의 모양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은 정말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혼 후 자녀양육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재에서 합의되어야 할 양육분담의 내용이 없는 아무리 중재서비스를 제공하여도 합의에 도달하기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자녀양육의 가치를 규명하고, 이혼 후 고수해야 하는 가치와 재해석되어야 할 가치들을 파악하여 우리에게 맞는 양육분담을 사회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양육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는 가치 형성과 이혼 후 자녀양육분담형태에 관한 실천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중재전문 인력의 필요성이다.

서구에서도 중재는 학위 중심이기보다는 주로 석사이상의 법률 전문가(변호사, 가정법원 직원), 가족치료자, 사회복지사, 상담자 등의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정기간의 자격훈련을 마친 뒤에 중재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Moston, 2000). 물론 중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관한 논의는 서구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나, 정해진 시간의 중재전문가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지도감독 하에서 사례실습을 하는 것으로서 각 주에서 설정한 법원 명령사례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그 훈련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갈등관리 및 의사소통 훈련, 가정법(Family Law) 및 이혼과정 이해, 가족역동

및 가족체계이론, 그리고 이혼중재 시 다루어야 하는 문제영역 등을 훈련을 받고 있다⁵⁾. 한국에서도 법률전문가와 정신건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재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의 의견으로는 이미 이혼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가족치료자,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갖춘 인력에 대해 중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들을 통해 중재서비스 전략을 세우기 위한 협의회가 이루어진다면 이혼과정에서 중재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범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갖추어지기 전에 서비스를 제도화한다면 오히려 질적 서비스의 전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 및 정책입안자들은 먼저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들을 통한 중재서비스의 도입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 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우선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이혼 전 상담제도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100여명의 상담전문가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먼저 이혼 전 개입의 역할을 맡은 상담위원회에서 중재서비스에 관심을 갖은 전문가들을 배출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한국적 중재서비스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가정폭력이 이혼의 원인인 경우에 미국에서도 중재 서비스를 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서 경험하는 위협감과 공포심, 그리고 실제로 안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며, 권력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중재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인 경우에 이른바 다갈등 가족(high-conflict divorce)의 기준에 속하게 되며, 주로 재판이 혼을 하게 된다. 서구의 경우 법원 내에 양육조정 전문가(parenting coordinator)를 두어 이혼전후 부모폭력과 갈등에 자주 노출된 자녀를 위한 개입과 부모교육, 부모의 지도감독 하의 방문 등을 관찰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과 다갈등 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부모교육, 자녀개입 서비스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혼과정에서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 간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이혼중재서비스에 대하여 개괄해보았다. 그러나 이혼제도의 아동복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양육비 산정 및 양육비 강제 징수 체계(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에 대해서는 언급

5) 미국에서는 중재(혹은 갈등해결방법)가 매우 보편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 중재훈련을 받은 후에는 지역사회 센터 등에서 일반적 중재(주민간 불화, 소비자 중재 등)를 도울 수 있다. 이혼중재는 이에 자녀양육관련 협의, 이혼시 경제적 문제 다루기, 양육비산정, 가정폭력, 그리고 중재합의서 작성 등의 내용이 더 추가되며, 주마다 규정된 훈련시간을 이수하고 나서 공동중재(co-mediation)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고 나면 Certified mediator로 법원에 등록할 수 있다.

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 양육자 선정 시 양육자 선정을 위한 양육평가자(custody evaluator)의 도입, 어떻게 자녀를 이혼 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는 양육 가이드라인(child support guideline) 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의 최대 복리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혼 전 별거(숙려기간)나 이혼과정에서 경제적 이슈를 다루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은 모두 후속연구에서 한국적 이혼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꼭 살펴보아야 할 과제일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이혼제도 전반과 이혼가족을 원조하기 위한 통합적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및 전달체계와 서비스의 통합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최근 2~3년 간 이혼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도모하고, 서비스의 시범적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적 문화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 확립을 위한 체계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에 비해 정책적 서비스의 수급은 더디지만 잘 준비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서비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이후에 오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매일수룩 이혼제도의 통합적 모형을 위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박한샘, 전명희(2003). 이혼부모의 자녀양육관련 상담분석; 사 이버상담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제1호 137-151.

박한샘(2004). 이혼가족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연세대 교육학과 박사논문.

성정현, 송다영, 정미숙, 한정원, 김진(2001). 재판이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 제18호. 29-57.

신성자(2000).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들을 위한 학제간 팀 이혼 중재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Vol.8(1), 31-58.

전명희(2001). 이혼후 자녀의 양육형태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논문.

전명희(2003). 이혼가족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이혼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망: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이혼(세미나 자료집). 한국성서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최정숙(2004). 여성의 이혼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논문.

통계청(2004). 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동아일보, 2004.7.12 / 한겨레신문. 2005.2.24.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2000). Model standards of practice for divorce and family mediators.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Vol. 38, No 1, 110-122.

Bagshaw, D. (1999). Developing family mediation standards : An Australian experience. *Mediation Quarterly*, Vol. 16, No 4, 389-406.

Baris, M., Coates, C., Duvall, B., Garrity, C., Johnston, E., & LaCross, E. (2001). *Working With High-Conflict Families of Divorce; A guide for Professionals*, Jason Aronson INC.

Baris. M. (1994). *Caught in the Middle: Protecting the Children of High-conflict Divorce*. Lexington Books.

Beck. C. J., & Sales B. D. (2001). *Family Mediation: Facts, Myths, and Future Prospec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enjamin, M., & Irving, H. (1995). *Family Mediation: Contemporary Issues*. Sage Publications.

Brown, D. G. (1982). Divorce and family mediation: History, review, future directions. *Conciliation Courts Review*, 20(2), 1-44.

Center for Families, Children, and the Courts. (2000). Preparing court-based child custody mediation services for the future.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Cobb, S. (1993). Empowerment and mediation: A narrative perspective. *Negotiation Journal*, July, 245-259

Coogler, O. J. (1978). *Structured Mediation in Divorce Settlement: A Handbook for Marital Mediators*. New Lexington Press.

Coogler, O. J. (1982). Mediation of divorce settlement: Basic notions. *Fairshare*, 2, 8-10.

Deutch, R. M. (2003). Creative options for long-term management of high conflict parenting relationships. *2003 Annual Conference Presentation. Montgomery Divorce Roundtable*.

Emery, R. E. (2003). Children and divorce: Renegotiating family relationships: Access schedules. *2003 Annual Conference Presentation. Montgomery Divorce Roundtable*.

Emery, R. E., Laumann-Billings, L., Waldron, M., Sbarra, D. A. & Dillon, P. (2001). Child custody mediation and

- litigation : custody, contact, and co-parenting 12 years after initial dispute resolu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323-332.
- Emery, R. E. (1999).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2nd Ed.)*. Sage Publications.
- Emery, R. E. (1994). *Renegotiating Family Relationships: Divorce, Child Custody, and Mediation*. Guilford Press.
- Folberg, J. (1988). *Divorce Mediation: Theory and Practice*. Guilford Press.
- Folberg, J., & Taylor, A. (1984). *Mediation: A Comprehensive Guide to Resolving Conflicts Without Litigation*. Jossey-Bass.
- Folger, J., & Bush, R. (1996). Transformative mediation and third-party intervention: Ten hallmarks of a transformative approach to practice. *Mediation Quarterly*, 13(4), 263-278.
- Friedman, G. J. (1993). *A Guide to Divorce Mediation: How to reach a fair, legal settlement at a fraction of the cost*. New York: Workman Publishing.
- Gold, L. (1988). Lawyer and therapist team mediation(Ch. 11). *Divorce Mediation: Theory & Practice (Folberg, J. Ed.)*. Guilford Press.
- Haynes, J. (1994). *The Fundamentals of Family Medi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offman, D. A. (2000). *Executive summary of intensive therapeutic mediation as a family court service and an attempt to develop an intensive therapeutic mediation program for the family court system in Santa Cruz County*. Divorce Impasse Project.
- Hornrich, A. M., Glover, M. M., & White, H. B. (2004). Program Profile: The Court Care Center for Divorcing Families. *Family Court Review*, Vol. 41, No. 1, 141-161.
- Irving H. H. & Benjamin M. (1995). *Family Mediation: Contemporary Issues*. Sage Publications.
- Irving H. H. (2002). *Therapeutic Family Mediation*. Sage Publications.
- Johnston J. & Campbell, J. R. (1988). *Impasse of Divorce*, The Free Press
- Jones, T. S., & Bodtker, A. (1998). Satisfaction with custody mediation : Result from the York county custody mediation program, *Mediation Quarterly*, Vol. 16, No. 2, 185-200.
- Kelly, J. B. & Johnston, J. R. (2001). The alienated child : a reformulation of parental alienation syndrome. *Family Court Review*, 39(3). 249-266.
- Kelly, J. B. (1999).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 concept in search of meaning.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Vol. 35, No. 4, 377-387.
- Kranitz, M. A., & Speigel, J. (2003). *Divorce Mediation Certificate Program workbook*. University of Maryland Continuing Education.
- Krantiz, M. A. (2000). *Getting Apart Together: The Couple's Guide to a Fair Divorce or Separation*. Impact Publishers.
- Kranitz, M. A. (2003). *Co-mediation: pros and cons*. (Unpublished article). Divorce Mediation Certificate Program workbook. University of Maryland Continuing Education.
- Kressel, K., & Pruitt, D. G., (1989). *Mediation Research: The process and effectiveness of thirty party intervention*. Jossey-Bass.
- Lang, M., & Taylor, A. (2000). *The Making of Mediator: Developing Artistry in Practice*. Jossey-Bass.
- McIntosh, J. (2000). Child-inclusive divorce mediation : report on a qualitative research study, *Mediation Quarterly*, Vol. 18, No. 1, 55-69.
- Moston., F. S. (2000). Introduction - Mediation 2000: Training mediators for the 21st century.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Vol. 38, No. 1, 17-26
- Moore, C. (1996).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y for Resolving Conflict. (2nd Ed.)*. Jossey-Bass.
- Murry K., (1999). When children refuse to visit parents ; Is prison an appropriate remedy?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Vol. 37, No. 1, 83-98.
- Neumann, D. (1996). *Choosing a Divorce Mediator*. Henry Holt Company, Inc.
- Pollack, D., & Mason, S. (2004). Mandatory visitation: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Family Courts Review*, Vol. 42, No. 1, 74-84.
- Pruett, M. K., Ebling, R., & Insabella, G. (2004). Critical aspects of parenting plans for young children :

- Injecting data into debate about overnights. *Family Courts Review*, Vol. 42, No. 1, 39-59.
- Sitarz D. (1999). *Laus of the United States Divorce*. Nova Publishing Company.
- Stolberg, A. L. et al. (2002). Denied visitation, its impact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a nationwide review of state cod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6(3/4), 1-19.
- Stoltz, J. M. & Ney, T. (2002). Resistance to visitation: rethinking parental and child alienation, *Family Court Review*, 40(2). 220-231.
- Sullivan, M. J. & Kelly, J. B. (2001). Legal and psychological management of cases with an alienated child. *Family Court Review*, 39(3), 299-315.
- Taylor A. (2002). *The Handbook of Family Dispute Resolution*. Jossey-Bass.
- Thyer, E. S. & Zimmerman, J. (2001). *The Co-Parenting Survival Guide: Letting go of conflict after a difficult divorce*. New Harbinger Publications, Inc.
- Tondo, C. Coronel R., & Drucker, B. (2001). Mediation trends: A survey of the states, *Family Court Review*, Vol. 39, No. 4. 431-453.
- Winslade, J., & Monk, G. (2000). *Narrative Mediation: A New Approach to Conflict Resolution*. Jossey-Bass.
- Wiseman, J. M. (1990). *Mediation Therapy: Short-term decision making for couples and families in crisis*. Lexington Bookes.
- Wiseman, J. M., & Fiske, J. A. (1980). Lawyer-Theorist team as mediator in a marital crisis. *Journal of Social Work*. November.

원 고 접 수 일 : 2005. 4.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6.

게 재 결 정 일 : 2005. 7. 14.

Divorce Mediation Service in the U.S. ; Helping parents negotiate child custody issues

Myung-Hee Jun
University of Maryland

Divorce rate has increased drastically in Korea for recent years. Various efforts to decrease divorce and to support divorcing families are discussed at the level of national wide policy, as well as practice in the field. For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and minimizing negative effects toward children at divorce process, co-parenting plan should be mutually agreed between parents including child custody, child support and visitation. However, services for parental negotiation to plan child rearing issues have not been sufficient to accommodate extensive needs of divorce parent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sic ideas and trends of parenting after divorce in the U.S. and to review its divorce mediation service, which is accepted as effective in dealing with child custody issue of divorcing family in respect of legal and social supporting systems. This study also covers general overview, effectiveness of mediation, and divorce mediation models. The implication provides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divorce mediation in Korea as a conclusion. It highlights the necessity of mediation for parental negotiation of child rearing issues and training courses for professional mediation, which help families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by empowering parents to be still parents after divorce.

Key words : parenting after divorce, children of divorce, divorce mediation,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청소년의 외상 경험과 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안 현 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인지적 사고 패턴이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PTSD 증상 발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536 명 (남학생 251 명, 여학생 285 명)을 대상으로 외상경험이 전혀 없고 PTSD 증상이 없는 집단, 외상경험은 있으나 PTSD 증상이 없는 집단, 그리고 외상경험이 있고 PTSD 증상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과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PTSD 증상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고, 세상이 위협하고 신뢰롭지 못하다고 믿었으며, 부정적인 사건 경험이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발견되었다.

주요어 : 청소년,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인지신념

최근 10 여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이 자연 재해, 교통사고, 폭력 사건, 성학대 등과 같은 외상경험을 하게 되는 비율이 성인들의 경우에 못지않게 높다는 인식과 함께, 그러한 충격적이거나 비일상적인 경험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서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상 경험에 노출된 경우가 40%에서 7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고(Giaconia et al., 1995; Jenkins & Bell, 199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약 25%의 청소년이 16세가 되기 이전까지 최소한 한가지의 강도 높은 외상경험을 한다고 밝혔다(Costello, Erkanli, Fairbank, & Angold, 2002). 외상경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약 24%가 심각한 임상적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Burton, Foy, Bwanausi, Johnson, & Moore, 1994), 한 메타 분석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 성학대 경험 피해자의 약 32%가 PTSD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Kendall-Tackett, Williams, & Finkelhor, 1993). 특히 정신과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의 경우 약 93%가 외상경험

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것은 외상경험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 준다(Lipschitz, Winegar, Hartnick, Foote, & Southwick, 1999).

외상경험의 결과로 인해 한 개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문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안 장애 가운데 하나로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 악몽이나 침입적 사고, 플래시백 등을 통해 당시의 증상들을 반복적으로 재경험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자극들을 회피하려 하거나, 지속적인 과각성 상태에 놓임으로써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을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상적 경험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으며, 초기에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대체로 자발적 회복을 하게 된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수 개월에서 수 년에

* 교신저자 : 안 현 의, (609-735)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메일주소 : hyunniahn@pusan.ac.kr

이르는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를 나타낸다.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도 외상경험 후에 일단 PTSD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심리적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a Creca, Silverman, Vernberg, & Prinstein, 1996; Pynoos, & Nader, 1990).

그동안 국내에서는 성피해 아동(김정규, 2000), 가정폭력 피해아동(안귀여루, 2001),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이봉건, 2001)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PTSD 증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안현의(2005)가 실시한 조사에서 국내 청소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경험의 실태가 처음 소개되었는데, 839 명의 고등학교생들 가운데 300명이 최소한 한 가지 유형의 외상경험을 하였고, 그 중 약 17%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PTSD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수준이며, 더욱이 PTSD 증상이 청소년들의 일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조기 진단과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안현의, 2005).

현재까지 PTSD 증상 완화를 위해 개발된 치료개입 가운데 가장 효과 검증 연구가 많이 되었고 임상적 장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인지행동적 접근이다(Foa, & Rothbaum, 1998).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PTSD 치료에도 인지행동적 접근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98; Cohen, Berliner, & March, 2000), 이를테면 PTSD 증상을 지속시키는 것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지-도식의 왜곡을 변화하는데 목적을 둔 인지적 재구성 기법이나(Veronen, & Kilpatrick, 1982), 외상경험의 기억을 직면하고 불안을 일으키는 구체적 장소나 물건에 노출시킴으로써 불안자극에 대한 둔감화를 유도하는 노출기법 등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Foa et al., 1991, 1999; Marks et al., 1998; Tarrier et al., 1999). 그 외에도 노출기법을 사용한 인지행동 집단치료(March et al., 1998)와 불안대처 훈련(Farrell, Hains, & Davies, 1998)도 청소년의 PTSD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지행동적 치료기법이 지닌 공통점은 외상경험이 피해자의 사고와 신념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전제하고(예, Ehlers, & Clark, 2000; Foa, & Rothbaum, 1998; Foa, & Riggs, 1993), 그러한 사고와 신념의 변화가 외상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Foa, Clark, Tolin, & Orsillo, 1999). 사회인지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자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비록 현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허상적 기대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미래를 계획하는데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한다. Janoff-Bulman(1992)는 외상경험을 한 사람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신념의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1) 세상은 선하고 우호적이라는 신념, (2) 세상은 의미있는 곳이라는 신념, 그리고 (3) 나 자신은 가치있는 존재라는 신념 등이다. 즉, 예기치 못한 외상적 사건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우호적일 것이고, 특정 행동은 반드시 특정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늘 예측할 수 있으며, 나는 대체로 선하고,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신념'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하였다. Janoff-Bulman 이 제안한 기본 신념의 변화 외에도 외상경험은 다른 종류의 인지적 변화를 가지고 온다. Bolton과 Hill(1996)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유능한 존재이고, 세상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며 내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외상경험은 대부분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당사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불쾌감을 야기하며, 자신을 무력하고 통제감을 상실한 존재로 느끼게 한다. 따라서 세상과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상경험을 하였다고 해서 누구나 다 PTSD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외상경험 자체가 신념의 변화를 일으키는지의 여부보다는, 외상경험 이후 PTSD 증상이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과 PTSD 증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간에 어떠한 인지적 차이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물음이 될 것이다. PTSD 증상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Foa 와 그의 동료들은 '세상은 항상 위험하다'와 '나는 완전히 무능하다'의 두 가지 역기능적 인지가 외상경험과 PTSD 증상을 중재한다고 하였다(Foa, & Riggs, 1993; Foa, & Rothbaum, 1998). 그 기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1) 평소에 세상은 항상 안전하고 자신은 언제나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외상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자신의 기존 도식에 동화(assimilate)시키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도식을 과잉조절(overaccommodate)하게 되거나, (2) 평소에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외상경험으로 인해 세상이 위험하고 자신을 무능하게 보던 사람이 또 다른 외상 경험을 하게 되면 기존의 부정적인 도식을 점화하여 쉽게 촉발시키게 된다(Foa, Elhers, Clark, Tolin, & Orsillo, 1999). 따라서 인지행동 치료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외상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역기능적 인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Foa 등은(1999) 외상경험으로 인한 인지적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PTCI)를 개발하였다. PTCI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 (21문항)',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 (7문항)', 그리고 '자기 탓하기 (5문항)'의 세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Foa 등이(1999) 실시한 PTCI 타당도 연구에서 각 요인마다 문항간 내적합치도 지수가 매우 높게 나왔다($\alpha=.86-.97$). 또한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Foa, Cashman, Jaycox, & Perry, 1997) 을 통해 측정된 PTSD 증상과 중간 정도에서 높은 정도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r_s=.57-.78$), PTSD 증상을 갖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86% 정확도로 변별해낼 수 있었다(Beck, Coffey, Palyo, Gudmundsdottir, Miller, & Colder, 2004).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상경험의 여부를 조사하고, 외상경험을 하지 않은 집단, 외상경험 이후 PTSD 증상을 보이지 않는 집단, 그리고 외상경험 이후 PTSD 증상을 보이는 집단 간에 인지적 신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세 집단이 PTCI에서 측정하는 세 가지 하위 척도에서 어떠한 패턴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볼 것이며, 남녀 성별과 외상경험의 유형(자연발생적 외상사건 vs. 대인폭력적 외상사건)에 따라 인지적 신념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역기능적인 인지 패턴이 외상경험 이후 PTSD 증상과 연관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면, 심리치료 과정에서 상담자가 치료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개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방 법

대 상

대도시에 소재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담당 교사와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는 연구보조원의 지도 하에 약 1시간 동안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이 중에서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기준(조사도구에서 기술됨)에 부합한 536 명(남학생 251 명, 여학생 285 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령 분포는 14~17세였으나, 15세 ($n=280$)와 16세 ($n=231$)이 가장 많았다.

도 구

외상적 경험 실태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평가

조사대상자의 외상적 경험의 실태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Foa 등(1993)이 개발한 Post-

traumatic Diagnostic Scale(PDS)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PDS는 원래 총 49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외상적 사건 경험의 종류, 시간경과, 증상기간 등을 묻는 질문 21 문항과 DSM-IV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PTSD 증상을 묻는 질문 17 문항을 선택하여 총 38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증상 문항들은 지난 2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4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거나 단 한번 그런 적이 있다 ~ 3: 일주일에 5번 이상이거나 거의 매일 그렇다)에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PTSD 증상의 평가기준을 증상 문항 17 개에 대한 총점을 구하여 10점 이하는 약함(mild), 11~20점은 중간 정도(moderate), 21점 이상은 심함(severe)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Foa(1998)가 판별함수분석을 통하여 15점 이상을 임상적 PTSD 증상으로 구분한 것을 적용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 범위는 Cronbach alpha .83에서 .91 이고(Foa et al., 1993, 1997),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는 .907 이었다.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집단 I(외상경험 없음, PDS < 15), 집단 II(외상경험 있음, PDS < 15), 그리고 집단 III(외상경험 있음, PDS ≥ 15) 으로 나누었다. 외상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DS 점수가 15점 이상 나온 것은 모두 제외하였고, 외상경험의 유형 가운데 원 PDS 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충격적인 사건들'에만 표기한 경우도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외하였다. 따라서 집단 I은 외상경험과 PTSD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 집단 II는 외상경험은 있으나 PTSD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 그리고 집단 III은 외상경험도 있고 PTSD증상이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외상후 인지 변화 측정

PTCI는 외상경험을 한 후에 그 경험과 관련된 사고와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3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자가 '1 (전혀 아니다)에서 7 (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에서 선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PTCI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Negative Cognitions About the Self, 21문항)',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Negative Cognitions About the World, 7문항)', 그리고 '자기 탓하기(Self-Blame, 5문항)'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예시 문항이 아래에 나와 있다. 본래 PTCI는 외상경험과 관련한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인지적 패턴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상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외상경험이 아닌 어떤 인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PTCI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인지 패턴을 보여준다.

원 연구(Foa et al., 1999)에서 세 척도들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 관계가 나타났고 ($r_s = .57 \sim .75$),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순서대로 $\alpha = .97$, $\alpha = .88$, 그리고 $\alpha = .86$ 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 척도는 .946,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 척도는 .852, 그리고 ‘자기 탓하기’ 척도는 .801로 나타났다.

인지적 신념 문항 예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다 나는 한 때는 만족하며 살았으나 지금은 항상 불행하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	누구도 믿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항상 긴장하며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한 곳이다
자기탓하기	그때 있었던 일은 나로 인해 생긴 것이다 나라는 사람에게 그 일이 생긴 것은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 과

외상 경험의 유형과 비교 집단 분류

응답자들의 배경 변인에 관한 정보와 외상경험의 유형은 표 1과 표 2와 제시되어 있다. 전체 536 명의 응답자들 가운데 336 명이 최소한 한 가지 유형의 외상적 사건을 겪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외상경험이 전혀 없고 PTSD의 증상이 거의 없거나 낮은 경우 (집단 I)은 200명, 외상경험이 있으나 PTSD 증상이 거의 없거나 낮은 경우 (집단 II)는 252명, 그리고 외상경험이 있고 PTSD 증상이 중간수준 이상 높은 경우 (집단 III)는 84명이었다. 즉, 이 연구에서는 외상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40% 정도가 다소 심각한 PTSD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외상적 사건은 각종 사고, 화재, 폭발 유형으로서 남녀 합계 121명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비 성적인 폭력,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비 성적인 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인 형태의 사건 경험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약 3.6 배 정도 많았다.

표 1. 외상경험 유무와 PTSD 증상에 따른 집단 분류

집단 I - 외상경험 없음 (PDS < 15)	200 (37.3%)
집단 II - 외상경험 있음 (PDS < 15)	252 (47.0%)
집단 III - 외상경험 있음 (PDS ≥ 15)	84 (15.7%)
계	536

표 2. 외상경험의 유형

	응답자		
	남	여	합계
사고, 화재, 폭발 (예, 교통사고, 산업현장사고)	64	57	121 (22.6%)
자연재해 (예, 태풍, 폭풍, 홍수, 지진)	41	36	77 (14.4%)
아는 사람(가족, 친지)으로부터의 비(非)성적 폭력 (예, 강도, 폭행, 위협)	10	22	32 (6.0%)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비(非)성적 폭력 (예, 강도, 폭행, 위협)	17	16	33 (6.2%)
아는 사람(가족, 친지)으로부터의 성적 폭력 (예, 강간, 강간시도)	0	10	10 (1.9%)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적 폭력 (예, 강간, 강간시도)	2	11	13 (2.4%)
18세 이전에 성인과의 성적 접촉 경험 (예, 성기 접촉, 신체접촉)	6	8	14 (2.6%)
강제 감금 경험	1	1	2 (0.4%)
고문 경험	1	3	4 (0.7%)
생명에 위협적인 질병 경험	13	17	30 (5.6%)
외상경험 없음	101	99	200 (37.3%)
계	251	285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외상관련 인지적 신념과의 상관관계

아래 표 3은 외상경험을 한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외상적 증상의 정도와 외상경험과 관련된 인지적 신념과의 상관관계이다. 외상경험자들이 DSM-IV에서 명시한 증상들을 전부 나타내지 않고 일부 범주에서만 증상을 보이는 부분-PTSD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DS에서 측정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DSM-IV에 명시된 PTSD 증상 기준에 따라

(1) 반복적 재현 reexperiencing (예, 플래시백, 악몽), (2) 회피 반응 avoidance (예,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려 함), (3) 과각성 arousal (예, 과도한 경계심, 불면증)의 세 범주로 나눈 점수와 전체 PTSD 점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PTSD의 증상들과 외상관련 인지적 신념들 간에는 모두 높

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지적 신념의 경우 세 하위 척도 간의 상관 관계의 분포는 .55에서 .74로서 기존의 문헌에서 밝힌 상관 수치와 매우 근접함을 알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특히 PTSD 증상이나 다른 두 하위 인지적 신념과 상관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자기 탓하기는 가장 낮았다.

표 3. 외상적 증상과 인지적 신념들 간의 상관 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1. 반복적 재현	1							
2. 회피반응	.690**	1						
3. 과각성	.603**	.670**	1					
4. PDS 총점	.860**	.909**	.862**	1				
5. 부정적 자기신념	.459**	.590**	.564**	.616**	1			
6. 부정적 세상신념	.454**	.525**	.559**	.585**	.736**	1		
7. 자기탓하기	.432**	.483**	.468**	.527**	.720**	.545**	1	
8. PTCI 총점	.509**	.602**	.601**	.653**	.919**	.870**	.856**	1

** $p < .01$

외상관련 인지적 신념 척도

외상경험의 유무와 PTSD 증상 발현의 유무에 의해 분류한 세 집단(집단 I, II, III)에 따라 부정적 자기신념, 부정적 세상신념, 그리고 자기 탓하기의 인지적 신념 척도들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변량분석(follow-up ANOVA)을 실시하고 집단간 차이

사후 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집단유형별(Wilks's $\Lambda = .703, p < .001$), 성별(Wilks's $\Lambda = .947, p < .001$)에서 주효과가 나타났고, 집단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나타났다(Wilks's $\Lambda = .935, p < .001$). 집단유형별 인지적 신념 척도의 평균점수의 다변량 및 단변량분석 결과는 표 4, 표 5, 표 6에 각각 제시되었다.

표 4. 집단유형별 인지적 신념 척도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집단 I			집단 II			집단 III		
	남 (n=95)	여 (n=105)	전체 (n=200)	남 (n=113)	여 (n=139)	전체 (n=252)	남 (n=42)	여 (n=42)	전체 (n=84)
부정적 자기신념	1.59 (.785)	1.74 (.713)	1.67 (0.75)	1.91 (.856)	1.97 (.845)	1.94 (0.85)	3.60 (1.106)	2.82 (1.133)	3.21 (1.18)
부정적 세상신념	2.18 (1.206)	2.69 (1.071)	2.45 (1.16)	2.69 (1.233)	2.82 (1.130)	2.76 (1.18)	4.30 (1.168)	4.09 (1.105)	4.19 (1.14)
자기탓하기	1.99 (1.240)	2.128 (1.233)	2.06 (1.23)	2.02 (1.027)	2.04 (1.093)	2.03 (1.06)	4.00 (1.257)	2.59 (1.044)	3.29 (1.35)
PTCI 총점	5.78 (2.870)	6.56 (2.416)	6.19 (2.66)	6.63 (2.731)	6.82 (2.556)	6.74 (2.63)	11.91 (3.023)	9.49 (2.58)	10.70 (3.05)

주: 집단 I - 외상경험 없음 (PDS < 15), 집단 II - 외상경험 있음 (PDS > 15), 집단 III - 외상경험 있음 (PDS ≥ 15)

표 5. 집단유형과 성별에 따른 인지적 신념의 다변량분석 결과

	자유도	Wilk's Λ value	F
집단유형별	(2, 529)	.703	33.807***
성별	(1, 529)	.947	9.947***
집단유형별 X 성별	(2, 529)	.935	5.971***

*** $p < .001$

표 6. 집단유형과 성별에 따른 인지적 신념의 시후 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자유도	평균자승화	F	Scheffé
집단유형별	부정적 자기신념	2	72.703	97.630***	III > II > I
	부정적 세상신념	2	93.642	70.007***	III > II > I
	자기 탓하기	2	55.130	42.059***	III > I, II
	PTCI 총점	2	646.772	90.989***	III > II > I
성별	부정적 자기신념	1	4.101	5.507*	남 > 여
	부적절 세상신념	1	2.042	1.526	
	자기 탓하기	1	19.232	14.672***	남 > 여
	PTCI 총점	1	24.816	3.491	
집단유형별 X 성별	부정적 자기신념	2	6.941	9.321***	
	부정적 세상신념	2	4.288	3.205*	
	자기 탓하기	2	19.563	14.924***	
	PTCI 총점	2	77.640	10.922***	
오차	부정적 자기신념	529	.745		
	부정적 세상신념	529	1.338		
	자기 탓하기	529	1.311		
	PTCI 총점	529	7.108		

* $p < .05$, *** $p < .001$

전반적으로 외상경험을 한 청소년들 가운데 PTSD 증상이 높은 이들이 외상경험은 하였으나 PTSD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외상경험을 한 적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으며, 외상사건의 탓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높았다.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인지 패턴은 외상경험을 하였으나 PTSD 증상이 없는 청소년들에게서도 나타났는데, 비록 증상이 있는 경우보다는 낮았지만 아예 외상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상경험이 PTSD와 같은 임상적 증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사고와 신념의 경향성을 갖게 하는 것과는 높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집단간 차이

사후검증에서 '자기탓하기'에서만 집단 I과 집단 II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외상경험을 하였더라도 PTSD 증상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경계심이 높아진 반면 그 사건을 자신의 잘못으로 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TSD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세 척도 모두에서 집단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인지적 척도의 각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세 가지 인지적 신념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집단 I과 집단 II (즉, PTSD 증상이 없거나 낮은 집단들)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반면, 집단 III (즉, PTSD 증상이 높은 집단)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모든 인지적 영역에

결쳐 더 많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PTSD 증상이 있는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과 세상에 대해 훨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외상경험도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상사건의 유형을 자연재해나 교통사고와 같은 고의성이 없는 것 ($n=228$)과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과 같은 대인적 고의성이 있는 것 ($n=108$)으로 묶어서, 이 두 가지 범주의 외상유형에 따라 피해자의 인지적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나 각 하위 척도나 전체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외상사건의 유형이 인지적 패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적 모델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외상 경험이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사고패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PTSD 증상의 발현과 유지와 관련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몇 가지 중요한 발견들을 요약하자면, 우선 기존의 문헌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외상경험을 한 후에 PTSD 증상을 갖게 된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력하며, 주위의 소위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내면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더욱 대인관계에서 소외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PTS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는 것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PTSD 증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의지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외부 세상이 늘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타인과 외부 환경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은 자기이행적 예언으로 이어지고, 대인관계에서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정보와 경험을 보다 쉽게 흡수하도록 만들므로써 자신의 인지적 왜곡을 순환적으로 강화하기 쉽다. 그 외에도 외상 경험을 한 후 PTSD 증상을 갖게 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 경험을 내부로 귀인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즉, 외상사건의 유형이 예기치않게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과 무능력으로 인해 생긴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자기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인지 과정들은 외상경험을 한 후

에 PTSD 증상이 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 연구에서 성차가 발견된 것은 특이한 점이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 한 가지로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즉, PTSD 증상이 없는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주위 환경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수연, 문영우, 2002; Robinson-Awana, P., Kehle, T. J., & Jenson, W. R., 1986). 그런 반면, PTSD 증상이 발현한 이후에는 남자 청소년들이 더욱 높은 부정적 사고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개인적인 사항들에 대해 자기노출을 덜 하는 것과 (Pleck, 1981; Davidson, 1980) 연관지어볼 수 있고, 그러한 경향성은 결국 PTSD의 중요한 예언변인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지지의 부재 (Ehlers, A., Mayou, R. A., Bryant, B., 1998)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어쩌면 외상 경험 이후에는 남자 청소년들이 더 높은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심리치료 과정에서 상담자와의 관계형성이나 상담진행이 더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외상경험을 한 후에 PTSD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외상경험을 전혀 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사고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외상경험을 한 후에 누구나 다 PTSD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직후에는 증상이 다소 나타나더라도 자발적 회복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자발적 회복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PTSD 진단 기준의 세 가지 주요 범주 가운데 일부에서만 증상 발현을 하는 부분-PTSD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비록 정식 PTSD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DESNOS (Disorders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라고 불리는 성격 특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Herman, 1992; van der Kolk et al., 1996). 안현의 (2005)의 연구에서도 외상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충동성이나 반순응성,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의 성격 척도에서 문제 경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비록 정확한 인과적 경로는 추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외상 경험 이후 PTSD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외상경험과 PTSD 증상 발현에 자신과 외부 환경에 대한 역

기능적인 인지 과정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상담자에게 구체적인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는 현재까지 PTSD의 증상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인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한 인지적 패턴으로 인해 상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담자의 개별적 차이에 따라 어떠한 측면에서 인지 왜곡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치료개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에 정확한 PTSD 진단의 신뢰성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문헌에서는 성적 학대 피해의 경우 그 증상의 후유증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성적 외상 피해자의 숫자가 너무 적어 세부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학대 피해 여성이나 쉼터, 병원 입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PTSD 진단과 함께 외상 유형에 따른 차이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김정규 (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4), 747-770.
- 안귀여루 (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4), 679-697.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1), 217-231.
- 이봉건 (2001). 또래 아동의 비행 행동이 피해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개선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3), 413-442.
- 이수연, 문용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인식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9 (1), 65-89.
-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98). Practice parameters for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4-2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4th ed.
- Beck, J. G., Coffey, S. F., Palyo, S. A., Gudmundottir, B., Miller, L. M., & Colder, C. R.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A replication with motor vehicle accident survivors. *Psychological Assessment*, 16, 289-298.
- Bolton, D., & Hill, J. (1996). *Mind, meaning, and mental disor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rton, D., Foy, D., Bwanausi, C., Johnson, J., & Moore, L.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exposure, family dysfunc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male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7, 83-93.
- Brewin, C. R., & Holmes, E. A. (2003). Psychological theori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339-376.
- Cohen, J. A., Berliner, L., & March, J. (2000). *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E. Foa, T. Keane, & M. Friedman (Eds.), *Effective treatments for PTSD* (pp. 106-138). New York: Guilford Press.
- Costello, J. E., Erkanli, A., Fairbank, J. A., & Angold, A. (2002). The prevalence of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in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 99-112.
- Davidson, B., Balswick, J. O., & Halverson, C. F. (1980). Factor analysis of self-disclosure of adolescents. *Adolescence*, 15, 947-957.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319-345.
- Ehlers, A., Mayou, R. A., & Bryant, B. (1998). Psychological predictors of chronic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motor vehicle acci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508-519.
- Farrell, S. P., Hains, A. A., & Davies, W. H. (1998).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exhibiting PTSD symptomology. *Behavior Therapy*, 29, 241-255.
- Feeny, N. C., Foa, E. B., Treadwell, K. R. H., & March, J. (200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youth: A critical review of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 treatment outcome literatur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5, 466-476.
- Foa, E. B., Cashman, L., Jaycox, L., & Perry, K. (1997). Th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9, 445-451.
- Foa, E. B., Elhers, A., Clark, D. M., Tolin, D. F., & Orsillo, S. M. (1999).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1, 303-314.
- Foa, E. B., & Riggs, D. S.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ape victims. In J. Oldham, M. B. Riba, & A. Tasman (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vol. 12 (pp. 273-30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Foa, E. B., & Rothbaum, B. O. (1998). *Treating the trauma of rap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PTSD*. New York: Guilford Press.
- Foa, E. B., Rothbaum, B. O., Riggs, D. S., & Murdock, T. B. (1991).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ape victims: A comparison between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 and counsel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715-723.
- Foa, E. B., Dancu, C. V., Hembree, E. A., Jaycox, L. H., Meadows, E. A., & Street, G. P. (1999). A comparison of exposure therapy, stress inoculation training, and their combination for reduc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emale assault victi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194-200.
- Giaconia, R. M., Reinherz, H. Z., Silverman, A. B., Pakiz, B., Frost A. K., & Cohen, E. (1995). Trauma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community population of older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1369-1380.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 Janoff-Bu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 Towards a new psychology of trauma*. New York: Free Press.
- Jenkins, E. J., & Bell, C. C. (1994). *Violence among inner city high school stud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S. Friedman (Ed.), *Anxiety disorders in African Americans* (pp. 76-88). New York: Springer.
- Kendall-Tackett, K. A., Williams, L. M., & Finkelhor, D. (1993).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13, 164-180.
- La Creca, A. M., Silverman, W. K., Vernberg, E. M., & Prinstein, M. J. (1996).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in children after Hurricane Andrew: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712-723.
- Lipschitz, D. S., Winegar, R. K., Hartnick, E., Foote, B., & Southwick, S. M. (1999).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hospitalized adolescents: Psychiatric comorbidity and clinical correlat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385-392.
- Marks, I., Lovell, K., Noshirvani, H., Livanou, M., & Thrasher, S. (1998).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y exposure and/or cognitive restructuring.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 317-325.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A: MIT Press.
- Pynoos, R. S., & Nader, K. (1990).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and traumatic death. *Psychiatric Annals*, 20, 334-344.
- Robinson-Awana, P., Kehle, T. J., & Jenson, W. R. (1986). But what about smart girls? Adolescent self-esteem and sex role perceptions as a function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 179-183.
- Tarrier, N., Pilgrim, H., Sommerfield, C., Faragher, B., Reynolds, M., Graham, E., & Barrowclough, C. (1999). A randomized trial of cognitive therapy and imaginal exposure in the treatment of chronic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13-18.
- van der Kolk, B. A., McFarlane, A. C., & Weisaeth, L. (Eds.) (1996).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New York: Guilford Press.

Veronen, L. J., & Kilpatrick, D. G. (1982). *Stress inoculation training for victims of rape: Efficacy and differential findings*. Paper presented at the 1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Los Angeles.

원 고 접 수 일 : 2005. 4.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6.

게 재 결 정 일 : 2005. 7. 14.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Experience and Cognitive Changes in Adolescents

Hyunnie Ah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ffect of trauma experience on the cognitive patterns in adolescents.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and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536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ree groups were divided for the purpose of analysis : those who did not have any trauma and had no PTSD symptoms, those who had trauma experience but no symptoms, and those who had trauma experience and had moderate to high level of sympto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roup with PTSD symptoms had negative beliefs about self, negative beliefs about the world, and were more likely to blame themselves for the event. Interaction effect was also found with gender.

Key word : adolescent, posttraumatic stress, 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은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준, 개인적 관계의 추구, 소속감의 제공, 자아의 통합에 영향을 주는 등 자존감의 원천이자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지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친밀한 친구가 없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이며, 낮은 자존감, 외로움, 심리 사회적 문제, 소외감 등을 야기한다(Heaven, 1994). 더 나아가 또래의 거부, 괴롭힘, 적개심은 청소년들에게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적합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데 심각한 장애를 주기 때문에 집단따돌림의 피해경험은 피해자가 성인된 이후까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Singer, Hoel, & Cooper, 2003).

특히 초등학교 시절의 집단따돌림에 비해 중학교 시절의 집단따돌림이 피해자에게 더 심각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Schafer, Werner, & Crick, 2002). 이는 초등학교 시절보다는 중학교 시절에 질이 나쁜 동료를 만날 가능성이 크고,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이 또래의 괴롭힘에 대해 교사나 부모 등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mith & Brain, 2000).

집단따돌림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집단따돌림의 발생원인을 탐색하고 예방책을 찾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왔다. 즉 지금까지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의 연구들은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가해자 특성(예: 공격성)과 집단따돌림 행동의 경험 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거나, 피해자 특성(예: 자존감, 사교성)과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 수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들이었다.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특성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들이 지닌 성격특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공격성과 충동성이다. 가해행위에 내재한 공격성의 심리적 동기로는 첫째, 힘과 지배에 대한 강한 욕구(Olweus, 1994; Smith, 1991)와 경쟁심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가해자의 특성이 타인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아이를 집단적으로 따돌림시키는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집단따돌림의 원인으로 가해자의 내적 분노, 욕구 좌절, 반항심, 적개심, 스트레스, 불만을 들 수 있다(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조성호, 1999). 이것들의 심리의 분출구로서 욕설, 언어적 폭력 혹은 극단적인 모욕 등과 같은 언어적 공격 행동이나 신체적 공격 행동으로 표현되어 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들은 부모의 공격성과 처벌행동을 그대로 답습하였거나(조성호, 1999),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낮은 공감능력(김혜원, 이해경, 2000a; Olweus, 1994; Rigby & Slee, 1991)을 소지한 사람들이다.

넷째, 인간의 정서-행동-신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 행동은 그 개인 자신의 신념 체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Ellis, 1973). 즉 가해자의 역기능적 신념체계도 집단따돌림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예: 강은희, 이은희, 임은정, 2002). 대표적인 가해자의 역기능적 신념은 부정적 자기개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 대인관계와 타인에 대한 경직된 신념, 완벽주의, 자애성, 특권의식 등이다. 예를 들어 따돌림 가해행동도 자기보호적 성격보다는 자기 과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Rigby, 1997). 이는 아주 밀착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밀착된 또래집단에게 자신의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거나 유약한 친구를 공격대상으로 삼게 된다. 또한 과도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신념은 자신의 인정욕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 분노와 공격적 태도를 취하게 한다(구본용, 1997).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특성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대표적인 성격특성들은 내성적 성격, 부정적 자기개념,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등이다(Boulton & Smith, 1994; Matsui, Kakuyama, Tsuzuki, & Onglatgo, 1996; Sharp, 1996).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의 피해자가 지닌 특징들은 불안, 무력감, 분노, 외로움, 우울 등이었다(Schafer et al., 2004),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동료 집단과의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도록 만든다. 특히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피해자는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인 경우가 많고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는 Olweus(1994)가 명명한 '수동적 혹은 복종적 피해자'(passive or submissive victim)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무기력하고 수동적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강한 아이들의 공격 표적이 된다. 또한 이들은 또래보다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공격적이거나 반격할 여력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Boulton et al., 1994; Matsui et al., 1996).

일부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들은 잘난 척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일방적인 태도가 주위와 어울리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동료들과 충돌함으로써 다수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스스로가 지닌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주변을 자극하여 대

결 국면을 형성한다. 즉 가족, 친구, 또래 등의 지지가 낮은 학생들이었다(김혜원, 이해경, 2000b).

집단따돌림의 상호성

대인관계에서 상호성은 호감과 같은 감정(예: Folkes & Sears, 1977), 특성 평가(고재홍, 김명렬, 2004; Kenny, 1994) 뿐만 아니라, 공격이나 도움행동과 같은 구체적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B도 A에게 친절하게 대할 가능성이 크다. Tedeschi와 그의 동료들(Tedeschi, Gaes, & Rivera, 1977)은 상호성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남의 호의를 호의로 되갚는 정적 상호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의 악의를 악의로 되갚는 부적 상호성이다. 고재홍(1997)은 양자관계에서 도움과 피해 행동의 상호성을 살펴본 결과, 도움행동보다는 피해행동의 상호성이 더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집단따돌림에서 상호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시사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장면에서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연구에서도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과 자신이 친구를 따돌린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22.1%로서 피해경험만을 가진 학생(7.5%)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혜원 등(2000b)의 연구에서도 초, 중, 고 교생의 집단따돌림 조사에서 가해-피해 집단이 전체의 27.8%로서, 가해자 비율(21.5%)과 피해자 비율(1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따돌림 가해-피해 중첩 집단은 가해만 하는 집단보다 가해행동의 평균횟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lweus(1994)가 말한 '성나게 하는 피해자(provocative victim)'와 Perry, Kusel, 및 Perry(1988)의 '피해, 공격, 거부 유형', 이상균(1998)이 명명한 '공격적 피해학생'이 모두 이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강한 적개심과 피해의식, 반항심이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타인에 대한 가해로 보상받거나 혹은 또래폭력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친구에 대한 가해에 가담하기도 한다(이상균, 1998). 한편, 지나친 따돌림 가해 행위가 오히려 집단에게 위협적이 되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 피해상황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가해에 동참하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가해와 피해 경험을 모두 지닌 집단은 당사자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형적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보다는 한번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그 양식을 습득한 후, 타인에게 가해하는 피해-가해 교차 행위양식을 발전시켜나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아이가 따돌림에서 벗어나면 집단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표적을 찾아내 함께 따돌림에 참가하게 되며 그것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 공격 받은 아픔이 응어리가 되어 순환되기 때문이다(Smith & Brain, 2000).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첩을 상호성 지표로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따돌림도 청소년 집단의 중요한 대인행동 중 하나라면, 다른 감정, 특성, 및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상호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적 상호성이 가해-피해 중첩효과를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제기

Olweus(1978)는 아동들의 폭력은 특정 양자(dyads) 사이에서만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집단따돌림 발생의 주요 원인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 때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인간에 발생한 어떤 행동의 원인이 행위자, 표적 혹은 특별한 관계 때문인지를 밝히기 위해 다음의 4인 집단 사례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A가 친구인 B를 때렸다"면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아마도 그 행동(때림)의 원인은 A(행위자), 혹은 B(피해자), 혹은 A와 B의 특별한 관계(관계성) 때문일 것이다. 만약 A는 B, C, D...를 모두 때리면, 그 행동은 A의 어떤 측면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가 A뿐만 아니라 C, D...에게도 맞으면, B는 맞을 짓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피해자가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A는 다른 사람(C, D)은 때리지 않고 유독 B만 때리며, B도 다른 사람(C, D)에게는 맞지 않으나, A에게만 맞는다면, 그 행동의 원인은 A와 B의 특별한 관계 때문일 것이다.

Kenny와 Acitelli(2001)는 집단내 구성원간의 행동교류를 다룬 7개의 연구를 종합하여 재분석한 결과, 특정행동(예: 웃는다)이 행위자 요인 때문에 유발되는 비율이 31%, 특정표적에 의해 유발되는 비율이 2%,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성 때문에 유발된 비율이 35% 가량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의 공격행동을 다룬 Coie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공격행동은 가해자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비율이 11%, 피해자가 유발한 요인 15%, 양자간의 관계성 요인에 의해 유발된 공격행동의 비율이 16%임을 밝혔다. Coie 등의 연구는 공격행동에서 관계성 효과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효과만큼 큰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따돌림 현상의 초점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로부터 그들의 '관계' 변인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만약 특정행동(예: 폭력행동)의 유발요인 중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성 요인의 설명변량이 크다면, 가해자 중심 및 피해자 중심의 집단따돌림 연구는 현상을 밝히는데 충분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즉 지금까지의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의 경우도 가해자 특성이나 피해자 특성을 찾는 연구하는 것은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의 연구에서도 해당 행동의 유발에 기여한 가해자, 피해자 및 양자간의 관계성 효과의 크기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가해자 중심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피해자 중심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하는지, 혹은 양자가 모두 포함된 대인관계 중심의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남녀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행동이 가해자 요인, 피해자 요인, 및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성 요인에 의한 각각의 발생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집단따돌림 행동의 발생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및 관계성 효과의 크기가 남, 여학생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누가 집단따돌림을 시키는가?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즉 어떤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이 집단성원(동료)을 집단따돌림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누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가?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즉 어떤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이 집단성원(동료)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할 표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시사된 집단따돌림의 상호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상대방을 따돌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역시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물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특징들을 비교하는 기존의 연구방법보다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집단내 상호작용(행동이나 지각)을 살펴보는 전혀 새로운 분석틀이 Kenny(Kenny, 1994; Kenny & La Voie, 1984)의 사회관계모형(Social Relations Model)이다. 다음에서는 이모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다.

사회관계모형(Social Relations Model)

실제의 모든 집단 속에서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행동하고 평가한다. 즉 이런 경우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평가자이면서 서로는 상대방에게는 표적인물인 셈이다. 결국 대개의 집단이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자가 여럿이고,

표적인물도 여럿인 자료가 나오는 셈이다. 이처럼 한 집단내의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상대방을 돌아가며 평가하는 방식을 라운드로빈(round robin) 설계(Warner, Kenny, & Stoto, 1979)라 부른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실제집단을 구성하여 각 구성원들의 상호평가에 의한 집단따돌림의 (가해)의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형태의 자료(실제로는 자료메트릭스)가 있어야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효과, 피해자 효과, 및 관계성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자료형태를 다룬 이론 틀은 Kenny(Kenny, 1994; Kenny & La Voie, 1984)의 사회관계모형(Social Relations Model)이며, 이런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통계 패키지가 윈도우용 SOREMO(Kenny, 2003)이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물음과 관련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모형의 주요 기본 통계치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관계모형의 기본 통계치

SOREMO의 주요 결과는 변량과 상관계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량의 경우는 변량분석과 마찬가지로 평정치의 전체변량을 가해자 효과, 피해자 효과, 관계성 효과, 및 오차로 분할된다. 각 효과는 그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상대적 변량(relative variance) 크기가 0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one-sample *t*-test)한다.

가해자 효과 만약 모든 구성원(가해자)들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피해자)에 부여한 집단따돌림 평정치의 평균이 똑 같다면(예: 5.0), 행위자 효과(변량)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종속변인(집단따돌림) 평정에서 가해자 변량이 충분히 크다면, 가해자마다 평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집단따돌림 평가에서 다른 가해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특정 가해자(예: A)가 모든 상대방에 대해 따돌림 의도가 높다면, 가해자 A는 따돌림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 효과 만약 특정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 비해 모든 가해자들로부터 평균적으로 더 높은 혹은 더 낮은 평정을 받게 되면 피해자의 변량이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모든 가해자들(예: B~D)이 다른 피해자 보다는 특정 피해자(예: A)에 대한 따돌림 의도가 높다면, 따돌림은 A가 유발했다는 의미가 된다.

관계성 효과 만약 집단내 집단따돌림에서 특정 가해자(예: B)가 다른 대상들(예: C, D)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특정 피해자(예: A)만을 따돌리고 싶어하고, 다른 행위자들(C, D)은 그 피해자(A)를 따돌리고 싶은 의도가 없다면, 둘 간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 생기는 관계성 성분의 변량이 크게 나타난다. 즉 관계성 효과란 구성원들 간의 일어나는 행동에서 특정 양자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한 변량이다.

개인차 변인과 가해자 효과간의 상관계수: 참여자들이 지닌 개인차 변인(예: 자존감)과 가해자 효과간의 상관계수는 그의 개인차 변인에 따라 그가 다른 구성원들을 집단따돌림 시키려는 경향성이 다름을 알려 주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개인차 변인인 자존감과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효과간 상관이 정적으로 유의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는 다른 구성원들을 따돌림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인차 변인과 피해자 효과간의 상관계수 참여자가 지닌 개인차 변인(예: 자존감)과 피해자 효과간의 상관계수는 그 개인차 변인에 따라 그가 나머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집단따돌림 당할 가능성이 다름을 알려 주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개인차 변인인 자존감과 피해자 효과간 상관이 정적으로 유의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는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해자 효과와 피해자 효과간 상관계수(상호성) 상호성이란 양자관계에서 한쪽의 행동대로 다른 쪽이 대응함을 의미한다. 이 때 행동은 다양한 것으로서 감정(예: 호감), 구체적 행동(예: 집단따돌림), 특성 지각(예: 성격판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해자 효과와 피해자 효과간의 상관이 유의하면 양자간 상호성(Kenny는 이를 일반화된 상호성-generalized reciprocity-라 부름)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가해자 효과와 피해자 효과의 상관이 정적으로 유의하면, 집단따돌림 가해의도가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다른 사람들을 따돌림시키고 싶은 경우, 다른 사람들도 A를 따돌림시키고 싶다는 의미가 된다.

방 법

대 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의 마산시와 창원시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4명을 한 집단으로 만든 20집단 80명, 그리고 여학생 4명을 한 집단으로 만든 20집단 80명, 총 40집단의 16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설 계

본 연구에서는 4인으로 구성된 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나머지 다른 모든 구성원들을 서로 평가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설계를 사용하였다. 이 설계는 Kenny(Kenny, 1994; Kenny & La Voie, 1984)가 라운드 로빈(round robin) 방식이라 부르는 것이다(표 1 참조).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라운드 로빈 방식의 타인평가

평가자	표적대상			
	A	B	C	D
A		타인1 평가	타인2 평가	타인3 평가
B	타인1 평가		타인2 평가	타인3 평가
C	타인1 평가	타인2 평가		타인3 평가
D	타인1 평가	타인2 평가	타인3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같은 반 4명의 동성 학생들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사전에 무작위로 구성된 4명의 학생들을 방과 후에 학교상담실에 오도록 한 다음, 각각에게 A, B, C, D의 명찰 중 하나씩 가슴에 달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자는 이들을 등글게 모여 앉을 수 있도록 사전에 배치된 좌석에 각각 앉도록 하였다. 이들이 좌석에 착석한 후, 별도의 상호작용 없이 대면 상태에서 먼저 자신의 성격특성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물음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자신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을 서로 돌아가며 “자신이 평소에 그를 어느 정도 집단따돌림하고 싶은지”를 묻는 설문지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1에서 보듯, 집단성원 A는 개인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평가를 한 후, 먼저 타인평가 설문지에 B를 평가하고, 그 다음 C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D를 평가하였다. 집단성원 B는 개인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평가를 한 후, 첫 번째 타인평가 설문지에 A를 평가하고, 그 다음으로 C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D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4인 집단에서 평가자 A~D의 기호배정이 무작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집단 내에서 타인평가의 순서를 상쇄시키는 절차는 사용하지 않았다.

도 구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측정 설문지, 성격 5요인에 근거한 자기평가 설문지, 집단내 모든 구성원 각각에 대한 집단따돌림의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로 총 7장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였다.

자존감 측정 자존감 측정은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Rosenberg(197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나 자신이 만족스럽다'와 같이 정적인 방향으로 묻는 질문 5개 문항과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와 같이 부적이 방향으로 묻는 질문 5개 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피험자들에게는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7점)로 표시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 Rosenberg(1979)의 4점 척도를 박미영(1999)이 변별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7점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α)는 .78이었다.

성격의 5요인 측정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과 관련되는 성격특성을 찾기 위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였다.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NEO 인성검사(Costa & McCrae, 1992)의 변안검사(유태용, 김명연, 이도형, 1997)를 참조하여 각 요인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들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외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는 자주 웃고 명랑하며 낙천적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며 쾌활한 편이다" 등이었다. 신경증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는 급하면 남에게 의존하려 하고 쉽게 낙담한다", "나는 나중에 후회하기는 하지만 당장의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등이었다. 개방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는 광범위한 영역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색적이고 다양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등이었다. 성실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는 단정하고 깔끔하며 조직적이다", "나는 윤리 원칙을 엄격히 지키려 애쓰고 도덕적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등이었다. 친화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나는 타인에 대해 관심과 동정심이 많다", "나는 타인을 배려하고 필요 시 기꺼이 도우려 한다" 등이었다. 피험자들에게는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7점)로 표시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성격특성의 신뢰도 계수는 외향성(α)은 .65, 신경증(α)은 .42, 외향성(α)은 .65, 개방성(α)은 .53, 친화성(α)은 .64, 성실성(α)은 .65로서 문항 수가 작아 신뢰도가 대체로 높지 않았다.

집단따돌림 의도 측정 집단따돌림 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광금주(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근거로 총 7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본 연구에선 실제로 발생한 집단 따돌림 행동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집단따돌림 의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 7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솔직히 B에

게 심한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솔직히 B를 일부러 무시하고 싶다. 나는 솔직히 B를 어떤 모임에 끼워 주고 싶지 않다, 나는 솔직히 B를 때리거나 괴롭히고 싶다, 나는 솔직히 다른 친구들이 B를 싫어했으면 좋겠다, 나는 솔직히 B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 싶다, 나는 솔직히 다른 친구들과 함께 B를 왕따시키고 싶다" 등이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7점)로 표시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7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α)는 .94이었다.

결 과

집단따돌림 발생원천에 대한 성분분석

집단따돌림 의도를 측정하는 7문항에 대한 상대방 평가를 근거로 집단따돌림의 발생 원천을 가해자 요인, 피해자 요인 및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성 요인으로 성분분할한 결과가 표 2이다.

표 2. 집단별 집단따돌림 의도의 가해자, 피해자 및 관계성 요인의 성분비율

	가해자	피해자	관계성	오차
남자집단($G=20$)	.104	.242+	.385*	.270
여자집단($G=20$)	.212+	.000	.516**	.273
전체 집단($G=40$)	.158	.110	.456**	.277

수치는 전체변량 중 각 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임. + $p<.10$, * $p<.05$, ** $p<.01$ (일방 검증), $df=G-1$

표 2에서 보듯,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요인과 피해자 요인을 남녀 집단별로 비교 분석해 보면, 남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은 가해자 요인(10.4%)보다 피해자 요인(24.2%)이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가해자 요인(21.2%)이 피해자 요인(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은 주로 피해자가 유발하는 경향이 큰 반면, 여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은 주로 가해자가 유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집단의 경우 집단따돌림의 발생원천은 가해자 요인이 15.8%, 피해자 요인이 11.0%, 양자간의 관계성 요인이 45.6%이었다. 이 결과로 볼 때 집단따돌림은 가해자와 피해자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정도는 엇비슷하였고,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집단따돌림 의도를 측정하는 7문항 각각의 문항별 가해자 요인과 피해자 요인의 설명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이다.

표 3. 집단따돌림 측정문항별 가해자, 피해자 및 관계성 요인의 성분비율

집단따돌림 문항	가해자 피해자 ¹⁾ 관계성		
나는 솔직히 ○○에게 심한 욕을 하고 싶을 때가 많다.	.197*	.181*	.622
나는 솔직히 ○○를 일부러 무시하고 싶다.	.145*	.118	.737
나는 솔직히 ○○를 어떤 모임에 끼워 주고 싶지 않다.	.190*	.099	.711
나는 솔직히 ○○를 때리거나 괴롭히고 싶다.	.285*	.129*	.585
나는 솔직히 다른 친구들이 ○○를 싫어했으면 좋겠다.	.143	.116	.742
나는 솔직히 ○○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 싶다.	.275*	.096*	.629
나는 솔직히 다른 친구들과 함께 ○○를 왕따 시키고 싶다.	.200*	.063	.737

단일집단 t-검증($df=G-1$), * $p < .05$ (일방검증).

표 3에서 보면, 대체적인 문항들에서 가해자 요인이 피해자 요인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7문항 중 한 문항(특히 친구들이 그를 싫어했으면 좋겠다)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가해자의 설명 비율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s < .05$). 특히 “상대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 “상대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동”, “상대를 왕따시키는 행동” 등에서는 가해자 요인이 피해자 요인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반면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 “상대를 싫어하는 행동”, “모임에 끼워주지 않는 행동” 등에서는 피해자 요인도 가해자 요인과 함께 유의하였다. 참고로 표 3에서 관계성 요인은 양자간의 관계성과 오차가 혼입되어 있어 순수한 관계성 효과로 볼 수 없다.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성격 특성(누가 집단따돌림을 시키는가?)

개인의 5가지 성격특성이나 자존감이 집단따돌림 가해의도와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따돌림 의도와 가해자의 성격특성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가 표 4이다.

표 4. 가해자의 성격 및 자존감과 집단따돌림 의도간의 상관 계수

성격 변인	남학생(n=60)	여학생(n=60)	전체 집단(n=120)
외향성	-.23	-.02	-.11
개방성	-.01	-.09	-.05
성실성	-.13	.14	.02
친화성	-.16	.24+	.06
신경증	.35*	-.02	.14
자존감	-.41*	.05	-.18+

+ $p < .10$, * $p < .05$ (양방검증), $df=N-G-1$

위의 표 4에서 가해자의 성격변인과 집단따돌림 행동의도간의 상관계수가 +인 경우는 가해자의 해당특성이 클수록 상대방을 집단따돌림 시키는 의도가 큰 것이고, -인 경우는 그 특성이 작을수록 상대방을 집단따돌림 시키는 의도가 크음을 의미한다.

먼저 남녀 집단별 분석에서는 먼저 남학생의 경우는 내향적일수록($r=-.23$), 자존감이 낮을수록($r=-.41$), 동료를 집단따돌림 시킬 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증이 높을수록 상대방을 집단따돌림 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35$). 즉 열등감이 크고, 충동적이며, 심약한 마음을 지닌 남학생일수록 집단따돌림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계적이긴 하지만, 예상외로 여학생의 경우는 친화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따돌림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78)=.24, p < .10$]. 특히 신경증은 여자 가해자($r=-.02$)보다는 남자 가해자($r=.35$)에서 집단따돌림과 관련 있었고 [$Z=2.06, p < .01$], 자존감도 여자 가해자($r=.05$)보다는 남자 가해자($r=-.41$)에서 집단따돌림과 관련되었다 [$Z=2.35, p < .01$].

특히 전체 집단의 분석에서 가해자의 5가지 성격특성 및 자존감 중 자존감이 가해행동과 경계적으로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 [$r(118)=-.185, p < .10$]. 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따돌림 할 의도가 크음을 의미한다.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성격 특성(누가 따돌림을 당하는가?)

집단따돌림이 피해자의 5가지 성격특성이나 자존감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단따돌림 의도와 그들의 성격특성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이다.

1) 집단이 분석단위이기 때문에 각 추정치가 집단마다 상당히 다른 경우는 그 효과가 큰 경우에도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효과가 작아도 추정치가 집단에 걸쳐 일치성이 높으면 유의할 수 있다.

표 5. 피해자의 성격 및 자존감과 집단따돌림 의도간의 상관계수

성격 변인	남학생(n=60)	여학생(n=60)	전체집단(n=120)
외향성	-.07	.00	-.08
개방성	-.02	.00	-.11
성실성	-.06	.00	-.08
친화성	-.06	.00	.12
신경증	.19+	.00	.10
자존감	-.20+	.00	-.24*

+ $p < .10$, * $p < .05$ (양방검증), $df = N - G - 1$

표 5에서 보듯, 남녀 집단별 분석에서는 남학생 집단에서 신경증($r = .19$)과 자존감($r = -.20$)이 경계적으로 집단따돌림의 피해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ps < .10$). 즉 열등감이 크고 충동적이며 심약한 사람이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았다. 흥미 있게도 남학생 집단에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집단따돌림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r = .35$)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될 가능성($r = .19$)도 높았다($ps < .01$)

전체집단의 경우 5가지 성격특성은 집단따돌림의 피해행동과 무관하였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118) = -.24$, $p < .05$).

집단따돌림의 상호성

집단따돌림을 다룬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집단따돌림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따돌림의 가해자가 한편으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따돌림의 상호성 크기를 알아본 결과가 표 6이다.

표 6. 집단별 집단따돌림 의도의 상호성 크기

	집단따돌림 상호성
남학생 집단	.62*
여학생 집단	.00
전체 집단	.27*

* $p < .05$ (양방검증), $df = G - 1$.

표 6에서 보듯, 특히 전체 집단의 경우 집단따돌림의 상호성

이 유의하였다($r(118) = .27$, $p < .05$). 이는 집단 내에서 A가 타인을 집단따돌림 시킬 의도가 높은 경우, 다른 사람들도 A를 따돌리고 싶은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집단따돌림의 상호성은 남학생 집단($r = .62$)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집단따돌림의 상호성($r = .00$)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둘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Z = 3.87$, $p < .01$). 즉 동료를 남학생의 경우에서만 집단따돌림을 시키는 사람이 다시 그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가능성은 남학생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모형(Kenny, 1994)을 적용하여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나타나는 집단따돌림 행동의 발생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및 관계성 효과의 크기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그 발생원천의 비율이 남녀 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집단따돌림에 관련된 개인차 변인(예: 성격과 자존감)이 가해자 요인과 관련되는지 혹은 피해자 요인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의 상호성 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의도를 측정된 각각의 문항별 분석에서 전체적으로 집단따돌림은 가해자와 피해자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정도보다는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를 다룬 연구들(Coie, et al., 1999; Olweus, 197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Coie 등(1999)의 연구에서 초등학생(평균연령 9.3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공격성)은 가해자 요인에 의해 약 11%, 피해자 요인에 의해 약 15%,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성 관계 의해 약 16%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만약 집단따돌림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간 특별한 관계에 의해 유발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집단따돌림 치료프로그램의 선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집단따돌림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가해자 중심 혹은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보다는 양자가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남녀별 분석에서는 남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은 피해자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가해자 요인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은 주로 피해자가 유발하는 경향이 큰 반면, 여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은 주로 가해자가 유발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집단따돌림 발생은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고, 여학생의 경우

는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행 집단따돌림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집단따돌림 치료프로그램의 초점에 차이를 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남학생의 경우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집단따돌림 관련 프로그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면, 성에 따라 가해자 혹은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관련 특성들의 분석에서는 (특히 남학생은) 내향적일수록, 신경증적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집단따돌림 가해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문헌들에서도 특히 남학생의 경우 공격성과 충동성, 힘과 지배에 대한 강한 욕구, 적개심, 스트레스, 및 불만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과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혜원 등, 2000b; 이규미 등, 1998; 조성호, 1999; Olweus, 1994; Smith, 1991). 이러한 심리의 분출구로서의 희생양을 찾아 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 중 열등감이 크고, 충동적이며, 심약한 마음을 지닌 사람일수록 집단따돌림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집단따돌림 가해자 특성을 다룬 연구들(예: Schafer et al., 200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흥미 있게도 남학생 집단에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집단따돌림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성격변인들은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 집단따돌림 피해자 특성을 찾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예: 김용태 등, 1997)에서 암시한 집단따돌림의 상호성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상호성은 남학생 집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집단따돌림의 상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집단따돌림을 시키는 남학생이 다시 따돌림 당할 가능성은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남녀별 집단따돌림에 관한 분석결과로 볼 때, 집단따돌림 양상이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상당히 다른 특성을 띄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발생원천을 비율적으로 분류해 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의 집단따돌림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집단따돌림 가해자 혹은 집단따돌림 피해자를 선정하여 경우를 분리하여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특성 혹은 피

해자의 특성을 살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집단따돌림과 같은 현상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 유발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집단따돌림 연구에서 각각 가해자 피해자 특성을 다루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대인관계 그 자체를 확인하는 연구로 연구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따돌림은 가해자가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 간의 상호성을 확인해 보았다. 이런 결과들은 집단따돌림의 원인 확인과 그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는 집단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 수가 적고, 특정지역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이므로,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은 다른 연령층의 연구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들(예: 김혜원 등, 2000b)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은 그 양상뿐 아니라 발생 원인에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빅 5의 성격요인을 측정함에 있어, 전체 문항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 차원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만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빅 5의 성격측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집단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행동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따돌림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집단따돌림 행동의도와 실제 집단따돌림 행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자들(예: 김용태 등, 1997; 황성숙, 1998)은 집단따돌림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황성숙(1998)은 집단따돌림을 소외형, 협박형, 놀림 조롱형, 심한 장난형, 강제형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피해자, 및 양자간의 관계성 효과의 크기를 집단따돌림의 유형별로 알아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을 하나의 범주가 아닌 언어형, 소외형, 신체폭력형 등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집단따돌림 발생에서 가해자, 피해자, 및 양자간의 관계성 효과의 크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언어형 집단따돌림은 가해자 요인이 큰 책임이 있는 반면, 소외형 집단따돌림은 피해자 요인이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떤 유형의 집단따돌림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격 요인이 관련되는지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단따돌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가해자 중심으로 할 것

인지, 피해자 중심으로 할 것인지, 혹은 양자가 모두 포함된 대인관계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희, 이은희, 임은정(2002).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45-460.
- 고재홍(1997). 우리는 받은 만큼만 주는가? 갈등이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53-75.
- 고재홍, 김명렬(2004). 청소년 교우간 성격 유사성, 상호성, 이해 및 호감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1), 53-64.
- 구본용(1997).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곽금주(1999). 한국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학교폭력의 학술적, 사회적 대안. *한국심리학회 발표논문집*.
- 김용태, 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청소년 대화의 광장(편),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혜원, 이해경(2000a).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김혜원, 이해경(2000b).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관련경험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탐색: 초, 중, 고등학생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1), 183-210.
- 박미영(1999).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 영역별 우열 및 자기수용과 전반적인 자기존중감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1997).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0(1), 85-102.
- 이규미, 문형준, 홍혜영(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현상.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 이상균(1998).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호(1999).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의 허와 실.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모색 심포지엄 발표집. 한국심리학회.
- 황성숙(1998). 학교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oulton, M. J., & Smith, P. K.(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15-329.
- Coie, J. D., Cillessen, A., H., Dodge, K. A., Hubbard, J. A., Schwartz, D., Lemerise, E. A., & Bareman, H.(1999). It takes two to fight: A test of relational factors and a method for assessing aggressive dyads. *Child Development*, 35, 1179-1188.
- Costa, P. T., & McCrae, R. R.(1992). *NEO-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Ellis, A.(1973). *Humanistic psychotherapy: The rational-emotive approach*. New York: Julian Press.
- Folkes, V. S., & Sears, D. O.(1997). Does everybody like a lik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505-519.
- Heaven, P. C. L.(1994). *Contemporary adolescence: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Macmillan Education, Australia Pty Ltd.
- Kenny, D. A.(1994). *Interpersonal perception: A social relations analysis*. NY: Guilford.
- Kenny, D. A.(2003). <http://users.rcn.com/dakenny/srmp.htm>
- Kenny, D. A., & Acitelli, L. K.(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439-448.
- Kenny, D. A., & La Voie, L.(1984). The social relations model. In L. Berkowitz(Ed.), *Advances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8, pp. 142-182). Orlando, FL: Academic Press.
- Matsui, T., Kakuyama, T., Tsuzuki, Y., & Onglatgo, M.(1996). Long-term outcomes of early victimization by peers among Japanese male university students: Model of a vicious cycle. *Psychological Reports*, 79, 711-720.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ying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Olweus, D.(1993). *Bullying in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 Olweus, D.(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1171-1190.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igby, K.(1997). Attitudes and beliefs about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Irish Journal of Psychology*, 18, 202-220.
- Rigby, K., & Slee, P. T.(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ur and attitudes towards victim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 615-627.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Schafer, M., Korn, S., Smith, P. K., Hunter, S. C., Mora-Merchan, J. A., Singer, M. M., & Meulen, K.(2004). Lonely in the crowd: Recollections of bully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79-394.
- Schafer, M., Werner, N. E., & Crick, N. R.(2002). A comparison of two approaches to the study of negative peer treatment: General victimization and bully/victim problems among German school studen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43-248.
- Sharp, S. (1996). Self-esteem, response style and victimization: Possible ways of preventing victimization through parenting and school based training programm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7, 347-357.
- Smith, P. K.(1991). The silent nightma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The Psychologist*, 4, 243-248.
- Smith, P. K., & Brain, P.(2000). Bullying in school: Lessons from two decades of research. *Aggressive Behavior*, 26, 1-9.
- Smith, P. K., Singer, M., Hoel, H., & Cooper, C.(2003). Victimization in the school and the workplace: Are there any link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4, 175-188.
- Tedeschi, J. T., Gaes, G. G., & Rivera, A. N.(1977) Aggression and the use coercive power. *Journal of Social Issues*, 33, 101-125.
- Warner, R, Kenny, D. A., & Stoto, M.(1979). A new round robin analysis of variance for social interaction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42-1757.

원고접수일 : 2005. 4. 25.

수정원고접수일 : 2005. 6. 24.

게재결정일 : 2005. 7. 14.

A Component Analysis on the Causes of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 Application of Social Relations Model

Na-Young Park

Jae-Hong Ko

Ky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o what proportions of bully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take place because of actor(harmer), victim, and their unique relationship. Also it was aim to search whether if students' personal variables, including Big-5 personality traits and self-esteem were related with bullying(intention). Forty four-person same-sex groups were consisted with one hundred and sixty middle school students(80 boys and 80 girls). After they filled the prepared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ir self-esteem and five personality traits, then they rated each of group peers on bullying scale by round robin method. According to Kenny(1994)'s Social Relations Model, intention of bullying was divided to the components of harmer, victim, and their relationship components. We used Kenny(2003)'s statistical package of SOREMO to analysis 40 groups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e present were followed: First, harmer effect was about 16%, victim effect was about 11%, and their relationship effect was about 46%. This result implied that bullying was far more triggered by their unique relationship than by harmer or by victim did. Second, the students with low self-esteem bullied others more. Especially, the bullying behaviors of the boys had to do with their personality traits. Those who were introvert and felt worse about themselves bullied others more and those who were more neurotic had a higher tendency to bully others. Third, the students with low self-esteem were more likely to be bullied from peers. In the boys, those who was high in neurosis and low in self-esteem tends to trigger bullying from peers. But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bullying and personality among girls, Finally there is an obvious evidence the reciprocity of bullying among boys.

Key words : *bullying, harmer effect, victim effect, relationship effect, reciprocity, Social Relations Model*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에 대한 연구:

-서울시 거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 명 선*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조 선 화
한서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하위 ‘아버지 상(像)’과 복합적인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측정도구는 조선화, 최명선(2004)의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Cronbach’s α , 기술통계량, 군집분석, t-test,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이 강하게 지각하고 있는 하위 아버지 상(像)은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아버지’나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그리고 ‘상담자 같은 아버지’이었다. 그리고 복합 이미지로는 ‘울타리 같은 아버지 상(像)’, ‘완벽한 슈퍼맨 아버지 상(像)’ 집단과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 상(像)’ 집단 그리고 ‘삶에 찌든 아버지 상(像)’ 집단, ‘늙고 전통적인 아버지 상(像)’ 집단,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 집단과 ‘최악의 아버지 상(像)’ 집단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들은 아버지에 대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미지가 강하였고 복합 이미지로는 전반적으로 ‘어린애 같은 아버지’와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로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남자 청소년은 아버지가 삶에 지쳐 보이고,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로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복합 이미지로는 전반적으로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과 ‘삶에 찌든 아버지 상(像)’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에 비해 아버지를 다가서기 더 어렵고, 생활 속에서 삶에 지친 아버지의 모습을 더 강하게 지각하고 있었고, 복합 이미지도 유사한 맥락을 보여주었다. 중학생들에게 강하게 비친 아버지의 복합적인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과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 상(像)’ 이었고 고등학생들은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과 ‘삶에 찌든 아버지 상(像)’을 더 많이 형성하고 있었다.

주요어 : 청소년, 아버지, 상(像)

‘아주 오래전, 내가 울려다 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내 키가 그보다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중략)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러 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도

그가 앉아 설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남은 방법은 침묵뿐이다.’

가수 신혜철의 ‘아버지와 나’라는 곡이다. 위대해 보이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 모습과 성장 후 자신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작아진 모습, 그리고 현대사회 가족 내의 지치고 힘을 잃은 아

* 교신저자 : 최 명 선, (143-193) 서울 광진구 자양3동 784-1 대동아파트 101동 1901호
메일주소 : im4ever31@hanmail.net

버지의 모습도 읽을 수 있다. 현대사회의 아버지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권위적이고 무서우며, 전지전능한 이미지가 아니다. 현대사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명선(1998)은 1997년 IMF 한파 시에 아동 607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조사하였다. 아동들은 아버지가 힘들어 보인다(233명), 불안해 보이고 걱정을 많이 한다(133명), 술과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잠을 못 주무신다(58명),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45명), 어머니와 자주 싸우신다(6명) 등의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정순화, 김시혜(1996)가 보고한 아동의 동시에 나타난 아버지 모습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아버지는 바쁘고 지치고 피곤해 보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긍정적으로 변화된 아버지 모습도 간과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가족의 부양자이며 책임자, 해결사와 같은 유능한 존재이고 자상하고 애정적인 모친적 모습을 지녔으며 아동과 함께 놀아주고, 도와주며, 행동모델의 모델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멋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되었다(정순화, 김시혜, 1996).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 상(像)’을 연구한 정은희(1997)의 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을 요인분석하여 ‘존경스런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꾸중만 하시는 아버지’, ‘일만하시는 아버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조선화, 최명선(2004)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상(像)’을 연구한 결과,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친구같은 아버지’, ‘상담자 아버지’,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가정적인 아버지’, ‘삶에 지친 아버지’,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등 총 10개의 요인구조로 이루어졌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아버지의 모습은 과거의 권위와 위엄 있는 모습에서 힘들고 지친 모습과 스트레스로 찌든 모습으로, 그리고 처자식에게 직접적으로 애정표현을 하지 않았던 모습에서 자상하고 따스한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현대사회의 아버지 역할 변화는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제까지 가정에서 수행해 오던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 및 책임을 수행하게 되었다(조선화, 1998). 이제 아버지는 가정을 벗어나 밖에서도 친구이자 교사이고, 선배나 상담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때로는 버팀목으로 때로는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아버지 역할과 모습은 청소년들의 심리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조선화, 최명선, 2004). 이러한 본 연구자의 추측은 아래의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고 있다. 아버지의 역할과 양육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사회적 능력, 자아정체감, 성 정체감과 진로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금정임, 1995; 김경미, 2003; 노성동, 2004; 문성미, 2001; 손미리, 1997; 은주영, 2002; 이순영, 2003; 이현, 1999; 임정하, 1994),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성격특성이나 사회성 발달, 그리고 문제행동이나 폭력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경원, 1999; 남정홍, 2001; 장미숙, 2000; 최영자, 1999), 아버지의 직업이나 실적이 청소년 자녀의 진로나 심리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류진아, 1999; 이은정, 2001; 정석희, 2003)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이루어져 온 청소년 발달과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영유아나 아동에 비해 그리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아버지의 역할이나 양육행동과 태도, 의사소통과 같은 변인이 청소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로 다루어졌다. 변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태도, 의사소통방식, 역할행동 등은 청소년이 아버지를 실제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여준 것으로 행동을 이끌어내는 1차적인 지각이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지각심리학에서는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취하는 행동이 달라진다고 한다. 이를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아버지 상(像)’과 관련해 보면, 청소년이 자신의 중요한 가족 환경인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영향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해 보면 청소년이 아버지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 상(像)’을 그려내고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 상(像)’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몇몇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바라는 ‘아버지상(像)’에 대해 연구한 지정우(1993)는 ‘사랑과 이해로서 자녀들을 돌봐주는 아버지’,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는 아버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아버지’를 가장 바라는 ‘아버지상(像)’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아버지 상(像)’을 측정도구를 이용한 연구로는 김명희(1996)가 부친상(像)에 대한 3세대 간의 요인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조선화, 최명선(2004)도 현대사회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여 소개하였다. 김영희, 최명선은(2001) 의미분석법을 이용해 청소년의 부모 이미지를 연구하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버지’에 대해 능력이나 활동성보다는 평가를 가장 좋게 하였다.

한편 ‘아버지 상(像)’과 관련변인을 직접 연구한 것은 정은희

(1997)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은 6학년 아동에 비해 아버지에 대해 더 존경스럽고, 더 자상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고,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아버지는 꾸중만 하고, 일만하시는 사람으로 더 강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순화, 김시혜(1996)는 남이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부양자적 이미지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여아는 애정적, 양육적 아버지 역할 그 자체에 초점을 둔 이미지를 더 강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김영희, 최명선은(2001)이 의미분석법을 통해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아버지'를 더 활동적이라고 지각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의 능력과 평가, 활동성의 세 가지 이미지 차원은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몇몇 연구로는 '아버지 상(像)'과 자녀의 성, 연령과의 관계를 결론짓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비친 다양한 아버지 이미지에 대한 성과 연령차를 밝힌 연구는 더욱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아버지 상(像)이나 이미지는 주로 단일 차원의 이미지를 추출하였고, 한 인간이 특정대상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여러가지의 강하고 약한 복합 이미지를 동시에 추출해 내는 작업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즉, 아버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복합 적이고 다차원적인 이미지를 추출해냄으로써, 현존하는 대상간의 관계(아버지와 청소년자녀)를 보다 실질적으로 밝힐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에 대해 하위 이미지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이미지도 분석해내고, 이는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복합적 아버지 상(像)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이용할 것이다. 즉, 아버지 상(像)의 하위변인들을 기준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집단을 분류해내고, 이 집단들이 어떠한 공통된 특성을 보이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을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기존의 '아버지 상(像)' 연구를 보완하고,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형성을 위한 이론적 지침서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문제를 줄이는데 필요한 이론적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 1-1).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은 하위변인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 1-2). 청소년이 지각하는 복합적인 '아버지 상(像)'은 어떠한

- 것이 있는가?
- 2). 1)에서 살펴본 '아버지 상(像)'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1)에서 살펴본 '아버지 상(像)'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45.25%, 고등학생이 54.75%이었다.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48.00%, 여자 청소년이 52.00%이었으며, 자녀수는 외동이 8.52%이었고 2명인 경우가 69.92%로 가장 많았고 세 명이 17.54%, 네 명이상이 4.01%로 나타났다. 형제순위는 첫째가 58.19%로 가장 많았고, 둘째가 34.26%, 셋째가 6.89%, 넷째가 0.76%이었다.

도 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버지 상(像)'척도는 조선화, 최명선(2004)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하위변인에 대해 본 연구에서 구한 내적합치도는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가 .96,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88,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89, '친구같은 아버지' .77, '상담자 아버지' .88,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72,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62, '가정적인 아버지' .73, '삶에 지친 아버지' .66,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84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문항구성과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45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4년 7월 2에서 7월 9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수행하였다. 회수된 총 438부 중 응답이 부실한 38부를 제외한 400개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아버지 상(像)'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하위변인들에 대해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하위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군집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의 특성

1) 청소년이 지각하는 하위 '아버지 상(像)'

표 1. 청소년이 지각하는 하위 '아버지 상(像)'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평균	표준편차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3.59②	0.67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3.17⑤	0.87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3.41④	0.91
친구같은 아버지	2.72⑨	0.81
상답자 아버지	3.51③	0.82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3.17⑤	0.85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2.98⑧	0.81
가정적인 아버지	3.17⑤	0.81
삶에 지친 아버지	2.68⑩	0.81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3.86①	0.77

표 1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 하위 이미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이미지는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아버지였고, 다음으로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였으며, 상답자 같은 아버지였다. 이와는 반대로 삶에 지친 아버지나 친구같은 아버지,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청소년이 지각하는 복합적인 '아버지 상(像)'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복합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아버지 상(像)'을 추출하고 그 특성에 맞는 집단 명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 사용된 10개의 하위변인은 각기 다른 측정단위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중요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평균 0, 표준편차를 1로 하는 정상분포에 따른 표준점수로 전환하였다. 또, K 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해진 군집의 수를 지정 하되 먼저 군집 수를 2개 이상으로 지정해 준 다음, 생성된 군집을 모두 검토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고 군집의 특성이 가장 명확한 결과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 상(像)' 군(群)은 7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변량분석을 통해 군집의 타당성을 알아본 결과 10개의 하위변인은 모두 7개의 집단 간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10개의 하위변인은 7개의 집단을 분류하는데 유용한 변수이며 분류된 집단은 타당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는 각 집단에 해당하는 10개 하위변인의 표준점수와 표준편차, 그리고 일원변량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고,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집단별 점수분포를 도식화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표 2와 그림들을 참고하여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맞는 군집명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표 2.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 집단별 표준화된 점수

표준점수(Z)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집단7	F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073 (.72)	1.524 (.43)	.519 (.49)	.288 (.58)	-1.396 (.74)	.297 (.75)	-.735 (.42)	134.589***
'아버지 상(像)' 하위변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369 (.70)	1.136 (.78)	.809 (.64)	.467 (.59)	-1.230 (.86)	-.677 (.88)	-.334 (.52)	75.413***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606 (.72)	1.020 (.79)	.516 (.67)	.035 (.63)	-1.196 (.65)	.639 (.53)	-.299 (.56)	47.247***
친구같은 아버지	-.433 (.68)	.743 (1.09)	.857 (.67)	.407 (.63)	-1.369 (.65)	-.995 (.53)	.031 (.56)	74.255***

표준점수(Z)	집단							F
	집단1 M(SD)	집단2 M(SD)	집단3 M(SD)	집단4 M(SD)	집단5 M(SD)	집단6 M(SD)	집단7 M(SD)	
상담자 아버지	.080 (.78)	1.406 (.46)	.581 (.56)	.351 (.63)	-1.508 (.67)	-.056 (.74)	-.595 (.49)	112.100***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141 (.76)	1.322 (.77)	.300 (.80)	.330 (.86)	-1.099 (.75)	-.388 (.91)	-.373 (.64)	45.030***
'아버지 상(像)' 하위변인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828 (.65)	1.068 (.89)	-.464 (.83)	.345 (.95)	-.419 (.90)	.839 (.79)	-.150 (.65)	36.439***
가정적인 아버지	-.368 (.77)	1.067 (.81)	.648 (.64)	.404 (.75)	-1.424 (.69)	-.729 (.83)	-.087 (.58)	67.256***
삶에 지친 아버지	-.468 (.68)	-.237 (1.09)	-.927 (.62)	1.306 (.64)	.214 (.77)	.180 (.93)	.093 (.72)	47.462***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576 (.60)	1.174 (.42)	.374 (.69)	.315 (.68)	-1.130 (.84)	.452 (.64)	-.891 (.58)	94.606***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1은 '성숙한 인격의 아버지'와 '상담자 아버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와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의 이미지만이 표준 평균 0을 상회하고 나머지는 거의 평균보다 낮은 음의 값을 취하는데, 그 중 두드러진 특징으로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의 모습이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집단 1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아버지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다가서기에 편안하면서, 상담자와 같이 감싸주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능력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 1을 '울타리 같은 아버지 상(像)'을 지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2는 삶에 지친 아버지 모습을 제외한 모든 하위 이미지들이 평균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인다. 그 외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아버지의 이미지가 가장 높고,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이미지가 높은 값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요약하면 집단 2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매우 성숙하시고, 자녀를 사랑해주고, 효성이 지극하시며, 친구나 상담자 같고,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으며 가정적이고, 가족의 부양자로서도 훌륭하실 뿐만 아니라 삶에 지친 모습도 별로 보여주지 않는, 다가서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완벽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집단 2는 '완벽한 슈퍼맨 아버지 상(像)'을 지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3을 참고하면 집단 3은 집단 2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이미지의 강도가 낮고,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의 이미지가 평균이하의 값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집단 2가 성숙한 인격의 아버지와 상담자 같은 아버지가 높았다면 집단 3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와 친구 같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집단 3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아버지에게 전반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처럼 편안하고, 다가서기에 어렵지 않으며, 자신에게 애정표현을 많이 해주는 사람으로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 3을 '애정적이고 편안한 아버지 상(像)'집단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4는 아버지 이미지가 모두 평균 0을 조금 상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삶에 지쳐 보이는 아버지 상(像)은 매우 강하게,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이 집단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아버지에게 대한 이미지가 나쁘진 않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삶에 지쳐 힘들어 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지런히 챙겨드리지도 못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집단 4를 '삶에 지친 아버지 상(像)'을 가진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5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버지 이미지들이 모두 평균 0보다 훨씬 낮은 극단적인 음의 값을 취하며 삶에 지친 아버지 모습만 평균을 상회한다. 이 집단의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않고, 나에게 애정적으로 대해주지도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지도 않고, 친구나 상담자처럼 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며, 부양자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삶에 지쳐 보이기만 하고, 다가서기도 힘든 사람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집단을 '최악의 아버지 상(像)'을 가진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6은 표준 평균 0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성숙한 인격의 아버지와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그리고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와 삶에 지친,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이미지는 높은 편에 속하고, 나머지 나를 사랑

해 주시는 아버지, 친구 같고, 상담자 같으며,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그리고 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는 낮은 편에 속한다. 즉, 이 집단의 청소년들은 아버지에 대해 긍·부정적인 특징이 혼재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옳고 바르고, 권위적이며, 삶에 지쳐 힘들면서도 가족의 부양자 역할을 잘 수행하시는 아버지 모습은 강하게, 애정적이고, 자상하며, 젊고 능력 있는 현대적인 이미지는 약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집단의 청소년들의 아버지들은 항상 옳고 바른 모습, 다가서기 어렵고, 삶에 지쳐 힘들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지만 자녀들에게 직접 애정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친구처럼 놀이상대가 된다거나 현대의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하여 상담자 역할을 하기도 힘든 분들의 일 것이다. 따라서 이 집단을 ‘늙고 전통적인 아버지 상(像)’을 가진 집단이라고 명명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7은 친구 같은 아버지와 삶에 지친 아버지 이미지만 평균 0을 조금 상회하고 나머지는 모든 평균 이하의 음의 값을 취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성숙한 인격의 아버지나 상담자 같은 아버지, 그리고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모습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낮은 특징을 보여준다. 즉, 이 집단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인격적 성숙이나 상담자 역할이나 부양자 역할 이미지가 낮고 친구 같은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강해, 성인 가족구성원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을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을 가진 집단이라고 명명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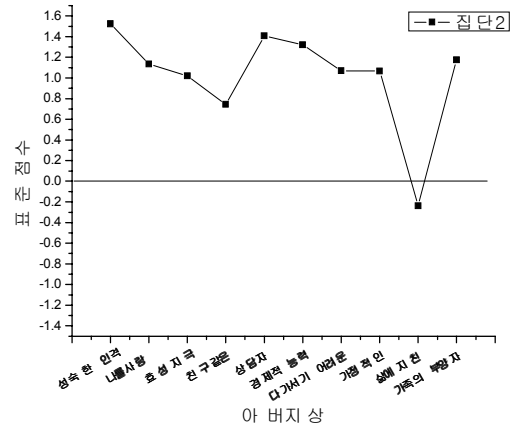


그림 2. 집단 2의 하위변인별 표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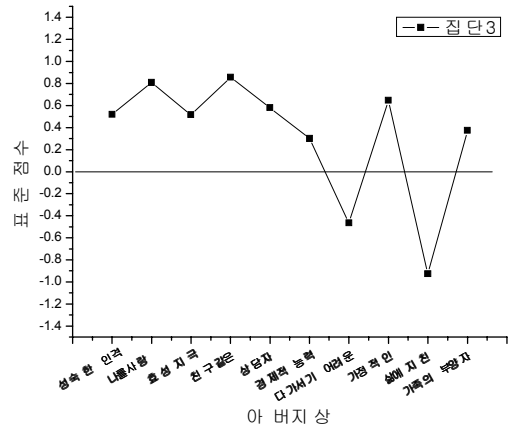


그림 3. 집단 3의 하위변인별 표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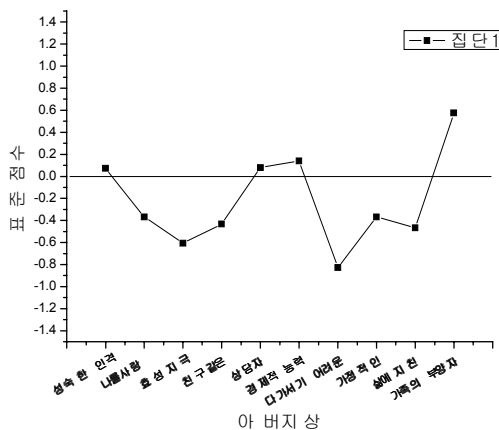


그림 1. 집단 1의 하위변인별 표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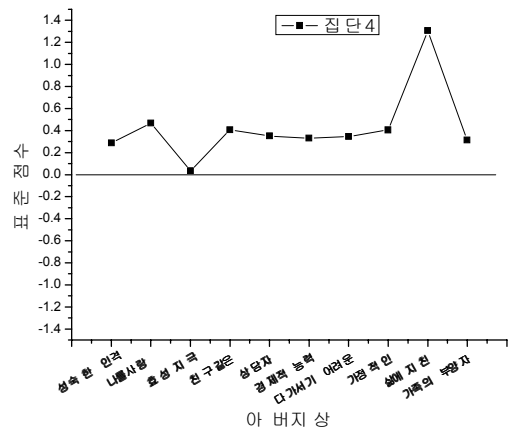


그림 4. 집단 4의 하위변인별 표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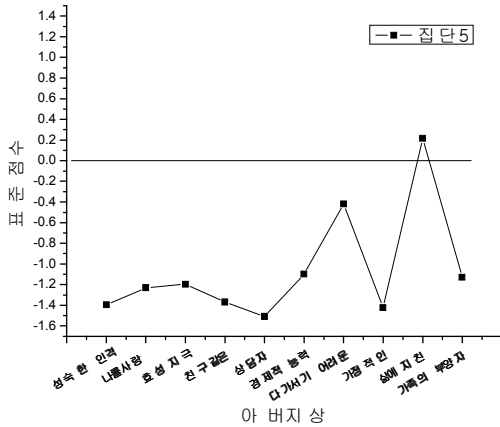


그림 5. 집단 5의 하위변인별 표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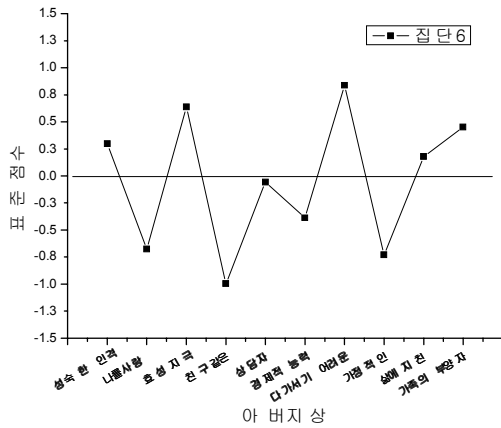


그림 6. 집단 6의 하위변인별 표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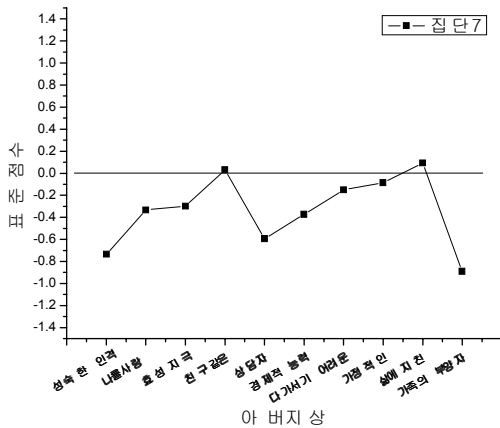


그림 7. 집단 7의 하위변인별 표준점수

표 3.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에 대한 집단별 빈도와 백분율

'아버지 상(像)' 군(群)명	빈도	백분율(%)
'올타리 같은 아버지 상(像)'	45	11.27
'완벽한 슈퍼맨 아버지 상(像)'	44	11.03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 상(像)'	69	17.29
'삶에 찌든 아버지 상(像)'	54	13.53
'최악의 아버지 상(像)'	42	10.53
'높고 전통적인 아버지 상(像)'	41	10.28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	104	26.07
전체	399	100

표 3에서는 각 군집에 해당하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아버지 상(像)'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군집분석결과로부터 각 집단 특성에 맞는 군(群)명을 부여한 결과와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의 26.07%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아버지에게 대해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이 아버지를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 상(像)'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많았고, '삶에 찌든 아버지 상(像)'의 이미지를 형성한 청소년이 13.53%로 그 뒤를 따랐다. 나머지는 '올타리 같은 아버지 상(像)'을 형성한 청소년이 11.27%, '완벽한 슈퍼맨 아버지 상(像)'을 형성한 청소년이 11.03%, 최악의 아버지 상(像) 집단이 10.53%, '높고 전통적인 아버지 상(像)'을 가진 집단이 10.28%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대한 복합 이미지는 아주 높거나 낮은 분포 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른 양상을 보였다.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상(像)'의 차이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상(像)' 하위변인의 차이

표 4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상(像)' 하위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그 결과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 ($t=-2.44, p<.01$)와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t=4.22, p<.001$), 삶에 지친 아버지($t=2.56, p<.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형성하고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아버지가 삶에 지쳐 보이고,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표 4.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상(像)' 하위변인에 대한 차이 검증

변인	남(n=191)		여(n=209)		t
	M	SD	M	SD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3.70	0.62	3.66	0.61	0.57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3.18	0.79	3.39	0.79	-2.44**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3.54	0.84	3.53	0.82	0.04
친구같은 아버지	2.81	0.77	2.85	0.70	-0.71
상담자 아버지	3.66	0.75	3.58	0.74	0.95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3.23	0.80	3.35	0.74	-1.65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3.27	0.73	2.93	0.72	4.22***
가정적인 아버지	3.21	0.76	3.35	0.71	-1.75
삶에 지친 아버지	2.90	0.73	2.69	0.74	2.56**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4.00	0.71	3.94	0.70	0.69

2) 청소년이 지각하는 복합적 '아버지 상(像)' 집단에 대한 성별 차이

표 5.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복합적인 '아버지 상(像)' 집단에 대한 차이검증

'아버지 상(像)' 군(群)명	남	여
	빈도(%)	빈도(%)
복합적인 '아버지 상(像)' 집단 유형	울타리 같은 아버지 상(像)	23(12.1) 22(10.5)
	완벽한 슈퍼맨 아버지 상(像)	23(12.1) 21(10.0)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 상(像)	21(11.1) 48(23.0)
	삶에 찌든 아버지 상(像)	33(17.4) 21(10.0)
	최악의 아버지 상(像)	21(11.1) 21(10.0)
	높고 전통적인 아버지 상(像)	23(12.1) 18(8.6)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	46(24.2) 58(27.8)
	전체	190(100) 209(100)
$\chi^2(df=6)$	14,467*	

표 5는 청소년의 아버지에 대한 복합 이미지에 대해 성별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 청소년들은 아버지에 대해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을 가진 경우가 24.2% 이고 '삶에 찌든 아버지 상(像)'을 형성하는 경우가 17.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은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을 형성한 경우가 27.8%,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 상(像)'을 형성한 경우가 23.0%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 다른 차이점은 남자 청소년의 12.1%가

높고 전통적인 아버지 상(像)을 형성하고 있으나, 여자 청소년들은 8.6%로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3.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 상(像)'의 차이

1).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 상(像)' 하위변인의 차이

표 6.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 상(像)' 하위변인에 대한 차이 검증

변인	중학생		고등학생		t
	M	SD	M	SD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3.64	0.60	3.71	0.62	-1.20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3.34	0.79	3.25	0.79	0.84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3.49	0.76	3.57	0.88	-0.89
친구 같은 아버지	2.87	0.73	2.80	0.73	0.74
상담자 아버지	3.64	0.75	3.60	0.76	0.40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3.30	0.79	3.28	0.76	0.02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2.97	0.73	3.20	0.73	-2.91**
가정적인 아버지	3.35	0.74	3.23	0.74	1.38
삶에 지친 아버지	2.58	0.68	2.96	0.75	-4.75***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3.94	0.71	4.00	0.70	-0.90

표 6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 상(像)' 하위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그 결과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t=-2.91, p<.01$), 삶에 지친 아버지($t=-4.75,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아버지를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로 느끼고 있고, 생활 속에서 삶에 지친 아버지의 모습을 더 강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복합적인 ‘아버지 상(像)’ 집단
의 차이

표 7.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복합적인 ‘아버지 상(像)’ 집단
에 대한 차이 검증

‘아버지 상(像)’ 군(群)명	중학생	고등학생	
	빈도(%)	빈도(%)	
복합적인 ‘아버지 상(像)’ 집단 유형	울타리 같은 아버지 상(像)	23(12.8)	21(9.6)
	완벽한 슈퍼맨 아버지 상(像)	17(9.5)	27(12.3)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 상(像)	43(24.0)	26(11.9)
	삶에 찌든 아버지 상(像)	16(8.9)	38(17.4)
	최악의 아버지 상(像)	21(11.7)	21(9.6)
	늙고 전통적인 아버지 상(像)	14(7.8)	27(12.3)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	45(25.1)	59(26.9)
전체	179(100)	219(100)	
$\chi^2(df=6)$	17.680**		

표 7은 청소년의 아버지에 대한 복합 이미지에 대해 연령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중학생들은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 집단(25.1%)과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 상(像)’ 집단(17.4%)이 높은 분포를 보인 것에 비해 고등학생들은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 집단(27.8%)과 ‘삶에 찌든 아버지 상(像)’ 집단(23.0%)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 다른 두드러진 차이점은 ‘늙고 전통적인 아버지 상(像)’을 형성한 청소년이 고등학생은 12.3%인 것에 비해 중학생은 7.8%에 그쳤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조선휘, 최명선(2004)의 ‘아버지 상(像)’ 척도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하위 이미지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단일한 이미지로는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아버지나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였으며, ‘상담자 같은 아버지’가 강하게 지각되고 있었다. 위의 결과 중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가장 강한 이미지인 ‘가족의 부양자’는 정순화, 김시혜(1998)의 연구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부양자이며 책임자이고 해결사로서 유능한 존재로 표현된 것과, 아버지의 의미를 경제적 부양자로 나타낸 연구들(유영주, 1983; Pleck, 1984; Lamb, 1987)과도 일치한다. 또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로 Canfield(1995)가 제시한 부양자 역할과 Eggerichs(1992)가 제시한 재정적인 제공자 역할과도 일치한다.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가 강하게 지각된 것은 청소년들이 ‘아버지’ 이미지에 대해 능력이나 활동성보다는 평가를 가장 좋게 한 연구(김영희, 최명선, 2001)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 같은 아버지’의 모습도 다른 이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수많은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 부모가 자녀의 좋은 심리적 환경과 쉼터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은 금방 가정을 등지고,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 역할과 같은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다(조선휘, 최명선, 2004). 위의 결과로 부터 현재 아버지의 모습은 시대적 요청에 맞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정우(1993)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아버지 상(像)’으로 보고된 ‘사랑과 이해로서 자녀들을 돌봐주는 아버지’,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는 아버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단일한 아버지 이미지를 통해 알아본 우리나라 청소년의 아버지 상(像)은 대체적으로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상적인 아버지 상에 가까운 단일 이미지들은 많은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의 아버지들은 좋은 아버지 역할을 배우고, 정보를 나누고자 모임을 결성하고 지역사회나 대학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 중 대표적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등은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아버지 참여프로그램이나 초등학교의 아버지 일일교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려는 아버지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윤양섭, 1996).

둘째, 본 연구에서 추출한 복합 이미지는 ‘어린애 같은 아버지 상(像)’을 가진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 상(像)’을 가진 집단, 그리고 ‘삶에 찌든 아버지 상(像)’을 가진 집단이 그 뒤를 따랐다. 또, ‘울타리같은 아버지 상(像)’을 형성한 집단과 ‘완벽한 슈퍼맨 아버지 상(像)’을 형성한 집단, 그리고, ‘최악의 아버지 상(像)’을 가진 집단과 ‘늙고 전통적인 아버지 상(像)’을 가진 집단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아버지 상(像)은 여러 특징을 보여준다. 같은 아버지 이미지를 가진 청소년의 빈도가 획일적이지 않고 고루 분포되었다는 것은 청소년 각각의 가족환경과 분위기, 아버지의 개성에 맞는 이미지를 나름대로 보여준다. 특히 어린애 같은 아버지의 이미지는 현대 사회의 젊은 아버지들이 자녀와 친구처럼 놀아주고 대화하며, 유행어를 함께 따라하고,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를 하는 등의 활동이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일조했을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위의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전통과 현대 아버지의 모습이 혼재된 사회에 살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높고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으면서도 편안하고 애정적이라던가, 어린애 같은 아버지의 모습은 변화되어 가는 아버지 모습의 과도기에 청소년이 아버지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차츰 강도가 흐려지고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복잡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고 한 주장(유영주, 1983)과 深谷知子(1990)가 현대사회의 부모 이미지의 특징을 부친의 모친화 혹은 모친과 부친의 동질화라고 보고 한 것, 그리고 조선화, 최명선(2004)이 현대사회의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높은 나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 권위와 위엄으로 굳건한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 왔던 아버지 모습,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니며 이제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지지해 준다.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정순화, 김시혜, 1996)결과인 아버지는 가족의 부양자이며 책임자, 해결사와 같은 유능한 존재이고 자상하고 애정적인 모친적 모습과, 아동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하는 놀이 상대자나 조력자, 행동모델, 그리고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묘사된 것을 계량적 방법으로 증명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단일 아버지와 복합 아버지에서 나타난 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단일 아버지 이미지는 대부분 긍정적인 특성이 강하고, 복합적 이미지는 ‘삶에 찌든 아버지’나 ‘늙은 전통적인 아버지’, ‘최악의 아버지’, ‘그리고 어린애 같은 아버지’와 같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미지가 더 많이 추출되었다. 단일 이미지와 복합 이미지의 차이는 청소년들이 아버지의 특정 단일 이미지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다른 하위 이미지를 모두 통합하였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변인과 다변인 연구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변인, 다차원적 방법론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여자 청소년들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강하게, 남자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삶에 지쳐 보이고, 다

가서기 어려운 사람의 이미지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위의 결과는 정은희(1997)가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아버지는 일만하시고, 꾸중만 하는 사람으로 더 강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여아는 남아보다 부모를 수용적으로 지각하지만, 남아는 여아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강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Armentrout, Burber, 1972), 아버지가 아들보다 딸에게 더 애정적, 자율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 연구(이희자, 정영숙, 1980),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에게 더 거부적, 통제적이었다고 한 연구(하순홍, 199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보다 딸에게 더 거부적 통제적이라고 보고한 연구(이영순, 1987)와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 애정적, 자율적인 태도는 보인다고 한 연구(이영순, 1987; 상형자, 1992)와는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남자 청소년들은 아버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린애 같은 아버지(24.2%)나 삶에 찌든 아버지(17.4%)의 복합 이미지를 많이 가진 것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어린애 같은 아버지(27.8%)와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23.0%)의 복합 이미지를 많이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고 전통적인 아버지 이미지를 더 강하게 형성하고 있었다. 위의 결과는 부모 모두 남아에게는 성취와 경쟁을 강조하며, 특히 아버지는 남아에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더 보인다고 한 연구(Blocker, 1983)와 일치한다. 그리고 남아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부양자적 이미지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여아는 애정적, 양육적 아버지 역할에 초점을 둔다고 한 연구(정순화, 김시혜, 1996)와 일맥상통한다.

다섯째,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에 비해 아버지를 다가서기 어렵고, 생활 속에서 삶에 지친 아버지의 모습을 더 강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합적인 아버지 이미지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중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어린애 같은 아버지(25.1%)와 편안하고 애정적인 아버지(17.4%)의 복합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고등학생들은 어린애 같은 아버지(27.8%)와 삶에 찌든 아버지(23.0%) 이미지를 더 강하게 형성하고 있었다. 또 높고 전통적인 아버지 이미지도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더 높게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김영희, 최명선(2001)이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의 능력과 평가, 활동성 세 가지 이미지가 모두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 것과 정은희(1997)의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에 비해 아버지는 존경스럽고, 자상한 사람으로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청소년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세계가 강해지고 보다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동일시 대상인 아버지에 대한 느낌도 달라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청소년의 연령의 증가는 아버지의 연

평과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는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청소년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연령이 높고, 구세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척도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버지 상(像)'을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청소년의 '아버지 상(像)'이라고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복잡한 '아버지 상(像)'을 추출함에 있어,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Labeling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앞으로 복합적인 아버지 이미지를 밝히기 위한 보다 객관적인 방법론과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변인인 성과 연령 따라서만 '아버지 상(像)'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후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나 심리적변인과 같은 관련변인에 대해서도 '아버지 상(像)'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척도의 하위구성변인에 충실하여 연구하였으나, 아버지의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를 분리하여 접근한다면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보다 심도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밝힌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단일화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하위이미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이미지도 분석해 내었다. 이는 각각의 하위 이미지만 밝혔던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또한 아버지 역할이나 양육태도와 참여 등과 같은 변인들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진 청소년의 성과 연령의 영향을 '아버지 상(像)'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따른 '아버지 상(像)' 형성의 차이를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교사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을 하는 현장가들이 아버지와 청소년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가 가지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시에 부모들에게 청소년자녀의 심리와 행동을 더 잘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아버지 이미지와 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이나, 청소년 비행 등 청소년발달과 관련된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시도될 것을 촉구한다.

참 고 문 헌

- 금정임(1995). 아버지 역할과 청소년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2003).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원(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희(1996). 父親 이미지에 대한 세대간 요인구조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최명선(2001). 의미분석법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이미지 연구, 한국놀이치료연구. 4, 2, 3-14
- 남정홍(2001). 아버지 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동(2004).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딸의 배우자상(像)에 미치는 영향 : 기독교 미혼 여성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진아(1999). 아버지의 실직경험 유무와 청소년의 진로 의식 및 직업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미(2001).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상형자(1992).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미리(1997).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83). 가족 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윤양섭(1996. 1. 11) 자상한 아버지 늘고 있다. 동아일보. p. 19
- 은주영(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영(2003).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순(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2001). 아버지의 실직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1999).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이희자, 정영숙(1980). 아버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 6, 23-39
- 임정하(1994). 아버지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석희(2003).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기술적 소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화·김시혜(1996). 동시를 통해 본 아동이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 *한국아동학회지*, 17, 2, 79-105
- 정은희(1997)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화, 최명선(2002). 아버지의 양육경험에 대한 자기보고의 내용분석. *한국가족복지학회지*, 7, 1. 95-115.
- 조선화, 최명선(2004).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 척도 개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5, 6, 53-68
- 지정우(1993). *大學生의 價値觀에 關한 基礎 연구* : 서울, 경기 지방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명선(1998). 경제위기하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의 구조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자(1999). 아버지 자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순홍(1991). 부의 자녀교육과 교육태도, 자녀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深谷知子(1990), 森川活珠, 父親像の因子分析的研究, *東京かくけい大學教育學部 日本家政學會誌*, 41., 6, 487-495
- Armentrout, J. A. & Burber, G. K.(1972). Children’s report of parent child rearing behavior at five grade level. *Developmental Psychology*, 7, 44-48.
- Blocker, J. H.(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Canfield, K. R. (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a father’s life course*. Kansas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Eggerichs, E. E. (1992). *A Descriptive Analysis of Strong Evangelical Fathers*. Michigan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Lamb, M. E.(1987). *The Father’s Role: Cross-cultural Perspectives*.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
- Pleck, J. H.(1984). *Working wives and family well-being*.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원 고 접 수 일 : 2005. 4.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4.
게 재 결 정 일 : 2005. 7. 14.

부록 :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像) 척도의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부하량	h^2
요인1: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아버지		
인자하시다	.52	.69
자상하시다	.61	.78
내가 본 받고 싶은 존경하는 분이다	.73	.76
자랑스러운 분이다	.77	.75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 주신다	.67	.62
교통질서나 공중도덕을 잘 지키신다	.55	.52
부지런하시다	.73	.62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57	.56
인정이 많으시다	.65	.76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65	.53
근검, 절약하시는 분이다	.40	.44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77	.72
완벽하신 분이다	.59	.62
성실하신 분이다	.82	.74
정직하신 분이다	.76	.67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이다	.42	.60
참을성이 많은 분이다	.63	.62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분이다	.70	.69
나와 대화할 때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	.55	.65
정신력이 강한 분이다	.73	.66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시는 분이다	.64	.64
늘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43	.55
다정하신 분이다	.56	.78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분이다	.68	.74
강인하신 분이다	.68	.64
따뜻하신 분이다	.63	.79
늘 한결 같은 분이다	.63	.53
결단력이 있는 분이다	.71	.74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도와 주신다	.69	.67
예의 바른 분이다	.71	.70
책임감이 강한 분이다	.81	.74
요인2: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나와 장난을 잘 치신다	.80	.75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분이다	.71	.70
나에게 친근하게 대해 주신다	.43	.74
나에게 애정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다	.52	.65
나와 잘 놀아 주시는 분이다	.63	.72
나와 농담을 잘 하신다	.82	.79
나와 스킨십을 자주 하신다	.40	.71
요인3: 효성이 지극하신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맛있는 것을 자주 사드린다	.69	.73
할아버지 할머니(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자주 찾아 뵈는다	.81	.80
할아버지 할머니(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덕의 일을 많이 도와 드린다	.80	.76
할아버지 할머니(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말씀을 자주 하신다	.76	.71
할아버지 할머니(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전화를 자주 드린다	.82	.77

문항	요인부하량	h^2
요인4: 친구같은 아버지		
나와 가끔 편지(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시는 분이다	.49	.52
나와 취미 생활을 (등산, 바둑, 영화, 비디오, 음악, 독서, 운동, 쇼핑 등)함께 하시는 분이다	.54	.61
나의 이성 친구에 대해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	.60	.60
나와 유행하는 유머로 말하기를 좋아하신다	.60	.67
TV에 나오는 연예인 이름이나 유행어를 잘 아신다	.55	.60
내 친구의 이름을 많이 아신다	.71	.66
요인5: 상담자 아버지		
나에게 교훈이 되는 말을 해 주시는 분이다	.44	.62
내가 도움을 청하면 항상 도와 주시는 분이다	.48	.66
내가 힘들거나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42	.71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	.36	.71
나에게 옳고 그른 일에 대해 충고해 주시는 분이다	.50	.60
내 고민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다	.49	.72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46	.72
요인6: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아버지		
용돈을 잘 주시는 분이다	.69	.66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주시는 분이다	.73	.69
나에게 선물을 잘 사주시는 분이다	.56	.63
요인7: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위엄있는 분이다	.60	.67
엄격하신 분이다	.73	.60
권위적인 분이다	.74	.65
요인8: 가정적인 아버지		
가족 나들이를 좋아하신다	.74	.73
내 앞에서 어머니와 애정표현을 잘 하신다	.47	.68
어머니의 집안일을 잘 도와 주신다	.74	.78
어머니와 외출이나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73	.78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	.76	.75
요인9: 삶에 지친 아버지		
안스러워 보인다	.80	.67
어머니와 자주 싸우신다	.35	.70
피곤하고 지쳐 보인다	.64	.59
불쌍한 분이다	.84	.77
요인10: 가족의 부양자이신 아버지		
가족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66	.72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 오시는 분이다	.40	.68
가족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61	.58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다	.36	.76
가족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이다	.36	.72

Adolescent's Image Study about Their Father

Myung-Seon Cho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n-Hwa Cho
Han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dolescent's image and complex characteristics about their father. The analysis was performed for 400 students in Seoul by using the instrument developed from previous research(Seon Hwa Cho, Myung seon Choi, 2004). Cronbach's α , Cluster Analysis, t-test, χ^2 test were adopted as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The adolescent's image about their father were 'supporter of their family', 'man who have noble personality' and 'consulting father'. And the complex image were 'the image of father, as fence', 'the image of perfect super father', 'the image of easy and affectionate father', 'the image of poverty- stricken father', 'the image of the worst father', 'the image of old and traditional father', and 'the image of father as child'. Female adolescent's image was father love daughter and the complex image were generally perceiving as 'the image of father as child' and 'the image of easy and affectionate father'. On the other hand, male adolescents's image was tired father and difficult being to make intimate relationship. And the complex image were 'the image of father as child' and 'the image of poverty- stricken father'. The analysis results showed different aspects according to the age. High school students showed worse image that father is deeply tired and difficult being to make intimate relationship than middle school students. The complex image of middle school students were 'the image of father as child' and 'the image of easy and affectionate father' while high school students' complex image were 'the image of father as child' and 'the image of poverty- stricken father'.

Key word : adolescent, father, image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 Bronfenbrenner의 관점을 중심으로 -

김 광 응

문 수 경[†]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여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9개의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남녀 425명과 그들의 부모였다. 본 연구의 질문지로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소년용 질문지는 부모-자녀관계 척도, 기질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갈등 척도, 부모의 지원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학교적응 척도, 부모의 학업 기대 척도, 또래지향 척도, 효 의식 척도이며, 부모용 질문지는 자녀에 대한 태도 척도, 자녀관 척도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생태학적 모든 체계는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둘째,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생태체계는 미시체계 변인군으로서 그 중 가정환경 미시체계의 영향인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많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자율적이며, 부모 간 갈등이 적을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으며, 다음으로 거시체계의 영향으로 자녀의 효 의식이 높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적 가치가 높을수록 부모-청소년자녀관계가 긍정적이었다.

주요어 : 생태체계 변인, 부모-자녀관계

개인이 어린 시절에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은 후속되는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 관계가 어떠한지는 아동의 성격형성이나 정서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Bronfenbrenner, 1979). 아동은 주로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 학업 성취와 정적관계가 있으며(김의철, 박영신, 1999), 현재의 부모-자녀관계는 이전의 부모-자녀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데(정갑순, 2002) 이전에 부모-자녀관계가 좋았던 아동들은 청소년이 되어서도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인 성취동기,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관계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변수들은 부모 간 갈등이었다. 부모 간 갈등이 높을수록 부모의 과보호와 통제적인 부모의 태도가 증가하고(박보경, 2002; 이민식, 1999), 자녀들의 학교적응과 부모 간 갈등과의 관계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또

[†] 교신저자 : 문 수 경, (503-232)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89번지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동신아동상담실
메일주소 : mskyung84@hanmail.net

래관계,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고남숙, 1997; 박남옥, 2003; 박성연, 1994; 채혜연, 2000)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관계는 자녀가 성장 한 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부모양육 태도를 부모-자녀관계로 보고 이루어졌으며,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의 특성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고병채, 1990; 김기정, 1984; 김혜진, 2003)가 대부분이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그 개념적 모형을 서양의 틀을 원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초적인 인간관계인 부모-자녀관계라는 외형은 문화보편적 현상일 수 있지만 부모-자녀 관계라는 개념의 질과 내용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이장주, 2003; 임정하, 2003; 최상진, 2000)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양의 틀을 기초로 한 연구들은 우리 문화에 적절한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하는데 문화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적합한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

Belsky(1984)는 아동의 발달 양상이란 생애주기적 조망과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다원론적 입장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동의 모든 특성은 그를 둘러싼 생태학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음은 물론, 아동의 특성 자체가 그 맥락에 다각도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존의 발달 연구가 개인 내적, 개성적 측면에 너무 맞추어져 부모-자녀 관계를 폭넓게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이 관점은 Main과 그의 동료들(1985)의 연구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하여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가정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내에서 여러 요인이 반영되는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접근을 근거로 하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아동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몇 겹의 구조로 체계화된 생태체계 속에서 성장 발달하고 있다. Bronfenbrenner(1992)는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대인관계망 안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할 인간발달 생태학 모형을 제안하면서 환경을 구조화하고, 인간의 환경은 유기체계가 직접 접촉하는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나누어 겹겹이 포개어지는 환경체계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우리문화에 적합한 틀을 사용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자녀를 함께 동시에 표집하였으며, 부모-자녀관계의 측정도구를 우리문화권에서 개발한 것을 포함시켰다. 또한 독립변인군을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인 가정환경 변인, 또래 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 중간체계 변인, 외체계 변인, 거시체계 변인으로 나누어 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관련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추출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 변인은 성별, 연령, 출생순위, 청소년의 기질이었으며; 가정환경과 관련된 미시체계 변인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간 갈등,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부모의 지원 등의 변수였다. 또래환경과 관련된 미시체계 변인은 또래의 지지, 친구의 수, 또래지향이었으며; 학교환경과 관련된 미시체계 변인으로는 학업성적, 교사의 지지, 학교적응을 살펴보고; 중간체계 변인으로는 부모의 학업기대, 부모-교사 관계, 부모-자녀의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외체계 변인으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 경험 여부, 부모교육 수강 경험 여부를 살펴보고, 거시체계 변인으로는 부모의 자녀관, 자녀의 효 의식을 탐색하였다.

한국 부모-자녀관계의 특징

서구의 부모-자녀관계는 사회의 보편적 인간관계 윤리와 특별히 구별되어 있지 않다. 합리성과 평등성을 근간으로 한 서구에서는 개인주의가 가정에서의 부자관계 규범으로 확대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의 영향력 이론을 부모-자녀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서구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최상진, 유승엽, 1995; Simon et al., 1985)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사회의 일반적 인간관계 윤리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친밀한 대인관계, 즉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와 같이 자신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 윤리는 일반인들과의 대인관계 윤리와 많이 다르며,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는 효(孝)와 자(慈)라는 전통적 유교규범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범을 바탕으로 혈육지정, 보은, 인간의 도리 등을 내포한 부자 유친 관계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평등윤리 인간관계와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박명석, 1993). 이처럼 서구와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족은 그 핵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족은 서로 아끼주고, 의존하며, 희생적으로 상호 봉사하는 것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다. 또한 가족 간에는 내 것파네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가족 관계의 속성을 일반화시켜 한국인들은 ‘정(情)’이라고 칭하며, 마음속에 실재하는 심리적 실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이장주, 1998; 최상진, 김의철, 유승엽, 이장주, 1997; 최상진, 유승엽, 1994). 그리고 이러한 정은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우리성’ 의식의 형성을 통한 ‘우리편’ 만들기의 도구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핵심에 속하는 우리성-정 관계는 가족을 원형으로 생성되었으며, 이러한 가치는 가족 내의 부모-자녀관계를 통하여 전달 재생산되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관계주의적 문화에서 이상적 부모-자녀관계란 자기 절제를 수반하는 배려가 부모-자녀 간에 원만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볼 수 있으며,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는 일반적 인간관계의 전형으로서 서구의 개인주의적 부모-자녀관계와 대비되는 특징을 지녔다.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유학적 모델 중 하나인 ‘효경(孝經)’에 의하면,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애로워야 하며, 자식들은 부모의 이러한 보살핌에 대하여 봉양(奉養, 물질적 보살핌), 양지(養志, 뜻을 헤아려 실천), 공대(恭待, 표정을 부드럽게 하여 편안하게 함), 불욕(不辱, 욕되지 않게 함)함은 물론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통해 부모로부터 받은 자애(慈愛)에 대한 되갚음으로써 효(孝)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될 뿐만 아니라, 다시 자신들의 자식들과 같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순환한다. 이 과정에서 순환되는 것은 물질적이거나 가시적 교환이나 순환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점이다. 즉 부모는 자신의 분신인 자식에 대해 자신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아껴주며, 이러한 아껴줌에 대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Kim & Choi, 199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관계는 그 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있고, 부모-자녀관계의 연구에서 서구의 척도를 사용한 경우, 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처럼 효(孝)가 단순히 부모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요구되고 행해야 할 덕목이 아니며, 진정한 의미에서 효(孝)의 실천은 자식이 부모에게 이끌리는 위로의 사랑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아래로의 사랑이 합일되는 것이고, 효(孝)의 실천은 부자(父慈), 자효(子孝)의 쌍무적인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정옥분 외, 1996)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외체계 변인, 거시체계 변인을 탐색하고 그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의 중요성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가정, 또래, 학교, 중간체계 변인, 외체계 변인, 거시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방 법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본 조사에 앞서 척도 문항에 대한 청소년의 문항 이해 정도, 응답 정도와 소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 청소년 20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평균 40분 정도가 소요됨을 알 수 있었고, 또 청소년의 문항 이해정도를 높이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폐쇄형 질문으로 수정하였다.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51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총 480부를 회수하였다. 아버지-어머니-자녀인 청소년 3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이기 때문에 3인 중 1인이라도 누락된 설문지와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42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도 구

본 연구에서 질문지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는 부모-자녀관계 척도, 기질척도, 부모의 양육태도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척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부모의 지원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학교 적응 척도, 또래지향 척도, 부모의 학업기대 척도, 효 의식 척도이다. 부모용 질문지로는 자녀에 대한 태도 척도, 자녀관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모-자녀관계. 박영신, 김의철(2000)이 제작한 척도를 정갑순(2002)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자녀관계를 갈등, 고마움, 죄송함, 친밀함, 존경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35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하위 요인별로 갈등 .71, 고마움 .90, 죄송함 .90, 친밀함 .89, 존경 .92 였다.

기질.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상미현(1998)이 청소년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가지 하위 영역을 포함한다. 정서성(Emotionality)을 안정성(Stability)으로 수정하였고, 활동성(Activity), 사회성(Sociability)으로 총 20문항의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4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이승국(1998)이 제작한 척도를 최효순(2001)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의 2가지 차원으로 측정하며,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이다.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거부적, 통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0이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Grych 등(1992)의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을 권영옥, 이정덕(1997)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요인의 3점 척도로 되어 있고,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이 빈번하고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9이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김진희(1989)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오미경(1997)이 제작한 개방적 의사소통(아버지, 어머니용)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아버지용 .88, 어머니용 .89 이었다.

자녀에 대한 태도 척도. 김의철, 박영신(1997)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은 대리적 성취, 성취압력, 통제, 갈등, 관대함, 희생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4점 척도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대리적 성취 .77, 성취압력 .76, 통제 .66, 갈등 .72, 관대함 .73, 희생.85 였다.

부모의 지원. 김의철, 박영신(1998)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이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척도로 되어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지원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9이었다.

사회적 지지(교사의 지지, 또래의 지지). Dubow와 Ullman

(1989)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이명화(1998)의 사회적 지지척도 중 교사의 지지, 또래의 지지 항목인 10문항의 6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의 지지, 또래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교사의 지지 .80, 또래의 지지 .88이었다.

학교 적응(학교수업, 학교규칙). 임정순(1993)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를 참고로 하여 유은희(1994)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중 학교수업, 학교규칙 요인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두 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학교수업 .71, 학교규칙 .65이었다.

또래지향. Fuligni와 Eccles(1993)가 제작한 것을 박성연(1994)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긍정적, 부정적 또래지향의 두 가지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 총7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의 조언요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66이었다.

부모의 학업기대. 김호권(1979)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박영배(1985)가 제작한 부모지각 기대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업능력에 대한 부모기대 지각' 요인의 7문항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능력에 대하여 부모의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4이었다.

효 의식. 문현호(199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전통적 효의 내용 10문항, 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묻는 효 의식에 대한 하위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효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66이었다.

자녀관. 박성연(1986)이 개발한 척도를 허은주(1989)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자녀의 도구적, 애정적 가치, 자녀에 대한 부담 가치, 자녀출산의 수동적 가치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녀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65이었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에 따른 부모-자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중다회귀분석과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유기체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변인, 외체계변인, 거시체계 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군(유기체계변인, 미시체계변인, 중간체계변인, 외체계변인, 거시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군을 묶어서 단계별로 투입하여 설명력의 증가를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할만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COLLON을 사용하여 eigen value, condition number와 variance proportion의 수치를 알아본 결과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독립변인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변인을 회귀분석하였다.

결 과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계 변인, 미시체계 변인(가정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 중간체계 변인, 외체계 변인, 거시체계 변인의 순으로 체계변인들을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델 1에서 유기체계 변인 중 청소년의 성별($\beta=.15$), 청소년의 연령($\beta=-.15$), 기질 하위요인 중 안정성($\beta=.13$), 사회성($\beta=.1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인 경우 연령이 낮고 기질이 안정적이고 사회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유기체계 변인들은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를 9% 설명하고 있다.

모델 2에서는 전체 미시체계 변인군(가정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을 추가하여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원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지원($\beta=.49$), 부

모의 양육 태도($\beta=.20$), 경제적 지원($\beta=.14$), 학업성적($\beta=-.10$), 또래지향 하위요인 중 또래의 조언요구($\beta=.09$),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beta=.09$)변인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이 많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고, 경제적 지원이 많고 또래의 조언요구가 많고, 학교수업에 충실할수록 아버지-자녀관계가 긍정적이었다. 미시체계 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64%가 되었으며 모델1에 비해 55%의 증가를 나타냈다.

모델 3에서는 중간체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원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지원($\beta=.49$),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beta=.21$), 경제적 지원($\beta=.14$), 학업성적($\beta=-.11$), 또래지향 하위요인 중 또래의 조언요구($\beta=.09$),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beta=.09$) 변인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체계 변인군을 추가했으나, 전체 설명력은 64%로 설명력의 증가는 없었다.

모델 4에서는 외체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원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지원($\beta=.47$),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beta=.18$), 경제적 지원($\beta=.17$), 또래지향 하위요인 중 또래의 조언요구($\beta=.09$), 부모간 갈등($\beta=-.08$),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하위요인 중 갈등($\beta=-.07$) 변인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체계 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65%로 모델3보다 1%의 증가를 나타냈다.

모델 5에서는 거시체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원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지원($\beta=.41$), 자녀의 효의식($\beta=.26$),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beta=.78$), 경제적 지원($\beta=.16$), 또래지향 하위요인 중 또래의 조언요구($\beta=.12$), 학교적응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beta=.09$),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하위요인 중 갈등($\beta=-.09$), 부모 간 갈등($\beta=-.08$) 변인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많고, 자녀의 효의식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많고 또래의 조언요구가 많고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부모의 자녀관이 갈등적이지 않을수록 부모 간 갈등이 적을수록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거시체계 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70%로 모델 4보다 5%의 증가를 나타냈다.

표 1에 의하면,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력을 살펴볼 때, 아버지-자녀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군은 미시체계 변인군임을 알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는 미시체계인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간 갈등,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태도 하위요인 중 갈등, 부모의 경제적 지원, 또래지향 하위요인 중 또래의 조언 요구, 학교적응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 그리고 거시체계변인 자녀의 효 의식에 의해서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모델1 (유기체)		모델2 (미시체계)		모델3 (중간체계)		모델4 (외체계)		모델5 (거시체계)	
		b	β	b	β	b	β	b	β	b	β
유기체	성별	3.67	.15**	1.39	.05	1.41	.05	1.72	.07	1.63	.06
	연령	-1.58	-.15**	-.33	-.03	-.34	-.03	-.35	-.03	-.34	-.03
	출생순위	-.76	-.04	.78	.04	.77	.04	.95	.05	.71	.04
	기질										
	안정성	.63	.13**	.01	.01	.01	.01	.01	.02	.01	.01
	활동성	.35	.08	-.02	-.03	-.11	-.02	-.18	-.04	-.17	-.04
	사회성	.38	.15*	.22	.08	.22	.09	.21	.08	.15	.06
미시체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27	.04	.28	.05	.16	.02	.13	.02
	부모의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13	.05	.13	.05	.08	.03	.01	.03
	자율적 양육태도			.50	.20***	.50	.21***	.46	.18***	.43	.17***
	아버지의 의사소통			.01	.02	.01	.02	.01	.03	.12	.06
	부모간 갈등			-.15	-.07	-.15	-.07	-.16	-.08*	-.17	-.08*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대리적성취			-.01	-.01	-.01	-.01	-.01	-.02	-.01	-.01
	성취압력			-.01	-.01	-.01	-.01	-.01	-.02	-.01	-.01
	통제			.01	.01	.01	.01	.01	.02	-.01	-.01
	갈등			-.18	-.05	-.18	-.05	-.24	-.07*	-.30	-.09**
	관대함			-.01	-.01	-.01	-.01	-.01	.00	-.01	-.01
	희생			.15	.05	.15	.05	.18	.06	.11	.04
	부모의 지원										
	정서적지원			1.45	.49***	1.45	.49***	1.37	.47***	1.20	.41***
정보적지원			-.01	-.02	-.01	-.02	.01	.01	-.14	-.05	
경제적지원			.54	.14***	.52	.14**	.62	.17***	.58	.16**	
또래환경	또래의 지지			.15	.05	.14	.05	.15	.05	.01	.02
	친구의 수			.56	.04	.56	.04	.35	.03	.33	.02
	또래지향										
	또래의 조언요구			.36	.09*	.36	.09*	.39	.09*	.48	.12**
	극심한 또래지향			-.01	-.00	-.01	-.01	-.01	-.01	.01	.00
학교환경	학업성적			-1.94	-.10**	-.01	-.11**	-2.15	-.11*	-1.43	.07*
	교사의 지지			-.01	-.02	-.01	-.02	-.01	-.02	-.01	-.03
	학교적응										
	학교수업			.22	.09*	.21	.09*	.20	.08	.20	.09*
			.13	.05	.13	.05	.01	.04	-.06	-.03	
중간체계	부모의 학업기대					.01	.01	.01	.02	-.01	-.02
	부모-교사관계					-.23	-.01	.36	.02	-.11	-.01
	부모-자녀친구관계					.01	.01	-.01	-.01	-.12	-.01
외체계	지역사회봉사경험여부							-.41	-.02	-.40	-.02
	부모교육수강경험여부							.26	.01	.63	.03
거시체계	자녀의 효의식									.50	.26***
	부모의 자녀관										
	도구적 애정적 가치									.01	.04
	자녀에 대한 부담가치									.01	.01
										-.01	-.02
R^2		.09		.64		.64		.65		.70	
R^2 증가량				.55		.00		.01		.05	
F		7.73***		24.73***		22.16***		21.53***		23.10***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와 생태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델 1에서 유기체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기질 하위 요인 중 사회성($\beta=.21$), 청소년의 성별($\beta=.18$), 청소년의 연령($\beta=-.11$), 기질 하위요인 중 안정성($\beta=.11$)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성이 높고, 여자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유기체 변인들은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를 9% 설명하였다.

모델 2에서는 전체 미시체계 변인군(가정환경, 또래환경, 학교환경)을 추가하여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원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지원($\beta=.35$), 부모의 양육태도($\beta=.17$), 또래의 지지($\beta=.15$),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beta=.13$)경제적 지원($\beta=.09$),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하위요인 중 갈등($\beta=-.09$), 학업성적($\beta=-.08$) 변인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이 많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또래의 지지가 많고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이 높고, 어머니의 자녀관이 갈등이 낮을수록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미시체계 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61%가 되었으며, 모델1에 비해 52%의 큰 증가를 나타냈다.

모델 3에서는 중간체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원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지원($\beta=.34$), 부모의 양육태도($\beta=.17$), 또래의 지지($\beta=.14$),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beta=.12$), 학업성적($\beta=-.09$),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하위요인 중 갈등($\beta=-.09$), 경제적 지원($\beta=.09$) 변인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체계 변인군을 추가했으나, 전체 설명력은 61%로 설명력의 증가는 없었다.

모델 4에서는 외체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지원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지원($\beta=.33$), 부모의 양육태도($\beta=.16$), 또래의 지지($\beta=.12$),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beta=.12$), 학업성적($\beta=-.10$),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하위요인 중 갈등($\beta=-.10$), 경제적 지원($\beta=.09$) 변인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체계 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62%로 모델3보다 1%의 증가를 나타냈다.

모델 5에서는 거시체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원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지원($\beta=.28$), 자녀의 효의식($\beta=.23$), 부모의 양육태도($\beta=.18$), 학교적응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beta=.11$), 경제적 지원($\beta=.08$), 부모간 갈등($\beta=-.07$) 변인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이 많고, 자녀의 효의식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고,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경제적 지원이 많을수록 부모간 갈등이 적을수록 어머니-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거시체계 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66%로 모델4보다 4%의 증가를 나타냈다.

표 2에 의해,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력을 살펴볼 때, 어머니-자녀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군은 미시체계 변인군임을 알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 학교적응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 등 미시체계 변인과 거시체계 변인인 자녀의 효 의식에 의해서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 변인		모델1 (유기체)		모델2 (미시체계)		모델3 (중간체계)		모델4 (외체계)		모델5 (거시체계)	
		b	β	b	β	b	β	b	β	b	β
유기체	성별	3.98	.18***	1.17	.05	1.21	.05	1.23	.05	1.10	.05
	연령	-1.03	-.11*	.01	.01	.25	.01	-.25	-.03	-.23	-.03
	출생순위	-1.27	-.08	.75	.04	.81	.05	.97	.06	.81	.05
	기질										
	안정성	.45	.11*	.01	.01	.01	.01	.01	.01	.01	.00
	활동성	.11	.03	-.11	-.03	-.01	-.02	-.13	-.01	-.14	-.04
	사회성	.47	.21***	.16	.07	.17	.07	.15	.07	.01	.04
미시체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1	.02	.12	.02	-.01	-.01	-.01	-.01
	부모의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15	.07	.14	.06	.12	.06	.12	.05
	자율적 양육태도			.37	.17**	.38	.17**	.34	.16***	.38	.18***
	아버지의 의사소통			.16	.09	.15	.08	.13	.08	.15	.09
	부모간 갈등			-.12	-.07	-.12	-.07	-.12	-.07	-.11	-.07*

독립변인		모델1 (유기체)		모델2 (미시체계)		모델3 (중간체계)		모델4 (외체계)		모델5 (거시체계)		
		b	β	b	β	b	β	b	β	b	β	
미시체계	가정환경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대리적성취		.01	.03	.01	.02	.01	.01	-.01	-.01	
		성취압력	-.16	-.04	-.16	-.04	-.17	-.04	-.01	-.01		
		통제	.01	.02	.01	.02	.01	.03	.01	.01		
		갈등	-.23	-.09*	-.23	-.09*	-.26	-.10**	-.18	-.07		
		관대함	.01	.02	.01	.01	.01	.01	-.01	-.02		
		희생	.01	.01	.01	.01	.01	.02	.01	.01		
	또래환경	부모의 지원										
		정서적지원		1.04	.35***	1.03	.34***	.99	.33***	.85	.28***	
		정보적지원	.10	.03	.01	.03	.21	.06	.01	.01		
	학교환경	경제적지원	.38	.09*	.36	.09*	.39	.09*	.33	.08*		
		또래의 지지										
		친구의 수	.23	.02	.18	.02	.12	.01	.11	.03		
		또래지향										
		조언요구	-.01	-.02	-.01	-.02	.01	.01	.01	.03		
중간체계	극심한 또래지향	.01	.01	.01	.01	-.01	.01	-.01	-.01			
	학업성적											
	교사의 지지	-1.34	-.08*	-1.58	-.09*	-1.72	-.10**	-1.08	-.07			
	학교적응											
	학교수업	.27	.13**	.25	.12**	.25	.12**	.21	.11*			
외체계	학교규칙	.10	.05	.01	.04	.01	.01	-.01	-.03			
	부모의 학업기대											
	부모-교사관계			.11	.05	.12	.06	.01	.03			
거시체계	부모-자녀친구관계			.01	.01	.01	.01	.01	.01			
	지역사회봉사경험여부											
	부모교육수강경험여부			.55	.03	.44	.02	.53	.03			
거시체계	자녀의 효의식											
	부모의 자녀관											
	도구적 애정적 가치							.40	.23***			
	자녀에 대한 부담가치							.01	.06			
	자녀 출산의 수동적 가치							.01	.00			
자녀 출산의 수동적 가치												
								-.14	-.06			
R^2		.09	.61	.61	.62	.66						
R^2 증가량			.52	.00	.01	.04						
F		7.94***	22.18***	20.08***	19.34***	19.78***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 변인들에 관한 연구이다.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외체계 변

인, 거시체계 변인을 탐색하고 그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연구목적에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총 42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아버지-자녀관계, 어머니-자녀관계로 나누어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체 변인은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청소년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와 초등학생인 경우, 기질에서 안정성과 사회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유기체 변인은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여자 청소년이고 초등학생이고, 안정성과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가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에서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가족의 역동성,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 중 강력한 것이라는 견해(Milliones, 1978)와 자녀의 기질은 부모에게 상이한 양육 요구를 하고, 부모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달리하게 하며, 정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보일 경우 어머니-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순한 기질의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애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쉽다는 견해(Lee & Bates, 1985; Dumas & LaFrenter, 1993)와 유사하다. 이들 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기질은 부모-자녀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기질은 생득적이기도 하지만 출생 후 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Bate, 1980)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 자녀의 기질에 따른 차별적인 부모의 양육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둘째, 미시체계 변인은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 변인을 가정환경 미시체계, 또래환경 미시체계, 학교환경 미시체계로 나누고, 전체 미시체계 변인이 아버지-자녀관계, 어머니-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정환경 미시체계 변인은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고 부모 간 갈등이 적을수록 아버지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많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다음으로, 가정환경 미시체계는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고 부모 간 갈등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관계를 연구한 김은아(1997), 원유미(1999), 정갑순(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부모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부모 간 갈등과 부모-자녀관계(김혜진, 2003; 우진영, 1998; 이민식, 1999; 정화용, 2000)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은 부모 간 갈등이 적고, 부모간의 애정이 많

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부모 사이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업, 학교적응, 또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모의 지원과 부모-자녀관계(박영신, 김의철, 2000)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지원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Bornstein, Bradley, Robert, 2003)와 일치한다.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하나인 가정의 수입과 같은 의미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역시 부모-청소년자녀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지원 중 정서적 지원은 다른 변인보다 강력하게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애정, 수용은 향후 부모 교육이나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 크게 강조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래환경 미시체계변인은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의 또래 지지가 높을수록, 또래에게 조언을 적게 하고 또래에게 치중하지 않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다음으로, 또래환경 미시체계 변인은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의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또래에게 조언을 적게 하고 또래에게 치중하지 않을수록 어머니-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의 지지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이명숙, 1994; 채혜연, 2000; 황성숙, 1999)와 일치한다.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에서 친밀하다는 결과는 청소년 시기가 또래관계에 관심이 많은 시기지만 친구의 수가 많다고 해서 아버지-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반대로, 더 아버지와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을 보인 것은 청소년 자녀의 또래 지향성 연구(김경신, 1991)와 관련해서 또래의 지지가 높은 것은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또래 관계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보여 청소년 자신이 자각하기에 부모에게 죄송함을 갖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또래의 지지가 높고, 친구 수가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도 친밀하다는 것은 또래관계와 부모-자녀 관계 간에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교환경 미시체계 변인은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수업에 적극적일수록,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또한 학교환경 미시체계 변인은 어머니-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수업에 적극적일수록, 또 학교규칙을 잘 지킬

수록 어머니-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공부하는 시간과 학업성적과 정적인 관계이고, 고마움, 친밀함은 공부하는 시간과 정적인 관계이나 학업성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0; 정갑순, 2002)와 일치한다. 즉, 청소년들에게 교사의 지지가 높고, 학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업성적이 부모-자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단지,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죄송함 영역에서 부모님과과의 관계에서 죄송함을 느끼지만, 학업성적 자체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부모와 갈등이 많을 때 학업성적이 낮고, 부모와의 갈등이 적을수록 학업성적이 좋다는 선행연구 결과(마은숙, 2000)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과잉보호하고 통제할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자녀관계에서도 갈등적이었으며, 부모의 거부-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적이라고 한 연구결과(민영순, 1995; 유은희, 1994; 정유진, 1999)와 일치한다.

전체 미시체계 변인은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이 많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고,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많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전체 미시체계 변인은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이 많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자율적이고, 또래 지지가 높고, 학교수업에 적극적일수록 어머니-자녀관계가 긍정적이었다.

셋째, 중간체계 변인은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혔으며, 부모의 학업기대가 높을수록, 부모-자녀의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부모-교사관계가 좋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또한, 중간체계 변인은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부모의 학업기대가 높을수록, 부모-자녀의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그리고 부모-교사관계가 좋을수록 어머니-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학업 기대가 높은 부모는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수용적이며, 자녀의 성취동기를 격려해주고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견해(김현정, 1997)와 일치하며, 가족과 학교가 상호 호혜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받을 것(Rolf, 1999)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청소년은 부모-교사의 관계가 좋다고 여기면 학교적응에 자신감도 높아지고, 학교적응을 잘하고 부모-자녀관계 역시 친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외체계 변인은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버지가 부모교육을 받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다음으로, 외체계 변인은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머니가 부모교육에 관한 교육을 들을수록 어머니-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자녀양육 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장영진, 2000)와 일치한다. 부모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면서 자녀의 발달특성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며, 부모-자녀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안진홍, 2003)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우고 자녀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며, 또한, 자녀는 자신을 위한 부모의 노력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과 친밀함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물론 아버지의 부모교육 참여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버지-자녀관계와 다르게 어머니-자녀관계에서는 자녀의 지역사회봉사 경험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모교육 수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부모 중 어머니 역할의 범위가 넓고,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에서의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거시체계 변인은 아버지-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녀의 효의식이 높을수록 아버지-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역시, 거시체계 변인은 어머니-청소년자녀관계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녀의 효의식이 높을수록 어머니-자녀관계는 긍정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효(孝)의식이 높은 편이라는 연구결과(문현호, 1996; 박인기, 1999)와 연관되며, 우리나라 전통사상의 부모-자녀관계인 부자자효(父慈子孝) 사상의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의 청소년들이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강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있다는 시각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사상 중에 하나인 효(孝) 사상이 청소년들의 의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유아기 시기부터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가정교육에서의 실천적인 측면, 학교에서의 교육적인 측면, 넓게는 사회교육 장면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뿐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우리나라 부자자효(父慈子孝) 사상에 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전개되어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그 이후의 자녀관계, 부부관계, 대인관계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식의 토착심리학적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며, 우리의 문화, 우리 전통사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들을 살펴본 결과, 가정환경 미시체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지원 중 정서적 지원이라는 것이다. 즉,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힘들 때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을 청소년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에게 바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신의 문제가 아닌 부모간의 갈등의 정도가 자녀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관계의 친밀감을 주고, 부모간의 애정 정도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더불어 부모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동특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은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재강조해주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학업성적은 부모-자녀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청소년의 학교수업의 참여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학업성적이라는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과정적인 측면인 학교수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것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그들을 둘러싼 미시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Bronfenbrenner(1992)의 이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Bronfenbrenner(1992)의 연구에서는 체계가 외부로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시체계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부모-자녀관계라고 설명하기 보다는 문화적이고 토착심리학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구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인 효(孝)사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청소년,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 관계 교육이나 상담에서 현대적 의미로 발전된 효(孝) 사상이나 효행을 십분 활용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하나의 전통 문화로만 자리하고 있는 답 높은 효(孝)사상이 아니라 오늘날의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실천적 효(孝)의 필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연구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 연구에서 서양의 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장면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개인이나 가정환경에만 국한된 탐색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적(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접근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전체 환경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탐색하는 것이 보다 실증적이고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구체적인 것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자녀관계에 청소년의 효 의식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비록 유기체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시체계이지만 보다 근원적이고 현실적이며, 심도 있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문제는 부모-자녀관계와 가장 밀접하므로 생태체계 접근에 근거하여 부모와 청소년자녀관계를 조망해 보고 청소년을 이해하고, 문제 예방차원에서 효 의식과 같은 거시체계 관점에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문화적이고 체계적인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고남숙(1997).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자녀관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병채(1990). 자아개념, 귀인성향,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상호관계 및 그 변인들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영옥,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경신(1991). 부모와 또래에 대한 청소년의 지향성 연구. 목포대학교 논문집, 287-303.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아(1997).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기질과 형제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 박영신(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 김의철, 박영신(1999). 한국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1997). 부모의 학업기대가 시험불안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진(2003).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학교적

- 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권(1979). 완전학습의 원리. 서울: 배영사.
- 마은숙(2000). 중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관한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현호(1996). 초·중·고교생의 효행과 효의식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순(1995). 가정환경 및 학급사회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남옥(2003). 부모-자녀관계와 친구관계 및 자아개념간의 분석.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석(1993). 동과 서. 서울: 탐구.
- 박보경(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간 갈등과 또래 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 어머니와 딸 두세대간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4), 189-197.
- 박성연(1994).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와 또래지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배(1985). 자기충족적 예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6.
- 박인기(1999). 효교육을 위한 중학생의 효의식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황(1989). 전통윤리의 현대적 재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9-117.
- 상미현(199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 선행변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진홍(2003). 감수성 훈련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진영(1998).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부모간 갈등, 부모-자녀관계 사이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유미(1999).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만족도, 의사결정유형과 자녀 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 단기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화(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1999). 부모간 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국(1998).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관계와 정신건강과의 상관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주(1998). 정 상호작용 행위유형의 문화심리적 기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주(2003).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하(2003).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진(2000). 청소년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갑순(2002).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1996).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모색.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보고서.
- 정유진(2000).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화용(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혜연(2000).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 및 또래지위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유승엽(1994).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에 관한 심리학적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인문학연구, 21.
- 최상진, 유승엽(1995).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 원천 탐색,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 8(1), 85-111.
- 최상진, 김의철, 유승엽, 이장주(1997). 한국인의 정 표상,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553-573.
- 최효순(2001). 청소년들의 진로태도 성숙과 사회환경 및 개인 변인과의 인과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주(1989). 부모의 성 및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

- 치관과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숙(1999). 학교내 집단괴롭힘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te, J. E.(1980).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6, 299-319.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rnstein, Marc H., & Bradley, Robert H.(2003).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in Parenting Serie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1992).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이영 역, 인간발달생태학). 서울: 교육과학사.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Dubow, E. F., & Ullman, D. G.(1989).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The survey of adolescent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52-64.
- Dumas, J. E., & LaFrenter, P. J (1993). Mother-Child relationship as source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Fulgini, A. J., & Eccles, J. S. (1993).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early adolescent's orientation toward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22-632.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Kim, U., & Choi, S. C.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In P. M. Greenfield & R. R. Coo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e, C. L. & Bate, J. E.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ere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1314-1325.
- Main, M., & Weston, D. (1985). The qua's relationship to mother and father, *Child Development*, 52, 932-940.
- Milliones, J. (1978).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49, 1255-1257.
- Rolf E. Muuss(1999). *Theories of adolescence*. (정옥분, 윤중희, 도현심 역, 청년발달의 이론). 서울; 양서원.
- Simon, F. B., Stierlin, H., & Wynne, L. C.(1985). *The language of family therapy: A systemic vocabulary and source book*. New York: Family Process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05. 4.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4.

게 재 결 정 일 : 2005. 7. 14.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Parent-Adolescent Child Relationship

Kwang-Woong Kim

Soo-Kyung Mo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se ecological variables.

The ecological factors explored in this study were such variables as 4 organism, 12 microsystem(i.e., family, peer group and school), 3 mesosystem, 2 exosystem and 2 macrosystem variables.

The subjects were 425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recruited from 8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Kwangju City. Questionnaires were used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s temperament, parent's attitude to children, parents-child communication, inter-parental conflict perceived by children, parents support,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parent's expectation, peer-oriented attitude group preference, Filial conception, children attitude and parent's conception of children by parents' questionnaire. The results from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s belonged to microsystems, especially that of family environment, followed by macrosystem variable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was parent's emotional support.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microsystem variables were most significant factors in explaining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for both father-child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Key words : *ecological variables, parent-child relationship*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 경 집*
운천초등학교

연 문 희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혼가정 아동의 특성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하여 집단상담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선행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절차 분석을 토대로 상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아동 16명을 무선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8명씩 배정하여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는 교사용, 아동용으로 나뉘어졌다. 교사용 도구는 교사용 아동 평가 척도였고, 아동용으로는 아동의 평가 척도, 이혼 지각 척도, 부모 관계 척도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에서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아동의 이혼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이혼가정 아동의 삶에 대한 이해와 부모 이혼 후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이혼가정 아동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이혼, 이혼가정 아동, 아동의 이혼 적응, 가족구조 변화,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에도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사회적 이동의 결과로 대가족제도는 핵가족화되었고, 성차별 폐지와 남녀평등사상이 수용되면서 부부간의 관계도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양육 문제를 야기시켰고,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결손가정의 자녀 지도가 한국사회의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었다(연문희, 강진령, 2002).

가족구조의 해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이혼율 증가에 비례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한쪽과 살게 되는 아동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통계청(2004)에 의하면 2003년 연간 이혼은 16만 7천 건으로 2000년 12만 건에 비하여 4만 7천여 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91년의 4만 9천여 건에 비해 3.4배 증가하여 1일 평균으로 458건(쌍)이 이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70.4%로, 자녀가 2명인 경우가 34.9%로 가장 많고, 1명인 경우는 28.6%, 3명 이상인 경우는 4.8%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후 대부분의 아동들은 한쪽 부모와 함께 한 부모 가정에서 살게 되거나 양육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재혼 가정에서 살게 된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이혼가정 아동들은 가족관계와 가족내 역할의 변화를 겪게 되어 양부모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이삼연, 2002; Capaldi & Patterson, 1991). 즉 아동기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대개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으로 인한 불안, 우울, 외로움, 분노,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 정서적인

* 교신저자 : 김 경 집, (447-050) 경기 오산시 부산동 778-4 오산 운천초등학교
메일주소 : kjkim617@hanmail.net

문제로 고통받기도 한다(Amato & Keith, 1991; Emery, 1999; Emery & Forehand, 1994; Wallerstein, Kelly, & Blakelee, 2000). 게다가 부모 이혼 후 발생하게 되는 한쪽 부모의 상실이나 새로운 곳으로의 이사 그리고 학교 전학과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는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행동상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를 나타낸다. 그 결과 어떤 아이들은 심리적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정현숙, 1993; Amato & Keith, 1991; Emery, 1999).

그러나 이혼이 자녀들에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아동의 개인적 특성, 내적인 자원,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Emery, 1982, 1999; Hetherington, 1989; Kalter, Pickar, & Lesowitz, 1984). 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에 따른 차이(전숙영, 유안진, 1997; Amato & Keith, 1991; Stolberg & Bush, 1985), 성차(정현숙, 1993; Emery, 1982), 기질적 특성에 따른 차이(Hetherington, 1989)가 있다. 아동의 내적인 자원으로는 의사소통 기술이나 대처 능력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Cowen, Pedro-Carroll, & Alpert-Gillis, 1990; Emery, 1982, 1999). 또한 이혼 적응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의 활용 가능성(Kurdek, 1981)이 있다. 양육부모와의 개방적인 대화(정현숙, 1993), 집단상담 프로그램(Emery, Kitzmann, & Waldron, 1999; Kalter et al., 1984, Pedro-Carroll & Cowen, 1985; Stolberg, Cullen, & Garrison, 1982; Stolberg & Garrison, 1985)과 같은 지지적인 환경적 요인들이 아동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다.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돕는 환경적 요인 중에서 이혼 부모나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Kalter et al., 1984, Pedro-Carroll & Cowen, 1985; Stolberg, Cullen, & Garrison, 1982; Stolberg & Mahler, 1994). 이혼가정 아동이나 양육부모를 위한 놀이치료나 개인치료와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이혼중재과정이나 이혼상담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Emery et al., 1999). 개인적 접근보다 활발하게 연구되고 개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게 되는 아동에게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서로의 다른 경험과 문제들을 접할 수 있고, 집단에의 소속감을 갖게 됨으로써 안전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정문자, 김은영, 1999).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혼가정 아동은 적절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같은 경험을 가진 아동과의 접촉을 통해 불안감과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고, 변화에 대처하는 전략 및 해결능력을 학습함으로써 부모의 이혼에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돕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양육부모와 함께 아동이 집단에 참여하는 형태의 프로그램(Stolberg & Garrison, 1985)이나 아동에게 초점을 둔 프로그램(Kalter et al., 1984; Pedro-Carroll & Cowen, 1985)이 있다. 양육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이혼 부모가 자신의 이혼에 보다 긍정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양육방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의 적응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혼부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혼 부모의 적응과 만족수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Emery et al., 1999; Grych & Fincham, 1992).

아동에게 초점을 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혼과 관련된 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Kelly & Wallerstein, 1977)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Kalter et al., 1984; Pedro-Carroll & Cowen, 1985; Stolberg, Cullen, & Garrison, 1982)이 개발되었다.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70년대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유럽에서는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유럽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정문자, 김은영, 1999). 초기의 프로그램은 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이혼부모의 상담과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임상연구를 통해 도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Kelly & Wallerstein, 1977), 죽음의 수용단계를 적용한 상담프로그램 모형(Hozman & Froiland, 1976, 오은순, 2001, 재인용)의 형태로 치료적 접근을 하였다.

80년대에 들어 학교중심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용이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서(Kalter et al., 1984, Stolberg, Cullen, & Garrison, 1982)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학교는 집단적 개입을 위한 중요한 환경이다. 아동의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문제의 예방이나 조기진단이 가능한 곳이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학업에서나 교실 행동에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Drake, 1981; Emery, 1982; Hodges, 1991; Kalter et al., 1984).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외부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접근이 용이하고(Grych & Fincham, 1992; Pedro-Carroll, 1997),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또래나 교사를 통해서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Cowen et al., 1990; Drake, 1981; Kalter et al., 1984). 이와 같이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학교상황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모이혼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와의

만남을 통해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극복하고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혼가정의 아동이 가지는 심리적 발달 과제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아동의 연령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Wallerstein (1983)은 이혼가정 아동이 성취해야 할 심리적 과제를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가족 해체의 현실 인정하기, 일상적 활동 수준 유지하기, 상실감 극복하기, 분노와 자책감 극복하기, 이혼의 지속성 인정하기,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 갖기이다. 이러한 발달적 과업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연령과 관련된 연구(Emery, 1999; Hetherington, 1989; Wallerstein, Kelly, & Blakelee, 2000)에서 학령기 이전 아동은 부모의 이혼을 이해할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이어서 부모의 이혼을 자신과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러서야 부모의 이혼에 대해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부모의 이혼과정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고, 부모의 이혼 동기와 감정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Jupp & Purcell, 199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이혼가족 대상의 심리적 지원체계가 없으며 민간단체 몇 곳에서 이혼당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변화순, 1998),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복지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주소희, 2002)이거나 대집단 형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오은순, 2001)이었다. 주소희(2002)의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오은순(2001)의 연구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22명의 대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대집단으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집단 형태는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와 밀도 있는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소집단 형태로 부모의 이혼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적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 이혼으로 인한 감정을 이해하고, 같은 입장에 놓인 친구들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새로운 대처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부모에 대해 보다 나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혼가정 아동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연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방 법

프로그램 내용

상담영역에서의 프로그램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김광수, 1999; 박남숙, 2001; 이명우, 2004; 정승진, 2000; 주영아, 2001)을 분석해 보면, 프로그램 개발 과정, 최종 개발한 프로그램 그리고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로 나뉘어져 진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한 결과,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적응과 관련된 요인 탐색, 선행 연구를 통한 구성요소 도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및 평가전략 수립, 그리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시안 제작, 시범실시 및 수정·보완의 체계적인 절차를 상정하였고, 이 절차에 준하여 최종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의 체계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구성되고 보완된 본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 및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하위목표를 두었다. 첫째, 지지적 집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형태와 진행은 집단원간의 지지적인 자세를 고양하도록 구성하여 아동들의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완화해주고, 유대감과 신뢰감을 촉진시켜준다. 둘째,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 형태의 변화와 그로 인한 긴장과 불편감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집단원들을 통해 공감받게 됨으로써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부모에 대한 분노와 비난의 감정을 명료화할 수 있다. 아동들은 인지적 이해능력의 결함이나 성인과 같은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부모 이혼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압도당하기 쉽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을 명료화하고 부모에 대한 분노와 비난 감정을 집단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하게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이혼과 관련된 잘못된 개념을 명료화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을 자신이 행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자책하기 보다 외적 요인으로 귀인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부모의 이혼에 대한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다섯째,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이혼과정과 관련된 많은 생활의 변화(이사, 전학, 비양육부모와 접촉, 양육부모와 시간보내기, 한 부모의 이성과의 교제 등)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지지적인 집단환경 속에서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아동의 인식을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총 8회기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전체 요약

회기	제 목	목 표	내 용	방 법	시 간
1회	프로그램 소개와 서로 알아가기	1)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지지적 집단환경을 조성한다. 2) 아동 자신과 다른 참가아동의 감정을 인지하고 명료화하도록 돕는다. 3) 프로그램의 규칙을 이해하고 참가자로서의 의무를 숙지한다.	•사전 검사 •자기 소개하기 •프로그램 소개하기 •규칙 정하기	평가설명 주제나눔	60분
2회	가족구조 변화 다루기	1) 참가 아동이 자신과 이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2) 이혼이 부모의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3) 이혼은 아동에게나 부모에게나 모두 어려운 시간임을 이해하게 한다.	•이혼 과정 토론 •불편하고 힘들었던 점 나누기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부모의 입장에서)	설명 주제나눔	60분
3회	분노와 부모 비난 감정 다루기	1) 분노에 대해 명료화하고 그 원인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2) 부모의 이혼에 대한 분노 감정을 명료화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게 해준다. 3) 부모에 대한 아동의 충성감들을 이해하고 지지해 준다.	•부모 이혼에 대한 감정 다루기 •분노 감정 공유하기 •충성감등 토론하기	설명 주제나눔 역할놀이	60분
4회	이혼 개념 이해와 자책감 극복하기	1) 이혼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명료화하게 한다. 2) 부모 이혼의 원인이 다양함을 파악하게 한다. 3) 부모 이혼의 원인이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자책감을 극복하게 한다.	•이혼 이유에 대한 인지적 이해 •부모 이혼 외적 요인 파악하기 (부모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	설명 주제나눔	60분
5회	문제 해결 방법 학습	1) 사회적 문제해결 단계를 이해한다. 2)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을 친구 관계나 다른 학교 적응과 관련지을 수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 단계 학습하기 •문제해결 기술 일반화하기	설명 주제나눔 적용	60분
6회	문제 해결 방법 적용	1)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을 실제 생활 문제와 연관이 지어 적용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에서 아동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다.	•실생활 적용하기 •해결가능한 문제와 불가능한 문제 구분하기	설명 주제나눔 적용	60분
7회	이혼의 지속성 인식하기	1) 부모의 이혼의 지속성에 대해 인식한다. 2) 가족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을 새롭게 정립해 갈 수 있다.	•이혼 지속성 인식 •다양한 가족형태 탐색하기 •가족 변화가능성 탐색하기	설명 주제나눔	60분
8회	정리 및 평가	1) 집단경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2) 아동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을 탐색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발표 •지속적인 노력 다짐 •사후 검사	발표 평가	60분

프로그램 평가

대 상

타인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지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집단상담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의 이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에게 참가

동의서를 배부하여, 참가 동의서를 보낸 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참여 희망 여부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적절성을 판단하여 3명을 제외한 16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8명씩 무선 배치하였다. 실험집단은 2004년 5월 24일 시작하여 7월 12일까지 8주간에 걸쳐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통제집단은 대기집단으로서 아무런 처치가 없었으며, 그 대신 2004년 후반기에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프로그램 시행 첫날인 5월 24일에 참가아동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7월 12일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통제집단도 실험집단과 같은 날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도 구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을 고려한 도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교사용 아동 평가 척도, 아동 평가 척도, 아동의 이혼지각 척도, 부모-아동 관계 척도 4가지이다.

교사의 평가는 실험집단의 아동이 소속해 있는 반의 담임교사 7명(실험집단 5명, 통제집단 6명, 4반 중복)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사 평가는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 같은 시기에 담임교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아동은 모두 7개 반(중복 4개 반)에서 표집 되었고, 사전과 사후 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실시하였다.

교사용 아동 평가 척도

아동의 적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사의 아동평가척도(T-CRS: Hightower, Work, Cowen, Lotyczewski, Spinell, Guare, & Rohrbeck, 1986)를 사용하였다. 총 38문항으로 18개 문항은 아동의 학교 적응 문제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고, 20개 문항은 학교에서의 아동의 능력(competency)에 관련된 문항이다. 학교 적응을 묻는 문항에 대해 교사는 각 항목에 대해 (1) “문제가 없다”에서 (5)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아동을 평가한다. 요인 분석에서는 산만정도(Acting-Out), 부끄럽고 불안함(Shy-Anxious), 그리고 학습문제(Learning Problems)의 3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되었다. 각 요인에서 높은 점수와 총점에서 높은 점수는 더 높은 수준의 부적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후반부 20개 문항은 학교에서의 아동의 능력(competency)에 관련된 문항이다. 교사는 아동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 (1) “전혀 잘 하지 못한다”에서 (5) “매우 잘 한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아동을 평가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하위 척도를 좌절에 대한 인내, 자기 주장성, 과제 지향성, 그리고 또래 교제 기술로 구분하였다. 각 요인에서 높은 점수와 총점에서의 높은 점수는 더 높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문항은 본 연구자가 번역하였고, 상담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인과 박사과정 1명, 현직 교사(상담 석사 학위 소지자)가 내용검증을 하였다. 원 평가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중간값은 .91이고 각 하위

영역은 .75에서 .95이며, 본 연구에서는 .67에서 .93로 나타났다.

아동 평가 척도

아동의 학교적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Hightower, Cowen, Spinell, Lotyczewski, Guare, Rohrbeck, 그리고 Brown(1987)이 개발한 'Child Rating Scale(CR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3점 리커트 척도이며 규칙 순응/산만, 움츠림/불안, 또래 교제 기술, 학교 흥미의 4개 영역으로 각각 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규칙 순응/산만(Rule Compliance/Acting Out) 영역은 학교나 학급 규칙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는 것이고, 움츠림/불안(Withdrawal/Anxiety) 영역은 곤경에 대한 내적 반응의 지각 정도를 아동자신이 평가하는 것이며, 또래 교제 기술(Peer Social Skills) 영역은 또래를 사귀는데 있어서의 자신감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평가하는 것이다. 학교 흥미(School Interest) 영역은 학교 관련 행동에서 아동의 지각과 흥미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각 요인에서 높은 점수와 총점에서의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문항은 본 연구자가 번역하였고, 상담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인과 박사과정 1명, 현직 교사(상담 석사 학위 소지자)가 내용검증을 하였다. 참가대상자의 각 영역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71, .89, .85, .82 였다.

이혼 지각 척도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 척도는 Pedro-Carroll과 Cowen(198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척도는 부모의 이혼에 자신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점은 15점에서 60점의 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변화에 좀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과정은 아동평가 척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원 연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75로 나타났다.

부모-아동 관계 척도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etherington과 Clingempeel(1992)이 개발한 'Family Relationship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주 양육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친숙함(closeness) 영역 17 문항, 갈등(conflict) 영역 7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친숙함 영역에서 높은 점수는 부모와 아동의 친밀함이 높다고 아동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갈등 영역에서의 높은

점수는 부모와 아동 사이의 갈등 수준이 높다고 아동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은 위의 척도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각각 .92, .87 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Windows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통계처리 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각 척도에 대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집단별로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요소별로 분류되어 있는 교사의 평가와 아동 자신의 행동평가는 요인별로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무선배치된 피험자들의 개인차 변인에 의해 생긴 오차를 없애고 순수한 처치효과를 추출해내기 위함이다.

결 과

교사의 아동 평가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교사의 아동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검사비교

척도명	집단 구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평균	표준 편차	t	평균	표준 편차	t
산만정도	사 전	2.40	.46	1.21	2.43	.52	0.48
	사 후	2.20	.44		2.34	.57	
부끄럼/불안	사 전	2.56	.46	3.36**	2.63	.60	0.40
	사 후	2.01	.50		2.56	.57	
학습문제	사 전	3.35	.42	1.30	3.30	.49	0.50
	사 후	3.11	.40		3.21	.52	
좌절에 대한 인내	사 전	3.05	.58	3.50**	3.22	.57	1.43
	사 후	3.70	.57		3.51	.59	
자기주장성	사 전	2.25	.48	1.35	2.30	.41	1.28
	사 후	2.50	.44		2.51	.50	
과제지향성	사 전	2.53	.45	1.42	2.44	.45	0.15
	사 후	2.82	.47		2.50	.48	
또래교제 기술	사 전	2.70	.41	3.61**	2.60	.52	0.56
	사 후	3.25	.51		2.49	.46	

** $p < .01$

이와 같이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산만 정도, 학습 문제, 자기주장성, 과제지향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끄럼/불안 영역($t=3.36, p<.01$), 좌절에 대한 인내($t=3.50, p<.01$), 또래 교제 기술($t=3.61, p<.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용 프로그램 실시 결과 교사의 평가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나 불안한 양상은 완화되었으며,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향상되었고, 또래 교제 기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위영역별 분석을 토대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험집단 아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 영역 중 학교 적응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학교 적응 요인 ANCOVA 결과 요약표

구분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사전(공변인)	21.65	1	21.65	2.84*
집단	22.04	1	22.04	2.89*
오차	99.06	13	7.62	
합계	142.75	15		

* $p < .05$

이와 같이 실험집단 아동에 대한 교사의 학교 적응 요인에 대한 평가에서 집단간의 주효과는 $F=2.89, p<.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아동 능력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아동 능력 요인 ANCOVA 결과 요약표

구분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사전(공변인)	26.65	1	26.65	2.60*
집단	27.50	1	27.50	2.68*
오차	133.12	13	10.24	
합계	187.27	15		

* $p < .05$

이와 같이 실험집단 아동에 대한 교사의 아동 능력 요인에 대한 평가에서 집단간의 주효과는 $F=2.68, p<.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

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아동 능력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동 평가

행동 평가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사전·사후 아동의 자기 행동 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비교는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하위영역별 사전 사후 검사 비교

척도명	집단 구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평균	표준 편차	t	평균	표준 편차	t
규칙 순응/산만	사전	2.08	.25	-2.64*	2.11	.23	0.11
	사후	2.33	.20		2.07	.30	
움츠림/불안	사전	1.81	.33	-2.71*	1.92	.35	0.85
	사후	2.10	.36		2.01	.31	
또래 교체 기술	사전	2.13	.35	-2.89*	2.07	.32	1.54
	사후	2.50	.33		2.24	.42	
학교 흥미	사전	1.77	.35	-2.79*	1.80	.38	0.92
	사후	2.13	.34		1.90	.46	

* $p < .05$

이와 같이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규칙 순응/산만 영역($t=2.64, p<.05$), 움츠림/불안 영역($t=2.71, p<.05$), 또래 교체 기술($t=2.89, p<.05$), 그리고 학교 흥미 영역($t=2.7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 자신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아동 평가 ANCOVA 결과 요약표

구분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사전(공변인)	30.26	1	30.26	2.89*
집단	32.88	1	32.88	3.15*
오차	135.72	13	10.44	
합계	142.75	15		

이와 같이 실험집단 아동의 학교 생활에 대한 자신의 평가

에서 집단간의 주효과는 $F=3.15, p<.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혼 지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이혼에 대한 지각 정도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혼지각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비교는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혼지각 사전 사후 검사 비교

척도명	집단 구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평균	표준 편차	t	평균	표준 편차	t
이혼 지각	사전	2.04	.38	-2.58*	2.10	.33	1.34
	사후	2.56	.41		2.22	.40	

* $p < .05$

이와 같이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이혼 지각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58, p<.05$)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용 프로그램 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이혼 지각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부모 자녀 관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지각 정도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모-자녀 관계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비교는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모 자녀 관계 사전 사후 검사 비교

척도명	집단 구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평균	표준 편차	t	평균	표준 편차	t
친숙함	사전	3.22	.42	-3.44**	3.08	.43	1.15
	사후	3.99	.47		3.19	.42	
갈등	사전	3.02	.50	2.59*	3.18	.49	0.98
	사후	2.54	.48		3.27	.46	

* $p < .05$, ** $p < .01$

이와 같이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친숙함 영역($t=3.44, p<.01$)과 갈등 영역($t=2.59$,

$p < .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 프로그램 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에서 겪게 되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 경험과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자신의 인식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적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고학년의 이혼 아동에게 적용한 결과, 교사의 평가와 아동 자신의 평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부끄럼/불안 영역, 좌절에 대한 인내, 또래 교체 기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인 향상을 보인 것은 Stolberg와 Mahler(1994)의 연구와 Pedro-Carroll, Alpert-Gillis와 Cowen(1992)의 연구와 Pedro-Carroll, Sutton과 Wyman(1999)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Pedro-Carroll 등(1992, 1999)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평가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만 정도, 학습문제 영역, 자기주장성 영역, 과제지향성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문제 영역이나 과제지향성 영역은 누적된 공부 습관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8주의 단기간의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자기 주장성 영역에서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학급에서 두드러지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유의미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이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가족구조 변화, 이혼 개념 등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또래관계와 연관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학교생활의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보완적인 교육적 내용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요소가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의 학교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 자신의 평가 영역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

교하여 규칙 순응/산만 영역, 움츠림/불안 영역, 또래 교체 기술 영역, 학교 흥미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tolberg와 Garrison(1985) 연구와 Stolberg와 Mahler(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소집단 경험을 통해 이혼가정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완화할 수 있다(Alpert-Gillis, Pedro-Carroll, & Cowen, 1989). 같은 경험을 공유한 또래와의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불안하고 움츠렸던 생활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학교에 흥미도가 높아지면서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또래와의 교체 기술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의 자기 평가 결과는 교사의 아동 평가 영역 중 규칙 순응/산만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아동은 집단경험을 통해 학교에 대한 흥미와 참여 정도가 높아져서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향상되고, 산만한 정도도 의미 있게 낮아졌다고 인식하는 반면, 교사는 아동의 산만한 정도가 유의미하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실 내 행동변화가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만큼 객관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아동의 이혼 지각 평가 영역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Stolberg 등(1985, 1994)의 연구나 Pedro-Carroll, Cowen, Hightower, 그리고 Guare(198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험은 부모의 이혼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 주며,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극복해 주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겨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숙달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지각에서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험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주고,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Kalter et al., 1984; Pedro-Carroll & Cowen, 1985, 1987; Pedro-Carroll, Cowen, Hightower, & Guare, 1986; Stolberg et al., 1985, 1994)의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 아동은 집단경험을 통해 부모의 이혼에 대해 좀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의사소통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변화된 가족의 형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게 되어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전술한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평가 결과 및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내용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상정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이혼가정 아동의 특성, 발달적 과제, 긍정적 적응 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출한 구성요소들을 이혼가정 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족구조 변화 이해, 분노감정 이해, 이혼 개념 이해, 자기 비난 극복,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이혼 지속성 인식 등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셋째,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아동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해결 단계에 대한 학습과 적용을 통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지지적 환경 속에서 같은 경험을 가진 아동들과의 집단모임을 통해 부모에 대한 비난 감정을 극복함으로써 이혼가정 아동이 양육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및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집단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적응의 관점에 기초하여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이혼가정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주로 이혼 부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었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복지기관이나 종교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혼가정 아동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에서의 적응은 미래 아동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학교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은 그 의미가 클 것이다. 둘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아동 자신의 평가뿐만 아니라 교사의 아동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 아동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산만 정도와 같은 영역에서 교사의 객관적인 평가와 아동 자신의 평가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아동이 자신의 변화에 대한 지각만큼 교사가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는 실제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는데 적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고 고립감과 소외감을 극복하며 자조집단을 통해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전술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중소도시의 아파트 단지내 한 학교의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부모의 이혼 후에는 경제적 수준의 하락으로 인해 부모의 이혼 전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 및 학구로의 이사과 전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외곽 지역 소재 학교의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보다 정교화시켜 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 아동은 부모의 동의와 본인의 참여 의사가 있는 아동으로 국한하였다. 이혼 사실이 드러나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양육부모를 가진 아동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이혼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양육부모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아동의 적응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양육을 위해 학교와 연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보다 효과적이지만 본 프로그램은 이혼가정 아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 이혼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이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의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는데 한계를 가지므로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해 아동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을 5, 6학년에 국한하여 운영하였다. 아동의 연령, 성별, 그리고 부모의 이혼기간에 따른 아동의 적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령대가 다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부모의 이혼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집단 구성을 통해 세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남숙 (2001).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화순 (1998). *이혼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한국가족학회 1998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 연문희·강진령 (2002). *학교상담 : 21세기의 학생생활지도*. 서울 : 양서원.
- 오은순 (2001).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9(1), 19-45.
- 이명우 (2004). *상담사례개념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삼연 (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5.

- 전숙영·유안진 (1997).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 지각. 서울대 생활과학연구, 22, 55-64.
- 정문자·김은영 (1999). 이혼가족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의 탐색. 연세대 생활과학논집, 13, 108-119.
- 정승진 (2000). 완벽성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 (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주소희 (2002). 이혼가정자녀의 부모 이혼 후 심리 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77-109.
- 주영아 (2001). 복교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4). 혼인-이혼 통계발표.
- Alpert-Gillis, L. J., Pedro-Carroll, J. L., & Cowen, E. L. (1989).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program for young urba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5), 583-589.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Capaldi, D. M., & Patterson, G. R. (1991). Relation of parental transitions to boys' adjustment problems: 1. A linear hypothesis; 2. Mothers at risk for transitions and unskille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89-504.
- Cowen, E. L., Pedro-Carroll, J. L., & Alpert-Gillis, L. J. (1990). Relations between support and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5), 727-735.
- Drake, E. A. (1981). Helping children cope with divorce: The role of the school. In I. Stuart, & E. E. Abt (Eds.), *Children of Separation and Divorce: Management and treatment*(pp.147-172),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Emery, R. E.(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2), 310-330.
- Emery, R. E. (1999). Postdivorce family life for children, In Thompson, R. & Amato, P. (Eds.), *The Postdivorce Family: Children, Parenting, and Society*(pp. 3-27), SAGE Publications.
- Emery, R. E., & Forehand, R. (1994).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pp. 64-9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ery, R. E., Kitzmann, K. M., & Waldron, M. (1999).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separated and divorced families. In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pp. 323-344). Mahwah, NJ: Erlbaum.
- Grych, J. H., & Fincham, F. D. (1992).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ce: Towards greater integration of research and a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434-454.
-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Hetherington, E. M., & Clingempeel, W. G. (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s: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 227) 57*, Nos. 2-3.
- Hightower, A. D., Work, W. C., Cowen, E. L., Lotyczewski, B. S., Spinell, A. P., Guare, J. C., & Rohrbeck, C. A. (1986). The Teacher-Child Rating Scale: A brief objective measure of elementary children's school problem behaviors and competencies. *School Psychology Review, 15*, 393-409.
- Hightower, A. D., Cowen, E. L., Spinell, A. P., Lotyczewski, B. S., Guare, J. C., Rohrbeck, C. A., & Brown, L. P. (1987). The Child Rating Scale: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refinement of a socioemotional self-rating scal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School Psychology Review, 16*, 239-255.
- Hodges, W. F. (1991).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ce: Custody, Access, and Psychotherapy*. NY: John Wiley & Sons.
- Hozman, T. L., & Froiland, D. J. (1976). Families in

- divorce: A proposed model for counseling the children. *The Family Coordinator*, 25, 271 - 276. 재인용 : 오은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9, 1999), 23.
- Jupp, J. J., & Purcell, I. P. (1992). A school-based group programme to uncover and change the problematic beliefs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1), 17-29.
- Kalter, N., Pickar, J., & Lesowitz, M. (1984). School-based developmental facilitation groups for children of divorce: A preventive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 613-623.
- Kelly, J. B., Wallerstein, J. S. (1977). Brief intervention with children in divorcing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23-39.
- Kurdek, L. A. (1981). An integrative perspective on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36(8), 856-866.
- Pedro-Carroll, J. L. (1997).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Fostering resilient outcomes for school-aged children. In G. W. Albee & T. P. Gullotta (Eds.), *Primary prevention works: Issues in children's and families' lives*(pp. 213-238). Thousand Oaks, CA: Sage.
- Pedro-Carroll, J. L., Alpert-Gillis, L. J., & Cowen, E. L. (1992). An evaluation of the efficacy of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4th-6th grade urba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3(2), 115-130.
- Pedro-Carroll, J. L., & Cowen, E. L. (1985).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An investigation of the efficacy of a school-based prevention progra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603-611.
- Pedro-Carroll, J. L., & Cowen, E. L. (1987).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time limited group approach.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4, 281-307.
- Pedro-Carroll, J. L., Cowen, E. L., Hightower, A. D., & Guare, J. C. (1986). Preventive intervention with latency-aged children of divorce: A replica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3), 277-290.
- Pedro-Carroll, J. L., Sutton, S. E., & Wyman, P. A. (1999). A two-year follow-up evaluation of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of divorce. *School Psychology Review* 28(3), 467-476.
- Stolberg, A. L., & Bush, J. P. (1985). A path analysis of factors predicting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11(1), 51-70.
- Stolberg, A. L., Cullen, P. M., & Garrison, K. M. (1982). The divorce adjustment project : Preventive programming for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preventive psychiatry*, 3(1), 365-368.
- Stolberg, A. L., Garrison, K. M. (1985). Evaluating a primary prevention program for children of divorce: The Divorce adjustment projec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2), 111-124.
- Stolberg, A. L., & Mahler, J. (1994). Enhancing treatment gains in a school-based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divorce through skill training, parental involvement and transfer proced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1), 147-156.
- Wallerstein, J. S. (1983). Children of divorce: The psychological tasks of the chil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230-243.
- Wallerstein, J. S., Kelly, J. B., & Blakelee, S. (2000).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New York: Hyperion.

원 고 접 수 일 : 2005. 4.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4.
게 재 결 정 일 : 2005. 7. 14.

A Study on Development of School-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hildren of Divorce

Kyong-Jip Kim
Uncheon Elementary school

Moon-Hee Yo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stematically develop a school-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adjustment of children who have difficulties after their parent's divorce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uch developed program. In obtaining such purposes traits and developmental tasks of divorced children and the factors that had affected divorce children's adjustment was analyzed. And in following the systematic program development procedure presented by analysing the previous studies, the school-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finally made.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was evaluated by the final 16 applicants. Then 8 applic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randomly administrated whereas the rest 8 were administrated in the control group as the waiting group. The assessment instruments were divided into Teacher's rating scale and Student's rating scales. Teacher's rating scale was T-CRS(teacher-child rating scale) and student's rating scales were CRS(child rating scale), divorce perception scale, parent-child relationship scale. In conclusion this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children's adjustment ability, in the divorce perception of children of divorce, and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is study contributes to an increase of the understanding life experience of divorced children and their postdivorce adjustment proces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it is effective for the divorced children to adjust well through the school-based group counseling experience.

Key words : divorce, children of divorce, children's adjustment after divorce, family structure change, school-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청소년을 위한 다차원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MSPIUA)의 개발 및 타당화 : 2부-심리적 원인 척도(MSPIUA-C)

문 성 원*
우석대학교

김 성 식
한국교원대학교

이 봉 건
충북대학교

이 연구는 청소년의 병리적인 인터넷 이용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MSPIUA)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총3부로 구성된 MSPIUA에서 2부: 심리적 원인 척도(MSPIUA-C)에 대한 문항 개발 및 타당도 검증 과정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연구진이 개발한 잠정적 문항들을 전문가 평정을 거친 후 예비 척도로 정리하여,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생 819명에게 실시하고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자기 효능감, 충동성, 가족 응집성, 교사 지지, 문제 해결 능력, 친구 지지, 무기력/낮은 자존감, 사회적 유능감, 낮은 분노 조절능력의 9요인이 확인되었고, 이들 9개 요인을 대상으로 한 상위 요인 분석에서는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이루어진 2 요인 구조가 밝혀졌다.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된 심리적 원인 척도가 증상 척도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소척도를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MSPIUA 2부 척도와 1부 척도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소척도별로는 MSPIUA-C중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과 1부 척도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병리적 인터넷 이용에 대한 원인론으로서의 심리적 특성들이 증상에 대하여 가지는 기여 정도가 논의되었고, 3부 척도와 관련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주요어 : 병리적, 인터넷, 청소년, 타당도, 심리적 원인, 증상

인터넷이 이미 일상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린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인터넷의 이용이 병리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의 병리적 이용이 어떠한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다각도에서 규명한 후, 원인과 결과 모두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병리적 인터넷 이용에 대한 다차원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 우선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다면, 병리적 인터넷 이용에 대한 치료와 예방

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 되고 있는 병리적 인터넷 이용 관련 연구들은 원인 부분을 아직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관 도구의 개발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Young의 인터넷 중독 척도(1998)이후,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증상을 평가하는 도구가 일부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을 뿐(강만철, 오익수, 2001;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Widyanto & McMurrin, 2004; Beard, 2005), 원인 관련 척도는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2-B20169)

* 교신저자 : 문 성 원, (565-701) 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언론광고심리학과

메일주소 : drswmoon@hanmail.net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심리적 변인과 인터넷 중독간의 단순 상관을 다룬 연구는 비교적 많은 수가 있지만,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인과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단편적 시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개별 변인들이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중복적이다. 상당수의 관련 변인들이 다루어진 만큼 이제 그러한 연구들은 병리적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전체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Davis(2001)의 “병리적 인터넷 이용에 관한 인지행동적 모형”은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을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조망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Davis(2001)는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변인들을 증상의 발생에 대한 필요 요인과 충분 요인으로 체계화하여 정리함으로써, 증상과 관련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원인론 중에서 왜 어떤 것은 증상의 발생에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Davis(2001)의 모형은 원거리 기여 요인과 근거리 기여 요인간의 구분중에 개념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다. Davis(2001)는 부적응적인 인지를 증상에 대한 충분 요인, 즉 근거리 기여 요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나뉘어지는 부적응적 인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원거리 요인들 중 일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 특성일 수 있다. 즉, Davis(2001)의 근거리 요인은 원거리 요인 중의 매우 세분화된 한 부분 집합일 가능성이 있다.

장재홍과 신효정 (2003)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Davis(2001)와 마찬가지로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과정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수동적 대처, 무망감, 스트레스 지각, 인터넷 중독에 대한 위험성 자각이 보상 경험을 예언하며, 보상 경험은 정상 단계와 인터넷 중독 단계의 중요한 매개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재홍 등(2003)이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보상 경험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들을 보면 문항들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 질문지 문항중 현실 도피적 행동 경향성, 인터넷 관련 대인관계 지향성,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 감정 유발 등은, 인터넷 보상 질문지상의 여러 문항들과 중복된다. 즉, 개념상으로는 이들 두 개념이 구분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두 설문지 문항들 중 많은 부분은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증상을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박성길과 김창대(2003)는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에 대한 보다 정돈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주변 환경 관련 위험 요소 및 개인 관련 위험 요소와 더불어 인터넷 관련 위험 요소를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에 포함시킴으로서 원인에 대한 보다 더 다각화된 견해를 제시했다. 인터넷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점은 앞서의 연구들과 구분되는 매우 중요

한 부분이나, 이들의 연구는 병리적 인터넷 이용을 위험 요소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병리적 인터넷 이용을 위험 요소의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지만 증상의 발생과 관련된 유의미한 보호 요인을 찾아서 이를 강화시켜주는 일 또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위치를 고려할 때, 보호 요인의 강화를 통한 유능성 수준에 증진은 미래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Catalano 등, 2002).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을 적절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매체임을 고려해야한다.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 또한 인간 요인과 인터넷 요인 모두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을 위험 요소에 의해서만 접근하기보다는 보호 요소에 의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병리적 인터넷 이용은 위험 요소에 의해서 촉발되기도 하지만 보호 요소에 의해서 억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함께 고려한 원인론은 평가나 개입 등의 상황에서도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효과적인 개입, 특히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병행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도구의 마련이 가장 우선적이다. 평가 도구와 개입 프로그램이 서로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져 있을 경우, 개입 프로그램은 임상적으로 더욱 타당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부터 결과까지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도구가 있을 때, 예방 프로그램은 보다 시스템화 될 수 있고, 학교와 학부모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증상 뿐만 아니라 원인까지 단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면, 학기의 시작과 동시에 즉각적 치료요구 집단과 잠재적 위험 집단을 구분해 낼 수 있고, 관련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 분석에 의해서 임상적으로 보다 더 타당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다. 심리학적 서비스의 형태 또한 전문가 중심의 직접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교사를 지원해주는 간접적 서비스까지도 가능해지게 된다.

청소년을 위한 다차원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MSPIUA: 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척도이다. 총 3부로 이루어진 MSPIUA는 1부 척도를 통해 증상을 평가하고 2부와 3부 척도를 통해 심리적 원인을 탐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부와 2부는 리커트 척도로 만들어져 있다. 분량의 문제로 인해 각각의 부분들이 모두 분리되어 소개되고 있는데, 1부 증상 척도(MSPIUA-S: 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는 기존의 인터넷 중독 척도들이 다루지 못한 다양한 증상들을 고르게 포괄할 수 있는 척도임이 타당화 연구를 통해 입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부 심리적 원인 척도(Caus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MSPIUA-C)에 대한 개발 및 타당화 과정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원인과 인터넷 이용 행태 그리고 주변 요인이 모두 각각의 몫을 가지고 병리적 결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만큼, MSPIUA의 전체 구성에서 2부 심리적 원인 척도와 3부 이용 행태 및 환경 척도 모두가 일정 부분 1부 증상의 유발에 기여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따라서, 총 3부로 이루어진 전체 MSPIUA 각 부분에 대한 타당화를 완료하고 나면, 각 척도들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시 분석해야할 것이다.

2부 심리적 원인 척도의 개발은 척도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병리적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유관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데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원인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언급되어온 개념들을 모두 정리하여 문항을 개발한 후 이를 타당화하게 되면, 개념들간의 중복성이 배제된 구인 세트를 얻을 수 있고, 원인론과 관련되어 지금까지 언급되어온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정돈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 정리는 원인에서 결과로 이루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활용되기에 용이하다.

본 연구는 크게 2 단계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청소년의 병리적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심리적 원인 변인들을 검토하여 잠정적 문항들을 생성해낸 후 이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였고, 다음으로,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타당화는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잠정적으로 개발된 예비 MSPIUA-C 문항을 분석한 후 전체 척도와와의 상관이 낮은 문항이나 혹은 다른 문항과 지나치게 상관이 높은 문항, 그리고 지나치게 편포된 반응을 보인 문항들이 전체 척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돈된 예비 MSPIUA-C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 셋째, 최종적으로 확정된 MSPIUA-C의 소척도들이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증상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방 법

대 상

이 연구는 2003년 5월에 ‘인터넷 습관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인터넷

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학년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각 학교의 2학년생들만이 설문 대상이 되었다. 총 819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분석에는 총 749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성별 문항에 표시를 한 응답자중 남학생이 424명(55.1%), 여학생은 346명(44.9%)이었으며, 중학생이 162명(19.8%)이었고, 고등학생이 657명(80.2%)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26명(27.6%), 대구 190명(23.2%), 충북 132명(16.1%), 경기 97명(11.8%), 강원 57명(7.0%), 전남 33명(4.0%), 경북 33명(4.0%), 경남 31명(3.8%)에 이르는 응답자 분포를 보여주었다.

절차

3부로 구성된 척도 전체가 “인터넷 습관 개선 연구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동시에 개발되었으므로 1부 증상척도(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와 2부 심리적 원인척도에 대한 개발 및 타당화는 동일한 연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1부 증상척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잠정적으로 개발된 예비 MSPIUA-C를 온라인으로 실시한 후 문항 분석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소된 MSPIUA-C의 문항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분석 결과를 통해 얻어진 문항들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이용하여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기초 구조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분해법을, 변수의 공통분 추정방법으로는 재분해를 통한 반복 추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사각 회전 방법 중 Direct Oblimin($\delta=0$)을 사용하였다. 사회과학 표본을 사용한 연구에서 요인들간의 상관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는데, 직교 회전 방법은 요인들간의 상관이 0 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각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MSPIUA-C의 문항들과 1부 증상척도(MSPIUA-S)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도 구

1) MSPIUA-C 예비 문항

MSPIUA-C에 대한 잠정적 문항들은 인터넷 중독 및 인터넷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과 임상 사례들 그리고 대중 매체를 통해 보도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개발되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과 상담 경험 및 사례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결과와 원인 들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결과 관

런 부분은 MSPIUA-S(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에서 다루었고, 원인과 관련된 개념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었다. 인터넷 중독의 잠정적 원인 변인들을 가정하고 해당 개념에 따라 개별적 문항들을 개발하였는데, 문항의 개발에 사용된 참고 자료와 MSPIUA-C의 문항 개발 절차는 MSPIUA-S(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와 동일하다. 청년의사 인터넷 중독 치료 센터(<http://netmentalhealth.fromdoctor.com/>),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센터(<http://www.cyadic.or.kr/>), Center for Online Addiction(<http://www.netaddiction.com/>), Virtual-Addiction.com(<http://www.virtual-addiction.com/>)을 비롯한 인터넷 자료들과, 김진희와 김경신(2003), 장재홍과 신효정(2003), 이해경(2002), 김종범(2001), 김혜원(2001), 이형초(2001), 조남근과 양돈규(2001), 류인균 등(2000), 양돈규(2000), 송원영(1999), 윤재희(1998) 등을 비롯한 기타 인터넷 중독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후 병리적 인터넷 이용과 관련될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을 확인하여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구성 개념을 다각적으로 확대 분화시켰다.

기존 연구들에서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로 언급된 바 있는 심리적 구인들을 총 망라한 후 유사성과 중복을 정리하자, 가족 응집성, 가족내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기 효능감, 감각추구성향, 분노, 공격성, 무기력/낮은 자존감, 사회적 회피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등의 14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MSPIUA-C의 구성 개념 선정을 마친 후에는 해당 개념에 맞는 문항을 개발하였는데, 해당 개념을 측정한다고 알려진 기존의 척도들이 이미 있는 경우는 해당 문항을 모두 모으되 중복성 있는 문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하였고, 기존 문항들이 있더라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체적 방향을 고려하여 새롭게 고쳤으며, 기존의 문항들로는 필요한 개념을 측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개념에 맞게 직접 문항을 추가해 넣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문항의 약 3배수 가량으로 구성된 2부 141 문항이 개발되었다.

MSPIUA의 전체 예비 문항은 내용 타당도 확인 과정을 거쳐 일차적으로 정돈되었다. MSPIUA의 예비 문항들이 내용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MSPIUA에 대한 첫 번째 타당화 과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비 문항 모음 전체에 대한 일차적 축소에도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 평정에서 낮은 평정을 받는 문항들은 다시 높은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기보다는 탈락되도록 하였다. 전문가 평정은 석사 및 박사사를 포함하여 석사 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서울 시내 4개 대

학의 임상 심리 및 상담 심리 전공의 30명에게 MSPIUA 2부의 예비 문항들이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여 이루어졌다. 높은 점수로 평정될수록 그리고 문항에 대한 분산이 낮을수록 해당 문항은 다수의 평정자들이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한 문항이다.

전문가 평정 결과, 2부의 문항 모두는 평균 4.15의 평정치를 얻었고, 2부 최하 평정치가 중앙치인 2.5를 넘었다. 즉, MSPIUA-C의 일차적 문항 모음은 모두 개념에 맞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문항이 높은 정도의 전문가 평정을 받았으나, 일차적으로 개발된 모든 문항을 척도에 포함시키기에는 문항의 수효가 많았으므로 분산을 이용하여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분산 1을 탈락의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문항들을 검토하면서,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이 각각 가장 대표성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산 1이 넘는 일부 문항이 척도에 남게 되거나 분산 1이 넘지 않는 문항이 척도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2부에서 96문항을 얻었다. 2부 원인 척도에 대한 평정치 및 분산의 평균은 4.15 및 .95였다.

3점 평정식 자기 보고 질문지로 개발된 예비 MSPIUA-C는 각 문항이 언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점에,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점에, 그리고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점에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청소년용 다차원형 병리적 인터넷 이용 척도 1부 증상 척도(MSPIUA-S)

2부 MSPIUA-C와 더불어 개발된 MSPIUA-S(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는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구체적 증상을 알아보는 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 실패, 과몰입적 접속, 음란물 몰입, 신체 건강상의 문제, 자기 통제력 상실, 대인관계 손상,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현실 도피, 인터넷에의 강박적 몰입 등의 9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정 방식은 MSPIUA-S와 MSPIUA-C가 모두 동일하다. 공통 요인 분석을 통해 얻은 MSPIUA 1부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alpha=.94$ 이었고, 각 소 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학업적 실패의 경우 $\alpha=.79$, 과몰입적 접속 $\alpha=.82$, 음란물 몰입 $\alpha=.78$, 신체건강상의 문제 $\alpha=.72$, 자기통제력 상실 $\alpha=.79$, 대인관계손상 $\alpha=.76$,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alpha=.59$, 현실도피 $\alpha=.64$, 인터넷에의 강박적 몰입 $\alpha=.83$ 이었다.

결 과

문항 분석

분석에는 모두 768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는데, 96문항으로 구성된 2부 문항들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적 합치도 계수는 $a = .92$ 이었으며 문항들간의 상관 계수는 $r = .00 \sim .72$ 의 범위에,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r = -.24 \sim .61$ 의 범위에 있었다. 2부 문항중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낮은 13개의 문항을 제거하자 나머지 문항들의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r = .22 \sim .61$ 에 걸쳐서 나타났다. 2부의 문항 중에서 39번만이 극점에 해당하는 반응 분포를 보였다. 2부 39번 문항의 경우 문항-총점 상관 계수도 낮았다. 2부의 문항들중 13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83문항이 남았는데 이들 문항들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a = .93$ 이었다. 남은 83문항중 문항간 상관이 .5 가 넘는 문항들을 대상으로 문항들간의 내용적 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진들이 판단하기에 진술상으로도 다른 문항과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문항 14개를 다시 제거하자 총 69문항이 남았다. 이들 2부 69문항들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a = .91$ 이었다. 2부 69문항들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문항-총점 상관계수, 편포도는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분석

MSPIUA 2부에 대한 요인 분석에 앞서서, 서로 구분된 척도로서 개발된 1부와 2부가 응답자들의 반응에서도 이러한 의도를 지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항 분석 단계까지 만들 마친 1부 53문항과 2부 69문항을 모두 합한 후 요인의 수효를 2개로 지정한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나치게 낮은 요인 부하량 때문에 어느 요인에 대해서도 귀속되지 않는 1

부의 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들은 연구자의 개발 의도대로 1부 문항들이 모여서 하나의 요인을 형성하고 2부 문항들이 모여서 나머지 다른 한 요인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상이한 이론적 근거에서 출발한 1부와 2부의 문항들은 응답자들의 실제 반응 양상에서도 서로 구분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MSPIUA-C의 자료 구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2부의 69문항을 대상으로 Bartlett의 구형검사와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Bartlett의 구형검사에서, $\chi^2_{346}=13920.921(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검사 지수는 .879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요인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었다(George & Mallery, 2001).

요인의 수효에 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요인의 수효를 제한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Kaiser법칙에 의해 2부에서는 1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스크리 검사의 결과를 다시 고려하자 6개, 7개, 9개가 적절한 요인 수효로 보였는데, 보다 적절한 요인 구조를 찾기 위해서 6개, 7개, 8개, 9개로 요인의 수효를 각각 지정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세부적인 결과 모두를 비교하였다.

주축 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Direct Oblimin($\delta=0$) 방식으로 회전을 시켜서 네 차례의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하자, 요인의 수효가 줄어드는 경우, 충동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이,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유능감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유능감과 관련된 문항들이 각각 하나로 합쳐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개념적으로 이들은 관련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는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대표적인 증상중 하나이고(Young, 1996),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의 한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개념의 구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9개를 MSPIUA 2부에 대한 최적의 요인 수효로 결정하였다(표 1).

표 1. 사각으로 회전된 MSPIUA 2부의 형태(구조) 계수

문항	1	2	3	4	5	6	7	8	9
29	.57(.65)	-.02(.10)	.07(.23)	.12(.26)	.07(.25)	.01(.21)	.02(-.18)	.12(.29)	-.03(-.00)
27	.57(.63)	-.09(.02)	.04(.17)	-.01(.13)	.12(.28)	.13(.31)	.04(.09)	.07(.22)	.08(.05)
30	.41(.48)	-.07(.06)	.08(.20)	.02(.17)	.20(.32)	.05(.21)	-.02(-.13)	-.01(.13)	.09(.09)
75	.41(.49)	-.05(.05)	.03(.17)	.05(.19)	.19(.32)	.12(.27)	-.01(-.12)	-.01(.14)	.04(.04)
19	.33(.43)	-.02(.15)	.17(.33)	.08(.25)	-.02(.14)	.03(.20)	-.30(-.41)	.06(.26)	-.03(.07)
28	.31(.39)	.01(.10)	.02(.16)	.08(.20)	.25(.35)	-.03(.12)	-.17(-.22)	-.03(.12)	-.12(-.05)
26	.30(.41)	.14(.28)	-.09(.08)	-.02(.11)	.01(.14)	.14(.26)	-.18(-.36)	.23(.40)	.08(.18)
66	.02(.11)	.59(.62)	.03(.14)	.09(.19)	.08(.14)	-.09(-.09)	-.05(-.25)	-.06(.04)	-.04(.22)
65	.04(.12)	.58(.62)	-.04(.07)	.01(.10)	-.04(.03)	.00(-.01)	-.04(-.27)	.08(.18)	.04(.28)
68	-.04(.08)	.56(.55)	-.01(.11)	-.02(.10)	.08(.16)	.19(.15)	-.07(-.25)	-.09(.05)	-.02(.21)

문항	1	2	3	4	5	6	7	8	9
69	-.18(-.11)	.46(.46)	.01(.07)	.05(.10)	.12(.11)	-.09(-.13)	.01(-.14)	.00(.02)	.01(.09)
41	.08(.11)	.35(.46)	-.02(.05)	.04(.09)	-.15(-.10)	-.14(-.13)	-.05(-.23)	.14(.18)	.16(.31)
45	-.01(.03)	.32(.40)	-.02(.05)	.08(.12)	-.07(-.03)	.00(-.02)	.07(-.12)	.05(.08)	.26(.37)
64	.01(.09)	.31(.40)	.05(.14)	-.00(.09)	-.07(.01)	.07(.08)	-.09(-.27)	.10(.19)	.10(.26)
3	-.00(.12)	-.06(.08)	.73(.73)	-.01(.23)	.05(.17)	.01(.15)	.07(-.13)	-.00(.07)	.13(.16)
12	-.05(.09)	-.01(.09)	.72(.72)	.05(.27)	.02(.13)	-.05(.09)	.03(-.15)	.06(.12)	-.03(.04)
15	.03(.13)	.03(.14)	.72(.70)	-.04(.19)	-.09(.04)	-.02(.10)	-.03(-.20)	.01(.10)	.01(.10)
6	-.00(.10)	.04(.07)	.64(.62)	.03(.22)	-.02(.08)	.01(.10)	.08(-.06)	-.04(.02)	-.08(-.02)
4	-.00(.09)	-.06(.06)	.63(.62)	.03(.22)	-.05(.06)	-.01(.10)	.06(-.11)	-.00(.05)	.11(.14)
13	.04(.16)	.04(.14)	.61(.62)	-.06(.17)	.05(.16)	-.03(.11)	-.06(-.22)	.05(.15)	-.07(.03)
7	.05(.11)	-.08(.04)	.60(.61)	.10(.27)	-.06(.05)	-.06(.05)	-.06(-.16)	-.10(-.02)	.01(.06)
2	.03(.15)	-.12(.02)	.59(.62)	-.00(.21)	.02(.15)	.09(.23)	-.07(-.21)	.01(.12)	.07(.10)
9	.04(.15)	.07(.16)	.57(.58)	-.01(.19)	-.03(.09)	.02(.13)	.06(-.13)	.04(.12)	.04(.11)
5	.03(.12)	-.02(.01)	.56(.56)	.03(.20)	-.05(.07)	.12(.20)	.04(-.06)	-.10(-.02)	-.04(-.01)
11	-.01(.08)	.00(.04)	.55(.55)	.02(.19)	-.03(.07)	.06(.14)	.01(-.10)	-.04(.03)	-.07(-.02)
1	-.05(.10)	.01(.10)	.49(.54)	.02(.22)	.12(.22)	.06(.19)	-.14(-.26)	.02(.13)	-.07(.02)
14	-.10(.03)	.05(.17)	.37(.41)	-.02(.14)	.06(.12)	-.02(.08)	-.10(-.25)	.17(.22)	.03(.12)
78	-.04(.09)	-.06(.05)	.01(.26)	.77(.77)	.02(.16)	.00(.11)	-.04(-.15)	-.06(.02)	-.02(.03)
81	-.07(.07)	-.05(.06)	.00(.23)	.77(.75)	-.00(.13)	.01(.11)	.08(-.08)	.08(.11)	.06(.08)
77	.01(.15)	.02(.12)	-.02(.23)	.70(.71)	-.03(.12)	.05(.15)	-.02(-.17)	.01(.10)	-.01(.06)
80	.04(.18)	.06(.15)	.01(.27)	.70(.72)	-.00(.17)	.12(.21)	-.01(-.16)	-.08(.03)	-.02(.06)
94	-.02(.16)	.06(.13)	-.06(.10)	.02(.16)	.72(.73)	.09(.22)	-.03(-.12)	-.06(.03)	.04(.09)
63	.03(.17)	.09(.16)	-.01(.10)	-.00(.12)	.56(.57)	-.01(.09)	.04(-.09)	.07(.12)	.05(.10)
95	.15(.30)	.04(.08)	.03(.16)	.05(.19)	.53(.58)	.02(.18)	.00(-.10)	.05(.16)	-.11(-.07)
96	.13(.26)	-.07(-.02)	-.03(.11)	.07(.18)	.46(.52)	.15(.28)	.01(-.06)	-.03(.06)	.03(.01)
84	.03(.23)	-.00(.01)	.04(.22)	.13(.26)	.01(.20)	.71(.75)	-.01(-.16)	.01(.20)	.04(.07)
83	.05(.25)	.00(-.00)	.05(.23)	.09(.23)	.08(.27)	.70(.75)	-.02(-.15)	-.05(.15)	-.00(.03)
86	.06(.26)	.10(.06)	.07(.23)	.04(.19)	.03(.21)	.67(.71)	.04(-.14)	.10(.28)	-.05(.00)
82	-.03(.14)	-.04(-.04)	-.01(.13)	.08(.17)	-.02(.13)	.67(.68)	.01(-.11)	.05(.19)	.07(.07)
87	.01(.17)	-.02(.02)	.17(.28)	-.06(.11)	.08(.21)	.48(.54)	-.07(-.19)	.03(.19)	.04(.08)
89	.10(.29)	.08(.09)	.11(.27)	.09(.24)	.08(.24)	.43(.52)	-.03(-.19)	.11(.28)	-.12(-.04)
54	.04(.16)	.02(.32)	.02(.23)	.04(.22)	.16(.24)	-.06(.07)	-.65(-.71)	-.04(.19)	.13(.31)
55	-.03(.06)	-.05(.14)	-.02(.12)	.04(.14)	-.04(.03)	.04(.11)	-.57(-.56)	.01(.18)	.00(.13)
56	.11(.22)	-.03(.21)	-.01(.18)	.01(.17)	.07(.18)	.12(.23)	-.56(-.60)	-.07(.17)	.09(.23)
57	-.04(.08)	.14(.33)	.13(.28)	.10(.24)	.07(.14)	-.13(-.02)	-.45(-.53)	.04(.19)	-.02(.17)
25	.05(.16)	.11(.30)	.01(.15)	-.02(.11)	-.05(.04)	.03(.12)	-.43(-.54)	.15(.31)	.07(.23)
18	.23(.34)	-.00(.17)	.04(.21)	.07(.21)	-.04(.10)	.05(.19)	-.41(-.49)	.11(.31)	-.05(.07)
52	.17(.30)	.20(.37)	.02(.20)	.05(.20)	-.03(.10)	.00(.12)	-.41(-.55)	.15(.35)	-.03(.16)
21	.16(.24)	.05(.21)	-.06(.07)	-.02(.08)	-.06(.03)	-.04(.07)	-.39(-.46)	.23(.37)	-.03(.09)
60	-.10(-.01)	-.01(.13)	.06(.15)	-.01(.08)	-.00(.04)	.02(.08)	-.37(-.40)	.10(.20)	.08(.11)
24	-.08(.02)	.18(.29)	-.00(.10)	-.01(.07)	-.15(-.07)	.15(.15)	-.34(-.43)	.09(.22)	.03(.19)
33	-.01(.16)	-.15(.04)	-.00(.09)	-.01(.07)	-.01(.06)	.07(.24)	-.04(-.27)	.70(.71)	.21(.18)
59	-.05(.12)	.07(.14)	.03(.10)	-.02(.06)	-.00(.06)	.01(.15)	-.00(-.22)	.66(.66)	-.04(.01)
58	.07(.25)	-.03(.02)	-.03(.11)	.09(.17)	.03(.15)	.19(.34)	-.08(-.23)	.46(.55)	-.13(-.09)
32	.19(.31)	.02(.11)	.02(.14)	.05(.15)	.10(.19)	-.04(.12)	-.13(-.25)	.31(.40)	-.10(-.04)
43	.01(.05)	.03(.21)	-.02(.06)	-.06(.02)	.06(.10)	.14(.15)	-.01(-.15)	-.01(.05)	.47(.49)
44	-.01(.04)	.06(.27)	.08(.15)	.09(.15)	.04(.09)	-.14(-.08)	.02(-.17)	.09(.10)	.44(.47)
35	-.24(-.15)	-.12(.10)	.00(.08)	.03(.09)	.15(.15)	.09(.12)	-.17(-.26)	.07(.10)	.42(.43)
91	.18(.22)	.23(.41)	.05(.15)	.04(.14)	-.07(.03)	.02(.06)	.06(-.18)	.05(.13)	.42(.50)
40	.09(.08)	.07(.26)	.01(.07)	.03(.08)	-.08(-.04)	-.05(-.04)	-.10(-.21)	-.05(.01)	.40(.45)
48	.14(.12)	.27(.44)	.02(.10)	.06(.12)	-.09(-.04)	-.12(-.12)	-.10(-.24)	-.14(-.06)	.33(.46)
47	.14(.12)	.14(.31)	.04(.10)	-.01(.06)	-.18(-.11)	-.01(-.02)	-.14(-.24)	-.11(-.02)	.32(.41)
고유치	3.63	3.97	6.52	4.03	3.03	4.30	5.20	3.34	2.89

각 요인별 소속 문항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체 문항 중 그 어느 요인에 대해서도 .30 이상의 계수를 가지지 못하는 문항을 탈락시켰다. 다음으로, 특정 문항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대해서 .30이상의 계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계수를 가지는 요인에 귀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7개의 문항이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62문항이 9개의 요인으로 묶이게 되었다. 9개 요인의 고유치의 총합은 35.91이었다.

각 요인별 의미를 확인하고 요인의 명칭을 확정짓기 위하여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문항들간의 공통점을 통하여 요인의 의미를 탐색해보니, 요인 1에 속한 문항들은 특정 산물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 속한 문항들은 깊은 생각이나 계획 없이 발생하는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충동성(Impulsivity)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에 속한 문항들은 가족들간의 의사소통 정도 및 가족성원들간에 서로 지지하고 도와주고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냈으므로 가족 응집성(Family cohesiveness)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에 속한 문항들은 선생님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으므로 교사 지지(Teacher support)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에 속한 문항들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문제 해결 지향성 등을 다루고 있었으므로 문제 해결 능력(Problem solving)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6에 속한 문항들은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으므로 친구 지지(Peer support)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7에 속한 문항들은 동기 수준의 저하 및 낮은 자존감 혹은 신체적 무기력 등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무기력/낮은 자존감(Helplessness/low self-esteem)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8에 속한 문항들은 대인관계의 개시 및 유지에 대한 자신감등을 다루고 있었으므로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9에 속한 문항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의 비효율적 대처와 관련된 질문들과 기본적인 분노 수준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낮은 분노조절 능력(Low anger control)이라고 명명하였다. 2부를 구성하는 요인들과 각각의 요인에 속하는 구체적 문항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MSPIUA 2부의 요인별 문항 내용

요인	문항 내용
요인 1 자기 효능감	2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힘과 능력이 있다. 27. 내게 맡겨진 일은 잘 해낼 자신이 있다. 30. 처음에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 다고해도 될 때까지 해본다. 75. 누가 일을 맡기면 믿을 만큼 해내는 편이다. 19.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28. 지금 내게 이룬 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다. 26. 힘든 상황이 닥치면 제대로 해낼 자신이 없어서 겁부터 난다.
요인 2 충동성	66. 하나씩 따져서 생각하기 보다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65. 생각없이 말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68. 생각없이 행동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69.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계획에 없어도 일단 하고 본다. 41.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흥분했었는지 나 자신도 이해가 안되는 때가 많다. 45.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 64. 한 가지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일을 시작할 때가 많다.
요인 3 가족 응집성	3.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 12.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15. 가족들과 말이 잘 통한다. 6. 내가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부모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4. 우리 가족은 나로 하여금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끔 해준다. 13. 우리 가족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경우라도 함께 이야기를 해서 풀어간다. 7.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어 하면 금방 알아차린다. 2. 우리 가족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9.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5. 우리 가족은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1.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1. 우리 가족은 필요할 경우 서로에게 도움을 청한다. 14. 우리 가족은 각자의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항 내용	
요인 4 교사 지지	78. 선생님은 항상 내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신다.
	81. 선생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77. 선생님은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요인 5 문제 해결 능력	80. 선생님은 내가 한 행동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신다.
	94.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때는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할 지 계획을 세운다.
	63. 먼저 계획을 세운 후 일을 시작한다.
요인 6 친구 지지	95.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먼저 해결한다.
	96.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일어났던 비슷한 일들을 생각해보며 그 해결방법을 이용한다.
	84. 내 일에 최선을 다해도와줄 친구가 있다.
	83.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전환을 시켜주려는 친구가 있다.
	86. 내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같이 놀아줄 친구가 있다.
요인 7 무기력/낮은 자존감	82.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만한 친구가 있다.
	87. 결석을 했을 때 그날의 숙제를 알려줄 친구가 있다.
	89. 내 말을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해주는 친구가 있다.
	54. 모든 일이 귀찮다.
	55. 입맛이 없다.
	56.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57.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상쾌하지 않다.
요인 8 사회적 유능감	25.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18.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52. 나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속상하다.
	21. 외모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기가 겁난다.
	60.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
요인 9 낮은 분노조절 능력	24.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내가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
	33. 새 친구를 만나는 일에 자신이 없다.
	59.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58. 나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린다.
	32. 사람들 앞에서 나를 표현하는 일이 별로 두렵지 않다.
	43. 모르는 사람이 발을 밟으면 욕을 하거나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44.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의없이 행동한다.
	35.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따분함을 느낀다.
	91. 화가 나면 누구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를 하게 된다.
	40.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한다.
	48. 화가 나면 욕이 튀어나온다.
	47.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을 때는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한다.

이들 상호 연관된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고차 요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 요인들간의 상관행렬을 이용하여 상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개의 상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주축 분해법으로 2부의 9개 요인들에서 2개의 상위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Direct Oblimin($\delta=0$) 방식으로 회전을 시킨 결과, 첫 번째 상위 요인에는 요인1(자기효능감), 요인6(친구 지지), 요인8(사회적 유능성), 요인5(문제 해결 능력), 요인3(가족 응집성), 요인4(교사 지지)가 묶였고, 두 번째 상위 요인에는 요인2(충동

성), 요인9(낮은 분노조절 능력), 요인7(무기력/낮은 자존감)이 귀속되었다. 2개 상위 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2.19, 2.56이었다.

요인분석의 결과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2부 62문항에 의하여 MSPIUA 2부의 최종 형태가 완성되었다. 62문항으로 이루어진 2부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a = .91$ 였다. 표 3 에는 817명의 중고등학교생에게 실시하여 얻은, 62문항으로 이루어진 MSPIUA 2부의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내적 합치도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3. MSPIUA 2부의 요인간 상관계수 및 신뢰도

척도	요인									전체 척도	문항 수	평균	표준 편차	α
	1	2	3	4	5	6	7	8	9					
1	1.00	.13**	.31**	.28**	.41**	.42**	.37**	.35**	.13**	.66**	7	1.72	.39	.73
2		1.00	.14**	.16**	.09*	.04	.42**	.13**	.48**	.49**	7	2.21	.40	.70
3			1.00	.30**	.16**	.31**	.28**	.16**	.17**	.55**	13	1.73	.41	.88
4				1.00	.20**	.28**	.22**	.13**	.13**	.55**	4	1.85	.51	.83
5					1.00	.32**	.17**	.18**	.08*	.53**	4	1.79	.48	.71
6						1.00	.27**	.34**	.08*	.61**	6	1.48	.44	.84
7							1.00	.41**	.39**	.68**	10	1.85	.42	.80
8								1.00	.09**	.56**	4	1.88	.48	.69
9									1.00	.48**	7	1.98	.41	.67
전체 척도										1.00	62	1.83	.25	.91

* $p < .05$ ** $p < .01$

1부와 2부의 관계

완성된 2부 척도 전체와 1부 척도 전체는 $r = .12(p < .01)$ 의 상관을 보여주었다. 2부의 원인이 1부의 어떠한 증상들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부의 각 하위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1부의 요인들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 효능감은 과몰입적 접속, 자기 통제력 상실, 대인관계의 손상, 충동성은 신체 건강상의 문제,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몰입, 가족 응집성은 과몰입적 접속, 문제 해결은 과몰입적 접속, 신체건강상의 문제, 대인관계의 손상, 친구 지지는 대인관계의 손상, 무기력/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의 손상과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몰입, 사회적 유능감은 대인관계의 손상 등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설명되거나 혹은 유의미하게 설명되는 경향성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 표 5, 표 6과 같다. 표 4의 오른쪽 칸은 유의미한 회귀계수를 가지고 있는 1부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4. MSPIUA 2부에 대한 1부의 관계

2부 요인명	1부 요인명
요인1 자기 효능감	과몰입적 접속*** 자기 통제력 상실* 대인관계의 손상†
요인2 충동성	신체건강상의 문제***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몰입†
요인3 가족 응집성	과몰입적 접속*
요인4 교사 지지	
요인5 문제 해결	과몰입적 접속† 신체건강상의 문제† 대인관계의 손상†
요인6 친구 지지	대인관계의 손상†
요인7 무기력/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손상***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몰입*
요인8 사회적 유능감	대인관계의 손상*
요인9 낮은 분노조절 능력	

+ $p < .10$ * $p < .05$ ** $p < .01$

표 5. MSPIUA-C 요인들을 대상으로 한 MSPIUA-S의 회귀 분석 결과

MSPIUA-S 요인명	MSPIUA-C 요인명													
	1 자기 효능감		2 충동성		3 가족응집성		5 친구지지		6 문제해결		7 무기력/낮은 자존감		8 사회적 유능감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1. 학업적 실패	.04	.72	-.09	-1.50	-.05	-.77	-.01	-.14	-.04	-.56	.02	.37	-.02	-.34
2. 과몰입적 접속	.16	2.71**	.08	1.28	.13	2.19*	.10	1.71†	-.05	-.84	.02	.32	-.02	-.36
3. 음란물 몰입	-.07	-1.44	.04	.85	-.04	-.80	.02	.36	-.03	-.54	-.02	-.49	-.02	-.44
4. 신체건강상의 문제	-.05	-.88	.14	2.61**	.08	1.48	-.09	-1.74†	-.05	-.99	.08	1.46	.02	.35
5. 자기통제력 상실	-.13	-2.35*	.02	.37	-.06	-1.10	.02	.36	.09	1.62	-.03	-.46	.01	.18
6. 대인관계 손상	.11	1.91†	.07	1.20	.05	.86	.10	1.67†	.11	1.84†	.16	2.71**	.15	2.53*
7. 가상의 대인관계 지향성	-.04	-.73	.06	1.29	-.04	-.77	-.01	-.15	.03	.51	.03	.49	-.03	-.71
8. 현실도피	-.04	-.74	-.03	-.62	.03	.58	-.03	-.52	-.04	-.73	-.01	-.16	.04	.71
9.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몰두	.05	.83	-.10	-1.68†	.01	.19	.01	.08	.04	.62	-.14	-2.19*	-.07	-1.13

+ $p < .10$ * $p < .05$ ** $p < .01$

표 6. MSPIUA-C 상위요인들을 대상으로 한 MSPIUA-S의 회귀 분석 결과

MSPIUA-C 요인명	MSPIUA-A 요인명									
	2. 과몰입적 접속		4. 신체 건강상의 문제		5. 자기통제력의 상실		6. 대인관계의 손상		7. 가상 대인관계 지향	
	β	t	β	t	β	t	β	t	β	t
1. 위협 요인	.08	1.84 ⁺	.13	2.99 ^{**}	.08	1.74 ⁺	.08	1.76 ⁺	.08	1.77 ⁺
2. 보호 요인	.08	1.83 ⁺	.01	.19	.02	.44	.10	2.32 [*]	.00	.02

⁺p<.10 ^{*}p<.05 ^{**}p<.01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병리적 인터넷 이용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Clark와 Watson(1995)에 의해 지지되었듯이, 안정적인 요인 구조의 확립은 검사 타당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척도에서는 여러 단계의 척도 개발 단계가 안정적인 요인 구조를 성취하기 위해서 실행되었다.

요인 분석 이전에 실시된 문항 분석에서, MSPIUA 2부 문항들은 매우 높은 정도의 내적 합치도 수준을 보여주었다. 각 문항별 문항-총점 상관 계수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MSPIUA 2부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는 6개~9개로 구성된 요인 구조중 9개의 요인 구조를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정하였는데, 간명성과 경제성의 측면에 관한 비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포괄적 평가 도구가 부재한 현실에서 간명성보다 중요한 것은 분절화될 수 있는 구체적 개념 획득이라고 생각되어 9개의 요인 구조를 선택하였다. 자기 효능감, 충동성, 가족 응집성, 교사지지, 문제 해결, 친구지지, 무기력/낮은 자존감, 사회적 유능성, 낮은 분노조절 능력의 9개 요인을 대상으로 한 상위 요인 분석에서는 2 개의 상위 요인이 발견되었다. 충동성, 무기력/낮은 자존감, 낮은 분노조절 능력이 하나의 상위 요인을 형성하고 자기 효능감, 가족 응집성, 교사지지, 문제 해결, 친구 지지, 사회적 유능성이 다른 하나의 상위 요인을 형성하였다. 첫 번째 상위 요인이 병리적 인터넷 이용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면 두 번째 상위 요인은 보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MSPIUA 2부는 1부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여줌으로서 심리적 원인 변인들을 다루고 있는 2부 척도가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론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 충동성, 가족 응집성, 문제 해결, 친구지지, 무기력/낮은 자존감, 사회적 유능감 요인은 직접적으로도 개별 증상 차원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2부 심리적 원인 척도를 타당화 시켰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모든 유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후 그에 따라 문항을 생성함으로써, MSPIUA 2부에 대한 타당화 과정이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론에 관한 개념적 정리와 통합을 수반하였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매우 중요한 의의이다. 통합적 모델을 향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점점 더 많이 누적되게 될 경우, 본 연구의 세부적인 요인 구조를 통해 각 원인 변인들간의 차별적 영향력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결과들을 통해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과정이 보다 더 정교하게 규명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체화된 개입 계획의 마련도 가능해진다. 물론, 자료의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간명한 것이 될 수 있도록 MSPIUA-C의 요인 구조는 수정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손쉽게 데이터베이스화 될 수 있고, 손쉽게 분절화가 가능한 MSPIUA의 특성은 MSPIUA가 지필검사로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검사로서의 그리고 온라인 개입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유용성 또한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온라인 평가가 대면 평가에 비해서 더욱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분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분절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많은 온라인 평가들이 그러하듯이 지필용 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단지 대면 상황이 아닌 인터넷 상황을 이용해서 전달받기만 하는 것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MSPIUA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 상황에 매우 적합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 인터넷의 이용에 관한 검사가 인터넷상에서 실시될 수 있고 또 인터넷의 특성을 매우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 중독에 관한 다른 평가 척도들이 가지지 못한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다.

한편, 상위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된 MSPIUA 2부의 이원적 구조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이원적 원인 구조는 보호 요인의 강화와 위험 요인 억제에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예방 프로그램들이 위험 요인의 억제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인터넷이 이미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어버린 현 시점에서 보다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보호 요인에 대한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보호 요인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Jessor 등, 1995). 따라서, 즉각적인 증상의 유발과 관련해서는 보호 요인보다 위험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위험 요인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한 예방 프로그램은 보호 요인에 대한 강화를 다루는 프로그램보다 더 큰 효과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보호 요인에 대한 강화가 병행되지 않는 한 위험 요인에 대한 억제 중심의 예방은 한시적 효과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병리적 인터넷 이용은 특정인에게만 발생하는 특유의 장애라기보다는 개인의 취약성과 상황적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병리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인터넷이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삶에서 느끼는 각종 어려움이 이제는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리적 인터넷 이용이라는 증상은 한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고, 이를 오히려 개입의 열쇠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원인 구조는 비단 인터넷의 병리적 이용에 대한 예방만을 위해서 사용되기 보다는, 현 시대에 가장 적합한 내용과 형태를 갖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MSPIUA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르게 갖춘 우수한 평가 도구임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결과들을 보여주었으며 개입과 관련해서도 많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고 무엇보다도 심리적 원인과 관련된 개념 정리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논의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들이 병리적 인터넷 이용의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심리적 원인 변인들을 통합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척도를 개발하였다. 원인 척도 전체와 증상 척도 전체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두 척도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상관의 정도가 절대적 수치상으로 매우 큰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증상과의 관련성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개념들을 이용하여 척도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첫째, 병리적 인터넷 이용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Young(1998)의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단순화된 맥락에서 다루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MSPIUA-S는 Young의 척도에 비해 훨씬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상관을 보는 경우 그 설명력이 분산될 수 있다. 더구나,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소수의 일부 심리적 구인과 Young 척도간의 상관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연구 결과들 간에 중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부 척도에 대한 분석까지 완료한 후 여러 맥락에 걸쳐서 설명력이 떨어지는 변인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원인 변인들이 증상의 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보다는 다른 제 3의 변인과의 관계에서 증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3부 척도에 포함된 혹은 MSPIUA에서 다루지 못한 또 다른 다른 변인간의 관계에서 증상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할 수 있다.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원인 변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부 척도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은 요인들의 경우 3부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역할이 명확히 설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이유와 실제 사용 행태 및 주변 환경 변인을 평가하고 있는 3부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MSPIUA 전체 척도에 관한 통찰이 가능하다면 향후 병리적 인터넷 이용에 관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많은 중요한 함의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다양한 개념들이 한 척도내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척도내에 하위 집합들이 존재할 수 있다. Davis(2001)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필요 요인, 충분 요인, 기여 요인으로 구성된 Abraham 등(1989)의 분류 틀에 기초를 두고, 원거리 변인과 근거리 변인의 개념적 구분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의 구인들 또한 한 척도내에서도 증상에 관한 개념적 위계 혹은 거리 차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MSPIUA가 더 포괄적이고 적절한 평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경험적 자료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문항의 보충과 정돈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MSPIUA-C와 MSPIUA-S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로서 보다 직접적인 기여 요인을 탐색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용성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단위로 한 타당화 작업 뿐만 아니라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작업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만철, 오익수 (2001). 인터넷 중독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9, 114-135.
 강만철, 오익수 (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개발(I).

- 교육심리연구, 15(4), 5-21.
- 강만철, 오익수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사회연구 2001년 가을 통권 제2호.
http://www.ksrc.or.kr/~socialissues/content/vol_2/ss2_2kmc.pdf에서 2004, 5, 20 인출.
- 김봉석 (2004). 사이버 세상에 갇히다!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
http://www.carecamp.com/ency/healthcolumn_reading.jsp?idx=101에서 2004, 5, 20 인출.
- 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1), 125-139.
- 김중범(2001). 인터넷중독하위집단의 특성연구 : 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김정신(2003).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과 인터넷 중독, 사이버관련 비행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5(1), 85-97.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보통신 일반정책연구 02-GP-11. 정보통신부.
- 김현수 (2000).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
http://netmentalhealth.fromdoctor.com/netaddiction_c.html에서 2004, 5, 10 인출.
- 김현수(2001).<http://agent.itfind.or.kr/Data2003/ICEC/ICEC-0001/ICEC-0001.htm>에서 2004, 5, 10 인출.
-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현상. 청소년학연구, 8(2), 91-117.
- 류인균, 하지현, 양은주, 김영미, 장창곡, 우종인 (2000). 인터넷 중독의 정신병리. 정신병리학.
- 문성원 (1998).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문성원 (2002).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하여 매개된 자살: 사례 중심의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61-485.
- 문성원, 김성식, 이봉건 (2004). 청소년을 위한 다차원 병리적 인터넷 척도(MSPIUA)의 개발 및 타당화: 1부-증상척도(MSPIUA-S). 청소년상담연구, 12(2),
- 문화일보 (2003, 9, 15). 한국,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율 1위.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915000044893019에서 2004, 5, 10 인출.
- 박성길, 김창대. (2003). 청소년 인터넷 과다 사용의 위험 요소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1(1). 84-95.
- 송원영(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윤재희(1998). 인터넷중독의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태일리 (2003, 10, 9). “한국, 인터넷과 열애중”-FT.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1009000080830098에서 2004, 5, 10 인출.
- 이해경(2002).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 중독을 예측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55-79.
- 이형초(2001). 인터넷게임중독의 진단척도 개발과 인지행동치료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초, 안창일 (2002). 인터넷게임 중독의 진단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7(2), 211-239.
- 임은미, 김태성, 김형수, 이영선, 박정민 (2000). WEB을 활용한 청소년 심리검사 프로그램 개발. 2000 청소년상담원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센터 (2004).
http://www.internetaddiction.or.kr/5AmI_What.asp에서 2004, 5, 10 인출.
- 장재홍, 유정이, 권혜수, 김형수, 최한나 (2002). 청소년 인터넷 과다 사용 예방 프로그램 개발. 2002 청소년상담연구. 한국 청소년 상담원.
- 장재홍, 유정이, 김형수, 최한나 (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및 인터넷 보상 경험에 영향을 주는 심리 환경적 요인. 상담학연구, 4(2), 237-252.
- 장재홍 신호정 (2003). 청소년 인터넷 과다 사용 예방 프로그램 개발 II. 2003 청소년상담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자신문 (2003, 10, 15). 한국, 초고속인터넷 지출 비용 OECD '최고수준'.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101500001748081.에서 2004, 5, 10 인출.
-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2003). <http://www.icec.or.kr>.
- 조남근, 양돈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91-111.
- 청년외사 인터넷 중독 치료 센터 (2004).
http://netmentalhealth.fromdoctor.com/netaddiction_b4.html에서 2004, 5, 10 인출.

- 한국 정보 문화 진흥원 (2002).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센터.
<http://www.internetaddiction.or.kr>
- APA (1995).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이근후 등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94년에 출판됨)
- Beard, K. W. (2005). Internet addiction: a review of current assessment techniques and potential assessment questions. *CyberPsychology & Behavior, 8*(1), 7-14.
- Clark, L. A. & Watson, D. (1995). Constructing validity: Basic issues in objective scale develop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7*, 309-319.
- Catalano, R. F., Berglund, M. L., Ryan, J. A. M., Lonczak, H. S., & Hawkins, J. D. (2002).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Prevention & Treatment, 5*, article 15, posted June 24, 2002.
- Center for Online Addiction, <http://www.netaddiction.com>에서 2004, 5, 25 인출.
- Costigan, J. T. (1999). Introduction. In S. Jones (Ed.). *Doing Internet Research* (pp. xvii-xxiv). SAGE Publications, Inc.
-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PIU). *Computer in Human Behavior, 17*(2), 187-195.
- Davis, R. A., Flett, G. L, & Besser, A. (2002). Validation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problematic Internet use: implications for pre-employment screen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5*(4), 331-345.
- George, D. & Mallery, P. (2001). *SPSS for Windows*. Allyn & Bacon.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users/suler/psyber/supportgp.html>.에서 2004, 5, 10 인출.
- Greenfield, D. (1999). *Virtual Addiction.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 Greenfield, D. (1999). *Virtual Addiction: Sometimes New Technology Can Create New Problems.*
http://www.virtual-addiction.com/pdf/nature_internet_addiction.pdf에서 2004, 5, 10 인출.
- Griffiths, M. (1999).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12*(5), 246-250.
- Jessor,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23-933.
- Orford, J. (2001). *Excessive appetites: A Psychological view of addiction* (2nd ed.). New York: Wiley & Sons.
- Psycom (1997). *Ivan Goldberg Discusses "Internet Addiction"*. <http://www.psycom.net/iasg.html>.
-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http://www.netaddiction.com/articles/stereotype.htm>.에서 2004, 5, 10 인출.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4.
- Young, K. S. (1997). What Makes the Internet Addic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http://netaddiction.com/articles/habitforming.htm>.에서 2004, 5, 10 인출.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에서 2004, 5, 10 인출.
- Virtual-Addiction.com, <http://www.virtual-addiction.com>에서 2004, 5, 25 인출.
- Widyanto, L. & McMurrin, M. (2004).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7*(4), 443-450.

원 고 접수 일 : 2005. 4.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6.
 게재 결정 일 : 2005. 7. 14.

부록. MSPiUA-C 문항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상관, 편포도

문항	M	S. D.	r_{it}	skewness	N
1	1.60	.56	.42	0.22	627
2	1.61	.58	.43	0.29	627
3	1.53	.62	.44	0.73	626
4	1.51	.64	.36	0.89	626
5	1.51	.61	.30	0.77	626
6	1.68	.65	.32	0.41	626
7	1.84	.70	.35	0.23	626
9	1.95	.68	.40	0.06	626
11	1.67	.65	.31	0.46	626
12	1.79	.67	.42	0.26	626
13	1.94	.65	.43	0.06	626
14	2.00	.61	.37	0	626
15	1.79	.63	.43	0.19	626
17	1.67	.55	.43	0.02	626
18	1.63	.63	.45	0.48	626
19	1.81	.66	.48	0.23	626
21	1.77	.66	.34	0.29	626
24	1.83	.65	.31	0.18	627
25	1.90	.74	.43	0.15	627
26	1.85	.73	.43	0.24	627
27	1.69	.59	.35	0.20	626
28	1.71	.60	.32	0.21	626
29	1.74	.58	.42	0.12	626
30	1.66	.60	.34	0.30	626
31	1.84	.60	.41	0.087	626
32	1.99	.64	.32	0.01	626
33	1.69	.67	.33	0.46	626
35	1.56	.66	.24	0.76	626
36	2.24	.72	.28	-0.40	626
40	2.02	.75	.23	-0.03	626
41	2.45	.66	.25	-0.81	626
43	1.65	.69	.24	0.58	626
44	2.02	.65	.28	-0.02	626
45	2.16	.70	.23	-0.24	626
47	2.08	.78	.25	-0.16	627
48	2.45	.65	.28	-0.78	627
52	2.03	.74	.50	-0.05	626
54	1.92	.75	.54	0.14	626
55	1.66	.71	.33	0.59	626
56	1.61	.68	.47	0.67	626
57	2.22	.72	.44	-0.35	626
58	1.82	.61	.32	0.12	626
59	2.02	.74	.28	-0.03	626
60	1.90	.74	.28	0.16	626
63	1.94	.70	.26	0.09	626
64	2.20	.63	.33	-0.19	626
65	2.39	.66	.34	-0.61	626
66	2.16	.67	.34	-0.2	626
68	1.81	.70	.35	0.29	626
69	2.34	.70	.18	-0.58	626
70	1.76	.66	.33	0.29	627
71	1.82	.65	.22	0.18	627
72	2.35	.62	.25	-0.39	627
73	1.83	.77	.20	0.30	627
75	1.75	.58	.33	0.09	626
77	1.76	.63	.36	0.23	626
78	1.94	.63	.33	0.05	626
80	1.77	.62	.39	0.20	626
81	1.94	.64	.32	0.05	626
82	1.40	.59	.29	1.18	626
83	1.45	.61	.39	1.01	626
84	1.49	.60	.40	0.82	626
86	1.39	.55	.40	1.08	626
87	1.49	.64	.37	0.92	626
89	1.66	.56	.42	0.09	626
99	2.04	.73	.37	-0.06	626
102	1.79	.68	.29	0.29	626
103	1.85	.60	.31	0.08	626
104	1.60	.61	.25	0.50	62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for Adolescent: Part II - MSPIUA-C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Seong-Sik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ong-Keon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described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for adolescent(MSPIUA) - Part II(MSPIUA-C). The MSPIUA-C was a self-report measure and assessed the psychological causes of the pathological Internet use. The total item pools of MSPIUA-Part II were developed and the content validity of preliminary versions of MSPIUA-C was examined. Item analysis,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of MSPIUA-C,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SPIUA-C and MSPIUA-S were also examined in the national sample of 819 adolescents. The 9 sub-scales of MSPIUA-C were Self-Efficacy, Impulsivity, Family Cohesiveness, Teacher Support, Problem Solving, Peer Support, Helplessness/Low self-esteem, Social Competence, Low Anger-Control. They had sufficient reliability. Evidence for its usefulness as a rating scale was presented. The results provide support for the reliability and the construct validity and demonstrated its versatility as a measur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Key words : *pathological, internet, adolescent validation, psychological cause, multidimensional*

주변 사람의 죽음이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이 윤 주* 조 계 화 이 현 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죽음에 관한 기본적 명제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에 대한 직면을 최대한 회피하고 죽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삶과 분리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죽음에 대한 불안 혹은 공포 경향은 발달단계별로 차이를 보인다. 성인기 전체 발달단계에서 성인초기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가장 크다는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의 죽음에 노출된 경험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들은 그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대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특히 죽음 교육 혹은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의미있는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 교육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대인조력 전공분야에 속하는 간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17명을 대상으로 '합의에 의한 질적분석(CQR)' 방법으로 이들의 죽음 경험의 교육적 의미와 죽음 교육이 향후 그들이 직업현장에 진출하였을 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였다.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들은 주변에서 죽음을 목격한 직후 충격(5명), 슬픔(7명), 허무감(3명)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 경험 이후, 현재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9명)하게 되었거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함을 인식(4명)하게 되었으며, 죽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죽음에 대한 교육이 충실한 삶(7명), 보람된 삶(6명), 완성하는 삶(5명) 등 삶을 보다 성숙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죽음 교육은 이후 이들이 직업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자신이나 주변사람의 죽음을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조력(7명)하거나 죽음을 중립적 혹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언(4명)할 수 있게 하고, 대처를 위한 조언과 조력(3명)을 할 수 있게 하며 인간존중 및 공감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3명)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죽음경험, 죽음교육, 대인조력, 대학생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종결짓는 사건으로서 출생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시되거나 부정당하고 회피되는 모순적인 대상이다. 우리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또한 우리 자신의 그러한 운명을 적극적으로

으로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인(知人)들의 각종 사망 사고 소식과 부고장,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의 사망 소식,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전 세계의 재난과 재해로 인한 대량사망사고소식 등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죽음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완전히 우리 자신의 의식 너머로 떨어버리고 살 수

이 연구는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2004-076-E00006)

* 교신저자 : 이 윤 주,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메일주소 : yjlee@cu.ac.kr

만은 없게 한다.

이러한 죽음의 중요성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연구 활동은 그 역사나 결과물에 있어서 짧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의 정체를 규명하고자 한 과거로부터의 노력에 더해 보다 다양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는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리고 죽음의 과정(dying process or bereavement process)을 보다 상세히 밝히고자 하는 시도, 죽음을 다루게 되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도록 돕는 방법과 기술의 개발 및 죽음 실무 성과의 검증 등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죽음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영역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보아 죽음의 본질, 죽음 과정의 정서와 인지 등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예: Fortner & Neimeyer, 1999; Kubler-Ross, 1970; Raphael, 1983; 김동림, 1992; 이경순, 2001),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랑하는 혹은 가까운 사람을 잃은 이들의 사별 당시와 그 후 적응과정의 경험에 대해 양적 혹은 질적으로 탐색한 연구(예: Bonanno, 2001; Christ et al., 2003; Davis et al., 2000; Goodkin et al., 2001; Moskowitz et al., 1996; Parkes, 2001; Prigerson & Jacobs, 2001; Riches et al., 2000; Stroebe, 2001),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 대한 조력의 성과에 대한 연구(예: Bertman, 1991; Cutcliffe, 1998; Murphy et al., 2002; Neymeyer et al., 2002; Rynearson, 2001), 죽음 교육 혹은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태, 개발과 성과에 관한 연구(예: Attig, 1992; Dickinson et al., 1992; Downe-Wamboldt & Tamlyn, 1997; Eddy & Alles, 1983; Feifel, 1977; Gould, 1994; Papadatou, 1997; Peak, 1977; Smith & Walz, 1995; Wass, 2004; 이영화, 1998)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변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 경험이 경험자에게 어떠한 심리적 손상을 주며 이러한 손상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헌들에서 지적하듯이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삶을 더 생생하게 하고 삶을 더욱 생산적으로 살아가게 한다(정진홍, 2003; Kubler-Ross, 1970)는 죽음 경험의 긍정적 의미의 체험을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드물어 보인다. 죽음을 삶과 관련지어 보다 긍정적으로 정의하고자 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죽음은 삶 안에 있는 현상으로 '삶의 현실'이며 삶을 총체적으로 완결하는 조건이며(정진홍, 2003), 인간의 성장 및 발달의 마지막 단계로서 인생의 의미있는 측면이며 인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Kubler-Ross, 1970).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영향이 있더라도 그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재구성이 일어난 경우(Gamino &

Sewell, 2004), 가족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가족의 죽음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Armour, 2003) 살아남은 사람들이 상실의 충격을 딛고 적응적인 삶을 회복하거나 더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따라서 죽어가는 당사자이든, 죽음으로 가까운 이를 잃은 슬픔과 충격을 겪는 사람들이든 죽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을 돕는 대인조력 전공의 실무자들은 이러한 대상자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잘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돕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을 맡아서 하게 될 이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효율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일의 중요성 역시 작지 않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신의 직업현장에서 죽음과 관련된 경험으로 고통을 겪게 될 대상자들을 만나고 죽음의 경험을 적응적이면서 건설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조력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대인조력(human-touch) 전공분야의 대학생들에 대한 죽음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업 현장에서 전형적인 대인조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경우 직장에서 죽어감과 죽음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심신의 고통으로 힘겨운 이들과 가족들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다. 당사자들과 가족의 고통과 슬픔은 실무자 자신에게도 전달되며 그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작지 않은 것이다(Maeve, 1998; Skovholt, 2003). 이들이 대상자들과 공감적으로 만나는 일은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실제로 이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실무자들이 지나친 동일시로 대상자들과 같은 고통에 빠져서 효율적인 조력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냉담함으로 무장할 경우 오히려 더 나은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Gadow, 1989)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직업 현장에서 죽음을 만나고 이에 관한 대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대학생들이 죽음을 만나되 이를 적절히 정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는 이들이 소진되지 않고 직장에서 효율적인 실무자로 기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죽음 교육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조력 전공분야의 대학생들이 대학에서의 수학기간 동안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이후 직업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가장 적절하게,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의 중요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과 이러한 사별로 인한 슬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개입의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성 없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예: Allumbaugh & Hoyt, 1999; Kato & Mann, 1999; Neymeyer, 2000). 사별자들에게 대한 개입의 효과크기는 일반적인 심리치료의 효과크기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연구결과(예: Shult et al., 2001)는 개선된 연구설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과 접근의 추후연구들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밝혀질 필요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동시에 개입의 제공자와 수요자의 특성 및 상황에 잘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 전문적인 교육으로 준비된 대인조력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죽음 교육과 죽음 관련 조력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첫째, 사별로 인한 슬픔에 관련된 이론과 모델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예: Stroebe, 2001)을 주로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학령기 아동들에게는 ‘죽음이 현실이고 문화의 한 부분이므로 죽음 교육을 문화 교육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대중매체 등 폭력적인 죽음과 자살에 대한 미화 등의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 전략을 갖도록 도와 준다는 관점에서 해독제로서의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노인들의 경우 ‘죽어가는 과정, 통증과 증상들의 관리,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교육을 통해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죽음 교육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Downe-Wamboldt & Tamlyn, 1997; Wass, 2004).

죽음 경험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특성 연구와 함께 조력 제공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서비스의 수요자들에 대한 연구가 제공자들에 대한 연구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죽음 교육의 대상인 조력 제공자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여 대인조력 전공 분야 대학생들의 죽음 관련 경험이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영향이 이들에게 어떠한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는지, 이러한 학습 경험과 더불어 죽음교육을 제공받다면 이것이 더 좋은 삶을 위한 노력과 직업 현장에서의 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은 죽음과 관련된 심리적 조력과 실제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대인조력 전공분야에서의 효율적인 죽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는 양적인 연구보다 질적인 연구가 우월한 힘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본 연구는 합의에 의한 질적 분석의 방법으로 간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인식과 생각을 보다 생생하게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연구 문제로 진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주변 사람의 죽음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학습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을 위한 노력이 삶에 주는 변화’는 무엇인가?

셋째,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죽음 교육이 향후 직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방 법

대 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광역시 A와 소도시 B 지역 각 1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소속전공별 구성인원은 간호학 5명, 교육학 6명, 사회복지학 6명의 총 17명이다. 이들의 학년은 2학년에서 4학년으로 다양하였으며 이들 중 4학년이 8명으로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23.06세(20세-35세)였으며, 전공 특성상 남학생 3명, 여학생 14명으로 여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 차

본 연구의 주된 연구절차는 질적 연구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은 전통적인 양적 접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연구참여자의 내적 경험에 대한 복잡한 현상들을 자연 언어로 생생하고 완전하게 묘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을 갖는다(Eisner, 1991). 본 연구에서는 조력제공자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연구결과를 죽음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Hill, Thompson과 Nutt-Williams(1997)가 개발하였으며 주로 연구참여자들의 내적 경험을 연구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온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였다. 이하 연구절차는 주로 CQR의 방법에 의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문헌 및 관련자료 검토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한 파일럿 설문조사를 위해, 죽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및 죽음 교육의 개발과 평가, 죽음과 관련된 개

입 및 조력의 이론 및 개입 모델과 그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문헌들을 고찰하여 연구자들은 질문 항목과 질문의 목적을 중심으로 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에 포함된 중요한 질문 항목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죽음 경험 유무 및 그 내용, 주변 사람의 죽음을 접하면서 갖게 된 경험들,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과 소속학과 및 나이, 성별 등을 묻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추후 심층면접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수락할 것인지를 묻는 동의 여부와 동의할 경우 연락을 취하게 될 연락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파일럿 설문조사

구성된 질문지를 소속전공교수들의 협조를 얻어 간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부 학부생 120명을 대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들이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에서 40분 정도였다. 질문지 배부에서 수거까지는 2004년 11월 중의 약 2주일이 소요되었다.

연구대상 선정

질문지에 응답하고 추후 심층면접에 응할 것을 수락한 학생은 119명이었으며 이들이 작성한 119부의 질문지는 모두 비교적 성실하게 작성되어 119부 모두가 연구참여자 선정에 의해 검토되었다. 연구참여자 선정의 기준으로는 첫째, 부모 형제 혹은 조부모나 부모의 형제 등 비교적 가까운 친척 혹은 학과나 동아리의 선배 등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였을 것, 둘째, 이들의 죽음을 접한 당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실이 질문지상의 진술에서 발견될 것, 셋째, 가까운 사람의 죽음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질문지에 비교적 풍부하게 진술되어 있을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질문지는 19부가 선정되었다.

심층 면접

면접은 연구주제와 질문을 통해 진술을 얻어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상담전공 박사과정 학생이 담당하였다. 면접자의 성별은 여자이며 나이는 39살이고 상담실무경험은 약 10년이다. 연구자와 면접자는 설문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면접 대상 학생들과 시간을 약속하였으며 면접은 대학내의 학생상담센터 개인상담실 혹은 녹음중이므로 노크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글귀를 방문에 부착한 연구자의 연구실 혹은 사용예약신청을 해 둔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면접 내용은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에 녹음이 되었다. 녹음 내용을 녹취록으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면접 대상자들 중 대부분

의 학생들이 면접을 통해 상담의 효과를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면접의 상담 효과로 인해 한 학생은 면접 중 녹음 중단을 요청하여 면접은 끝까지 진행되었으나 연구자료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또 하나의 면접 사례는 녹음기 오작동으로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역시 연구자료에서는 제외되어 총 17개의 연구자료가 완성되었다. 면접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다.

자료준비

면접을 마치고 녹음이 완료된 모든 사례에는 면접대상자의 이름 영문 이니셜이 부여되었고(예: 홍길동 -> GD) 이후 모든 자료 처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녹음된 자료는 보조연구원 학부 및 석사과정 학생들에 의해 축어록으로 만들어졌다. 17개의 테이프는 연구자 및 면접자, 연구보조원에 의해 축어록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었다. 축어록은 연구자와 면접자에 의해 최종 검토되어 부정확한 부분이 교정되었다.

영역부호화

면접자료에는 학생들의 소속 전공과 관련된 경험들이 다수 등장하였으므로 질적 분석 작업을 담당할 분석자들이 이들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역부호화를 시작으로 한 전체 질적분석 작업은 교육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전공교수 각 1인, 총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분석자들은 영역부호화에 들어가기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의 연구물과 CQR 방법으로 수행된 국내의 선행연구물 2개(김길문, 정남은, 2004; 이승은, 2003)를 각자 읽고 나서 함께 모여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러 다음 1개의 사례 축어록을 함께 읽고 토의하여 영역을 결정하는 연습을 하였다. 그 후에 나머지 사례는 각자 사례를 읽고 영역을 만든 후, 연구자 전원이 모여서 토의를 거쳐서 영역을 합의하였고 그 결과 5개의 영역이 결정되었다. 5개의 영역은 '주변인의 죽음 경험의 심리적 영향', '주변인의 죽음 경험이 가져온 학습', '좋은 죽음에 대한 지각', '좋은 죽음을 위한 노력이 삶에 주는 영향', '죽음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졸업 후 직업현장에 주게 되는 영향과 도움'이었다. 영역은 이후 교차 분석과 합의를 위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4개의 영역으로 결정되었다. 영역이 조정될 때 마다 원자료가 다시 검토되었다.

요약반응구성

모든 사례를 영역별로 정리한 후 분석자 전원이 모여서 각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학생들의 진술 속에서 찾거나 이러한 진술을 부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여 대표적인 요약 반

응을 구성하였다. 요약할 때에는 요약자의 추론을 배제하고 연구참여자의 말에 충실하였으며 사례의 전체 맥락을 염두에 두었다.

영역과 요약반응 감수 및 교차분석

모든 사례의 요약 반응을 구성한 후 영역과 영역별 요약반응들에 대하여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1급 상담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상담진공자 1인으로서 삼십대 중반의 여성 상담자였다. 감수한 내용에 대하여 분석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감수자의 의견에 따라 요약 반응을 수정하거나 연구자들의 결정을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감수자의 검토 후 특별히 더 수정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논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감수 절차 후 분석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교차분석이 이루어졌다. 요약반응 내용의 교정 정도의 소폭 수정이 교차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 과

CQR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Hill 등(1997)에 의하면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일반적’인(general) 것으로, 전체 사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적’인(typical) 것으로, 50%보다 2 내지 3 사례가 적은 경우까지를 ‘변동적’인(variant) 반응으로 간주하며 하나 혹은 두 사례에서만 나타난 반응은 결과로 기술하지 않는다. Elliott(1989)이 발전시킨 기준에 따라 Hill 등(1997)이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9사례 혹은 그 이상에서 나타난 반응 유목은 전형적, 5-8사례에서 나타난 경우 변동적인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발견된 반응, 즉 일반적인 반응에 해당되는 유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밝혀진 4개의 영역과 영역별 반응유목 및 반응유목 별 대표적 요약반응을 모아 표 1로 제시하였다.

표 1. 주제별 반응유목과 요약반응

주제	반응 유목	유형	대표적 요약반응
죽음 경험의 영향	슬픔	전형적	서글퍼져서 우울해지고 눈물나고 그랬거든요. 이제 내 곁에 없다 깨닫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울해요.
	충격	변동적	참 많이 놀라고 충격이었어요 아직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이 충격이었고...
	허무감	변동적	나도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자니 허무하고 삶의 의욕이 생기질 않았어요 좋아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생각하니 삶이 허무했어요.
죽음 경험에서의 학습	현재 삶의 중요함 인식	전형적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 하루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후회없이 살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삶의 필요성 인식	변동적	사람 끝까지 사는 게 아니구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
	죽음사실 인식 혹은 수용	변동적	언젠가는 나에게도 찾아올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좋은 죽음을 위한 노력이 삶에 주는 변화	충실한 삶	전형적	일단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주어진 일을 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살면..... 제가 하는 일에 더 충실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보람있는 삶	전형적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보람이나 기쁨 같은 걸.....
	죽음 준비하는 삶	변동적	죽음을 수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할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 교육이 직업현장에 주는 영향과 도움	완성하는 삶	변동적	좀 온화해질 수 있고 여유로와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 질 수 있을 것...
	적극적, 긍정적 삶을 위한 조언/조력	전형적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해주고 싶어요, 삶 자체를..... 삶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죽음의 긍정적 수용 조언	변동적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지지와 대처를 위한 조언과 조력	변동적	죽음도 절차가 복잡.....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렇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위로도 하고.....
인간중심적 접근	변동적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가..... 상담방식이랄까, 그들을 격려하는 방법을 알고 대화했죠.	

표 1 에서 보듯이 반응의 수의 합이 전체 사례수인 17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한 사례에서 서로 다른 반응유목으로 분류된 진술들이 발견된 것이 그 이유이다. 전체적으로 4개의 주제에 대해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의 반응유목이 나타났다. 각 주제별로 나타난 반응 유목과 대표적인 요약반응에 대한 결과를 주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변 사람의 죽음 경험에서 받은 영향

주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분석한 결과 3개의 반응 유목이 전형적 혹은 변동적 반응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슬픔’이 11명으로 전형적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충격’ 7명, ‘허무감’ 6명으로 변동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외의 소수 반응으로는 ‘두려움’으로 반응한 경우(2명)와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동시에 나타난 긍·부정 양가감정을 보고한 경우(1명)가 있었다. 빈도가 작아서 반응 유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진술들까지 합한 모든 반응으로 볼 때, 가까운 주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학생들에게 그 경험이 1차적으로 미친 영향은 대부분 정서적임을 알 수 있다.

주변 사람의 죽음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학습 경험

주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 얻은 학습 경험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것을 정리한 결과로는 ‘현재 삶의 중요함을 인식했다’는 학생이 13명으로서 가장 많아 전형적인 반응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음으로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삶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진술한 학생이 6명으로 변동적 반응으로 분류되었으며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중립적으로 인식 혹은 수용’했거나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한 학생이 6명으로 역시 변동적 반응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반응은 죽음 사실에 대한 인식 혹은 수용 반응을 제외하면 두 개의 반응 유목이 모두 삶에 대한 초점을 가진 것으로서 주변 사람의 죽음 경험이 학생들에게 주는 대부분의 의미는 자신의 삶으로의 집중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유목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등바등 살아갈 필요가 있나 회의가 들어서, ‘스스로 마음이 더 넓어지고 좀더 크게, 여유롭게 생활하게 된 것 같다’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보고도 나타났다. 이 역시 삶에 대한 초점과 관련되는 진술로 볼 수 있겠다.

좋은 죽음을 위한 노력이 삶에 주는 영향

이러한 경험을 통해 좋은 죽음을 얻기 위해, 즉 잘 죽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의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다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변화하였다’고 진술한 학생이 7명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진술한 학생이 6명으로 전형적인 반응 유목에 해당되며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진술한 경우가 4명으로서 변동적 반응에 해당되었으며, ‘자아실현 혹은 인격을 완성하는 방향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진술한 학생 3명, 신앙에 보다 충실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2명으로서 이 둘을 합하여 ‘완성하는 삶’이라는 이름의 반응 유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두 유목은 변동적 반응에 해당한다.

죽음 교육이 향후 직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죽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13명의 학생들 중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죽음으로부터 배움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죽음 교육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진술한 1명의 학생을 제외한 12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2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 향후 직업 현장에 진출하여 죽음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 죽음 교육이 어떠한 영향 혹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적극적, 긍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과(혹은) 조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한 학생(7명)이 가장 많아서 전형적 반응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음으로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언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술한 학생(4명)이 그 다음을 이었으며 ‘죽어가는 사람 혹은 가까운 사람을 잃은 이들이 장례절차를 포함한 추후 대처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처를 위한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한 학생이 3명, ‘보다 인간을 존중하고 공감적으로 대하는 등 인간중심적인 접근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학생이 3명으로 모두 변동적 반응으로 분류되었다. 이 주제에 대한 응답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한다는 응답은 교육학과 학생들에게서 주로 나타났으며 ‘장례 절차 등 가까운 이의 죽음 이후 남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대처와 관련된 조력’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인간중심 접근’과 관련된 진술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서 주로 나타나, 다른 주제에 비해 이 주제에서는 전공간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죽음 경험 당사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돕도록 노력 제공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조력 제공자의 특성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근거하여 조력을 제공하게 될 대인조력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간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부 전공 대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에 의한 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대인조력 전공분야의 세 개 전공의 대학생 17명을 대상으로 하여 죽음 관련 경험이 이들에게 준 영향, 이러한 영향이후 얻어진 학습 경험, 죽음교육을 제공받을 경우 더 좋은 삶을 위한 노력과 직업 현장에서의 실무에 주어질 영향에 대한 기대를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주제에 대해 각 주제당 3에서 4개, 총 14개의 반응유목이 분류되었으며 그 반응유목들은 전형적인 반응 5개, 변동적 반응 9개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는 영역별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연구결과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첫째, 이들 대인조력 전공 대학생들이 주변 사람의 죽음 경험에서 받은 영향은 모두 정서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가까운 이의 죽음을 접하면서 슬픔, 충격, 허무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들의 반응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대체로 복합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이중 자신에게 가장 대표적인 정서로 기억되고 있는 것으로 슬픔, 허무감, 충격 등의 몇 가지 정서를 지적하였다. 가까운 이의 죽음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색깔의 슬픔이나 결핍감(혹은 허무감)을 결과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가까운 이를 잃은 경험(loss)은 슬픔의 강도, 지속기간, 정서의 시작 시기의 빠르고 늦음에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험이며(Parkes, 1972), 죽어가는 당사자나 가까운 이를 죽음으로 잃은 남은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심리적 과정 중 특징적인 하나의 독립적인 단계(Kubler-Ross, 1970)이다. Bowlby(1980)의 애착이론 역시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을 잃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슬픔을 지적한 바 있다. 가까운 이를 갑작스럽게 잃은 데서 오는 충격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이나 우울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때 죽음과 관련된 조력을 제공하게 될 대학생들 자신의 사적인 경험이 일반적으로 가까운 이를 사별한 일반인들과 정서적으로 유사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경험을 한 이들 대학생들이 이후 직업 현장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이들을 보다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주변 사람의 죽음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학습 경험으로 가장 많은 9명의 학생들이 진술한 반응은 '현재 삶의 중요함을 인식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나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므로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삶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반응도 4명에게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에 대한 경험이 삶을 더 생생하게 각인시키고 삶을 더 잘 살아가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죽음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바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가까운 이를 죽음으로 잃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단계인 의미만들기와 그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은 가까운 이를 사별한 충격과 슬픔,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실제적 손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적응을 극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전략이자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그 이후의 남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만들기(혹은 의미구성)'를 지적하였다(Armour, 2003; Davis et al., 2000; Gamino & Sewell, 2004).

삶에 보다 충실해지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학습 경험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입사경험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경순(2001)이 연구한 3명의 연구참여자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다음 '세상이 모두 소중한 것으로 가득찬 것을 깨달'아서,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해지고 의미가 깊어졌'으며 '삶을 보다 더 가치있게 살고 싶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본 연구의 대상자들인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다른 학습 경험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중립적으로 인식 혹은 수용했거나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죽음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죽음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의 내용을 앞에서 기술한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함께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들의 죽음 경험에서 얻어진 교육의 의미를 '성숙과 통합'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의 죽음 경험의 교육적 의미는 죽었다 살아난 이들의 학습 경험인 '성숙'(이경순, 2001)과 맥락에 있어 일치한다. 이러한 학습의 경험은 서구의 경우에도 죽음에서 돌아온 경험으로서 '그때의 일 때문에 나는 삶을 더 값지게 생각하게 되었다(Moody, 1992)'는 진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좋은 죽음을 위한 노력이 삶에 주는 영향으로는 '보다 충실한 삶', '보람 있는 삶', '죽음을 준비하는 삶', '자아실현 혹은 인격을 완성하는 방향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모든 진술들이 모두 죽음 경험을 통한 학습경험과 다르지 않은 맥락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진술들은 죽음 경험과 죽음 교육 양자 모두 보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삶에서

보다 '성숙되고 통합'된 모습이라는 변화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죽음 경험에서 얻어진 이러한 학습결과들은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탐구한 이들의 한결같은 결론인 '죽음은 삶과 뗄 수 없는 하나(예: 정진홍, 2003)'라는 명제가 대인조력전공 대학생들에게서도 발견되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죽음 경험과 관련된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조력을 제공하는 대표적 직업군인 상담자들의 경우 초보 상담자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이 큰 경우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Kirchberg et al, 1998)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조력 전공 실무를 담당하게 될 대학생들이 죽음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학습으로서 죽음과 삶을 통합하며 삶에 대해 보다 성숙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죽음에 관한 조력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죽음 교육이 향후 직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적극적, 긍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 및 조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은 사례에서 발견되었으며,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과 '추후 대처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처를 위한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 '인간중심적인 접근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 다음을 이었다. 죽음 교육이 적절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죽음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태도들을 공유하게 하도록 하며 대상자들과 편안하게 의사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Wass, 2004)는 점에서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들의 죽음 교육의 결과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정확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그들의 기대가 향후 조력 전문 분야에서 일하게 될 대학생들에 대한 죽음 교육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죽음 교육은 본질적으로 다학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Feifel, 1977)처럼, 여러 전공분야의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밝혀진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다학제적인 죽음 교육 과정의 구안 및 개발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논의해 보겠다. 처방적인 학문 영역에서의 연구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연구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는 실제 여러 연구 영역에서의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교육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들의 죽음 경험의 영향과 의미를 탐구하여 그 결과를 밝힌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

어 그 결과를 다학제적인 죽음교육과정 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의의로서 작지 않다고 자평해 본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대인조력 전공분야의 대학생들의 죽음 경험의 영향과 교육적 의미를 분석해 본 것 역시 그 의미를 지닐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북의 한 지역 소재 대학교의 간호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부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 세 전공 외에도 죽음 관련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공분야로는 신학, 의학, 심리학 분야가 더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전공 분야의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다양한 자료를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들은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을 보다 다변화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 경험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의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정서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까운 이를 사별한 이들이 추후 회복과 적응의 과정을 밟아나감에 있어서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 반응과 더불어 희망과 회복의 긍정적인 주제를 함께 보여줄 때 슬픔이나 고통 등의 부정적인 정서만을 보여준 이들에 비해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Gamino & Sewell, 200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가 대인조력 전공 분야의 대학생들의 죽음 경험의 영향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진행되지 못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죽음 경험의 영향을 구분하여 이러한 흥미있는 연구주제에 대한 답을 규명하고자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난 사고로 친지와 가족을 잃은 이들의 심리적 영향의 정도와 지속기간이 사별자와 죽은 이의 가까움 정도에 따라 상이한지를 알아본 연구들에 의하면 관계의 가까움 정도에 따라 심리적 손상과 회복 기간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Chen et al., 2003). 이러한 연구 문제는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들의 죽음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규명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경험한 망자와의 관계의 거리 정도에 따라 상이한 영향과 학습이 일어나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 의하면 대인조력 전공분야의 대학생들은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삶으로의 집중', '성숙과 통합'이

라는 중요하고도 바람직한 학습 경험을 갖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죽음 교육 과정의 구안과 개발에서 대인조력 전공분야 대학생과 기타 전공분야 대학생에서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결과가 대인조력 전공분야가 아닌 타 전공분야 대학생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죽음 교육 과정에서 실제로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교육대상자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가져오는 교육적 의미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접경험, 예를 들면 영화나 도서류 같은 매체를 통한 죽음의 경험 역시 직접적인 경험의 경우와 유사한 학습 효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탐색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의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김길문, 정남운. (2004). 초보 상담자가 상담회기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과정: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 심리치료, 16(1), 1-20.
- 김동립. (1992). 죽음의 개념과 시점, 뇌사입법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6, 155-212.
- 이경순. (2001), 죽음경험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3), 368-375.
- 이승은. (2003).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슈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화. (1998). 죽음 준비교육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진홍. (2003). 만남, 죽음과의 만남. 서울: 궁리.
- Allumbaugh, D. L., & Hoyt, W. T. (1999). Effectiveness of grief 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70-380.
- Armour, M. (2003). Meaning making in the aftermath of homicide. *Death Studies, 27*, 519-540.
- Attig, T. (1992). Person-centered death education. *Death Studies, 16*, 357-370.
- Bertman, S. L. (1991). *Facing death: Images, insight, and interventions*. Washington, DC: Hemisphere.
- Bonanno, G. (2001a). Introduction: New directions in bereavement research and theor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4*, 718-725.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and Depression. Volume 3*. Basic Books, New York.
- Chen, H., Chung, H., Chen, T., Fang, L., & Chen, Jian-Ping. (2003). The emotional distress in a community after the terrorist attack on the World Trade Center.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9(2)*, 157-165.
- Christ, G., Bonanno, G., Malkinson, R., & Rubin, S.(2003). Bereavement experiences after the death of a child. In Institute of Medicine. M. Field & R. Behrman (Eds.), *When children die: improving palliative and end of life care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pp. 553-579).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Cutcliffe, J. R. (1998). Hope, counselling and complicated bereavement reaction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8(4)*, 754-761.
- Davis, C. G., Wortman, C. B., Lehman, D. R., & Silver, R. C. (2000). Searching for meaning in loss: Are clinical assumptions correct? *Death Studies, 24*, 497-540.
- Dickinson, G. E., Sumner, E. D., & Frederick, L. M. (1992). Death Education in selected health professions. *Death Studies, 16*, 281-298.
- Downe-Wamboldt & Tamlyn, D. (1997). An international survey of death education trends in faculties of nursing and medicine. *Death Studies, 21*, 177-188.
- Eddy, J. M., & Alles, W. F. (1983), *Death Education*, The C. V. Company.
- Eisner, E. W. (1991). *The enlightened eye: Qualitative inquiry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New York: Macmillan.
- Elliott, R. (1989). Comprehensive process analysis: Understanding the change process in significant therapy events. In M. J. Packer & R. B. Addison(Eds.), *Entering the circle: Hermeneutic investigation in psychol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eifel, H. (1977). Death and dying in modern America. *Death Education, 1*, 5-14.
- Fortner, B. V., & Neimeyer, R. A. (1999). Death anxiety in order adults: A quantitative review, *Death Studies, 23*, 387-444.
- Gadow, S. (1989). Clinical subjectivity: Advocacy with silent patients.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4(2)*, 535-541.

- Gamino, L. A., & Sewell, K. W. (2004). Meaning constructs as predictors of bereavement adjustment: A report from the scott & white grief study. *Death Studies, 28*, 397-421.
- Goodkin, K., Baldewicz, T., Blaney, N., Asthana, D., Kumar, M., Shapshak, P., Leeds, B., Burkhalter, J., Rigg, D., Tyll, M., Cohen, J., & Zheng, W.(2001). Physiological effects of bereavement and bereavement support group intervention. In M. Stroebe et al. (Eds.), *Handbook of bereavement: Consequences, coping, and care*(pp.671-70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ould, J. B. (1994).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 strategy for grief education. *Death Studies, 18*, 65-74.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Kato, P. M., & Mann, T. (1999). A synthesis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the bereaved. *Clinical Psychology Review, 19*, 275-296.
- Kirchberg, T. M., Neimeyer, R. A., & James, R. (1998). Beginning counselors' death concerns and empathic responses to client situation involving death and grief. *Death Studies, 22*, 99-120.
- Kubler-Ross, E. (1970), *On Death and Dying*. Tavistock, London.
- Maeve, K. K. (1998). Weaving a fabric of moral meaning: How nurses live with suffering and deat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 1136-1142.
- Moody, R. A. (류근일 역) (1992). *Life after Life: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서울: 정우사.
- Moskowitz, J. T., Folkman, S., Collette, L., & Vittinghoff, E. (1996). Coping and mood during AIDS-related caregiving and bereavement.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18*(1), 49-57.
- Murphy, S. A., Johnson, I. C., Lohan, J., & Tapper, V.J. (2002). Bereaved parent's use of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resources 4 to 60 months after a child's violent death. *Family and Community Health, 25*, 71-82.
- Neimeyer, R. A. (1998). *Lessons of loss: A guide to coping*. New York: McGraw Hill.
- Neimeyer, R. A. (2000).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meaning: Grief therapy and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Death Studies, 24*, 541-550.
- Neimeyer, R. A. (2000b).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meaning: Grief therapy and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Death Studies, 24*, 544-558.
- Neimeyer, R. A., Prigerson, H. G., & Davies, B. (2002). Mourning and Meani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 235-251.
- Papadatou, D. (1997). Training health professionals in caring for dying children and grieving families. *Death Studies, 21*, 575-600.
- Parkes, C. M. (1972). *Bereavement: Studies of grief in late life*. Basic Books. New York.
- Parkes, C. M. (2001).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scientific study of bereavement.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 25-4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ak, Daniel T. (1977). *Dying and Death: A Clinical Guide for Caregivers*, Baltimore: williams & wilkens.
- Prigerson, H. & Jacobs, S. (2001). Traumatic grief as a distinct disorder: A rationale, consensus criteria, and a preliminary empirical test. In M. Stroebe et al. (Eds.), *Handbook of bereavement: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 613-64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phael, B. (1983), *The Anatomy of Bereavement*. Unwin Hyman, London.
- Riches, G., & Dawson, P. (2000). *An intimate loneliness: Supporting bereaved parents and siblings*, Buckingham,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Rynearson, E. (2001). *Retelling violent death*. Philadelphia: Bruner-Routledge.
- Schult, H., Stroebe, M. S., van den Bout, J., & Terheggen, M. (2001). The efficacy of bereavement interventions: Determining who benefits.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pp. 705-73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kovholt, T. M.(유정경, 유정이, 이윤주, 김선경 역) (2003).
The resilient practitioner: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서울: 학지사.
- Smith, T. L. & Walz, B. J. (1995). Death education in paramedic programs: A nationwide assessment. *Death Studies, 19*, 257-267.
- Stroebe, M. (2001). Bereavement research and theory: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4*, 854-865.
- Wass, H. (2004). A perspective on the current state of death education. *Death Studies, 28* : 289-308.

원 고 접 수 일 : 2005. 4.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1.

게 재 결 정 일 : 2005. 7. 14.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Death on High-Touch Major Students

Yoon-Joo Lee Ge-Hwa Jo Hyun-Ji Le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authors conducted interviews with 17 high-touch major students about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death through CQR. A qual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all students experienced negative feelings(typical: sad, variant: shocked) when significant other was died. But All students learned meanings of current or future life(typical: importance of life, variant: need of preparing death). They thought death education would contributed to fulfilled(typical), altruistic(typical), fruitful or mature(variant) life for themselves, and helping people live positive and active life(typical), acceptance of death(variant), dealing and coping with death(variant). Critical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death experience, death education, high-touch major student,*

Articles

- 3 The Development of The Case Conceptualization Model for Family Problem
Kee-Hong Ko
- 17 Divorce Mediation Service in the U.S.; Helping parents negotiate child custody issues
Myung-Hee Jun
- 31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Experience and Cognitive Changes in Adolescents
Hyunnie Ahn
- 43 A Component Analysis on the Causes of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 An Application of Social Relations Model
Na-young Park and Jae-Hong Ko
- 55 Adolescent's Image Study about Their Father
Myung-Seon Choi and Seon-Hwa Cho
- 71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Parent-Adolescent Child Relationship
Kwang-Woong Kim and Soo-Kyung Moon
- 85 A Study on Development of School-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hildren of Divorce
Kyong-Jip Kim and Moon-Hee Yon
- 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for Adolescent: Part II - MSPIUA-C
Sung-Won Moon, Seong-Sik Kim and Bong-Keon Lee
- 113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Death on High-Touch Major Students
Yoon-Joo Lee, Ge-Hwa Jo and Hyun-Ji Lee